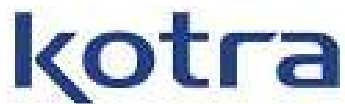


베네수엘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3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7
2. 주요 산업 동향 /10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42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44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4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47
대한수입규제동향 /51
관세제도 /51
주요인증제도 /53
지적재산권 /54
통관운송 /5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56
- 외국기업 투자동향 /59
- 우리기업 투자동향 /6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2
- 진출형태별 절차 /65
- 투자입지여건 / 68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9
- 조세제도 /7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5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82
- 2. 물가정보 /84
- 3. 바이어발굴 /86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92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93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4
- 7. 이주정착 가이드 / 95
- 8. 출장가이드 /105

Venezuela



1994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베네수엘라 (Venezuela)
위치	남미, 카리브해상 남부 (북위 0도45부-12도12부 및 서경 59도-73도 사이)
면적	912,050 km ² (한반도의 4.5배, 남한의 9.2배)
기후	온대성(카리브해 인근 도시), 열대우림(내륙 아마존 유역)
수도	카라카스 (Caracas / 인구 183만명)
인구	2,659만 명 (2007년 기준)
주요 도시	Maracaibo, Valencia, Barquisimeto 등
민족(인종)	메스티조(69%), 백인(20%), 흑인(9%), 인디오(2%)
언어	스페인어
종교	카톨릭 (전 인구의 91%)
건국(독립)일	1811년 7월 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Hugo Chavez Frias 대통령
입법부	단원제 (165석/임기 5년/'99년 12월 헌법개정)
정당	여당 - MVR당 (Movimiento Quinta Republica/제5 공화국당) 야당 - AD당 (Accion Democratica/민주행동당) COPEI당(Comite de Organizacion Politica Electoral Inde-pendiente /기독교사회당)
정부 성향	민중 사회주의

자료원: 베네수엘라 통계청,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나. 경제지표 (2006년)

GDP	US\$1,479억 (경상가격) * 2007년 12월 공식 환율: US\$1 = BS 2,150
경제성장률	8.3% (2006년 10.3%)
1인당 GDP	US\$6,800
실업률	9.4%
물가상승률	1.7%(2007.06)
외채	US\$313억
화폐단위	Bolivar(Bs), 건국영웅인 BOLIVAR장군의 이름에서 따옴
환율(2007.12)	(정부 공식 환율) US\$1.00 = 2,150 Bs (시장 실제 환율) US\$1.00 = 4,500 Bs
외환보유고(2007.12.21)	US\$271.2억
산업구조	석유(24.3%), 제조업(14.9%), 부동산/기업서비스(12.2%), 정부서비스(8.4%), 유통업(7.8%), 지자체/비영리용역(7.2%), 운송/창고/통신(6.9%), 농업(5.2%), 건설(4.9%), 기타(8.2%)
교역규모	수출: US\$64,568백만 수입: US\$31,344백만(2006년 말 기준)
교역품목	수출: 원유 (세계 5위 수출국), 철광석, 알미늄, 보크사이트 등 수입: 기계류, 전기전자, 운송기기, 의료품 등

자료원: 베네수엘라 통계청,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다. 한-베네수엘라 관계

체결협정	과학기술협정('93) 문화협정('95) 외교관광용여권 비자면제협정('94) 3개월 미만 관광 무비자협정('05)
교역규모(2006년)	수출 U\$995.9백만, 수입 U\$75.6백만, 수지 U\$920.2백만
교역품목	수출: 자동차 부품, 가전 제품, 휴대용 전화기, 통신기자재 등 수입: 철강, LPG, 원유, 비철금속, 목재 등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 - POSVEN 진출 (POSCO 합작투자기업/U\$54,293천), 현재 철수함 ○ 베네수엘라의 대한투자 - 없음
교인	약 150명 (체류자 포함)

자료원: 베네수엘라 통계청,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차베스 대통령의 통치 기반 공고화

지난 2004년 8월 15일 실시된 국민소환투표 결과, 현 차베스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어 헌법에 보장된 대로 07년 1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10월 31일 실시된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차베스 파가 22석의 주지사 중 20석을 석권하였으며 시장 선거에서도 카라카스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시장직을 차지하였다.

2001년 하반기부터 약 3년간 각종 시위 및 유혈 폭력 사태, 총파업 등으로 극도의 통치권 약화에 시달렸던 차베스 대통령은 이와 같은 2회의 투표 결과를 통해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야당이 현재와 같이 분열된 채 구심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차베스 대통령의 권력 기반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집권당(MVR당)의 국회의원 수는 2005년 12월 4일 투표결과 집권당의 압승으로 165석 전원이 친 차베스 국회의원들이다. 반 차베스 진영의 정치인들이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실정에서 차베스는 2006년 12월 3일 Zulia 주의 주지사를 상대로 대통령직 재임에 성공하여 2013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주도권을 전 채로 통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21세기 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모토하에 제 2기 집권의 야심작으로 사유재산 금지법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전국민 투표를 2007년 12월 2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찬성, 반대표가 각각 48.8%, 51.2% 의 근소한 차로 반대파가 승리하여 급속한 개혁안에는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한번 더 남은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투표가 남아있어 정부는 그동안 실행해 온 각종 사회구제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사회주의법의 실효를 위해 투쟁중이다.

나. 반대파는 여전히 존재

이와 같이 차베스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공고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정치 정세는 평온을 되찾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차베스 대통령측은

투표 승리를 1999년 집권시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토지법 등 각종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로 간주하는 반면, 기득권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대파는 이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소환 투표의 패배를 거치며 차베스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결집한 CD(민주협의회: Coordinadora Democrática)는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CD의 온건파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 차베스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이나 급진파는 정치적 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보다 과격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내부분열로 현재 CD는 거의 해체된 상태이나 온건파든 급진파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 승리 이후 차베스 대통령은 CD의 주요 지도자이며 금번 주지사 선거에서 야당 측 후보로 당선된 2인 중 하나인 Manuéi Rosal 술리아(Zulia)주 지사 등을 초청, 대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양측간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다. 검사 암살 사건

차베스 대통령이 2일간 축출되었던 2002년 4월 정변과 관련, 약 400명에 달하는 반대파 인사의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Danilo Anderson 검사가 지난 2004년 11월 말 자동차 폭발로 암살당했다.

Anderson 검사의 암살이 CD 급진파가 계획한 일련의 과격 투쟁의 서막인지 단순히 정변 조사에 관련된 일회성 사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반대파 숙청의 구실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말, 한 여기자가 검사 암살 살인 혐의로 수감된 바 있다.

라. 민중의 높아진 기대치 충족 필요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 이후 대통령을 지지한 일반 민중들의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반대파의 비협조 및 방해로 개혁이 저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베스 정부의 성공 여부는 바로 빈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지층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각 부문에서 부정부패 및 비효율의 제거를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차베스 정부는 'Misión'이라는 명칭의 각종 빈민층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빈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Misión Hábitat 등 12개의 프로젝트가 주택,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추진 중인데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 고유가 덕분에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제 유가 하락 시 급격한 재정 적자폭 확대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05년 대규모의 석유산업계획(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을 세워 2030년까지 장기적인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공사에 착수하였고, 농업, 임업에 있어서도 계획(Plan de siembra y procuccion 2005)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빈민층의 지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3년 동안과 같은 정치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차베스 파(Oficialista)의 주도로 이끌어가던 정치는 2005년 12월 4일 국회의원선거로 다시 한번 공공연히 그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전체 167석의 의원 중 116석(MVR), 51(기타)로 집계되었다. AD당은 단 한 사람도 뽑히지 않았다.

마.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2기

2006년 12월 3일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수 1천 6백만 명 중 61.6%의 득표율로 집권 2기를 맞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7년 1월 차베스 대통령은 통신부, 원주민(인디오)부, 스포츠부(교육·스포츠부에서 독립) 등 3개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총 27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였다. 기존 부통령인 Mr. Jose Rangel씨를 해임하고 Mr. Jorge Rodriguez씨를 임명하였다. 167명으로 구성된 국회는 전원 차베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이다. 신 정부는 1 부통령, 1 대검찰청, 27개 부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법무부를 수석 부처로 지정 하였다.

바. '21세기 신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의 목적 하에 정부방향 제시함

차베스 대통령은 향후 18개월 동안 포고령만으로 법률을 제정토록 허용하는 '특별 입법권 (ley habilitante)'을 부여받아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 있어 사회주의 포폴리즘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형인 Mr. Adam Chavez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Mr. Adam Chavez 교육부 장관은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쿠바에서 사회주의 교육시스템을 습득하고 교육부 장관으로 영전되었으며 곧바로 사회주의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21세기 신 사회주의는 중국, 소련, 쿠바, 북한 등의 사회·공산주의 이념과는 다른 차베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으로서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 상황에 맞는 신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 국유화와 언론통제를 통한 집권강화

차베스 대통령은 신임 부통령인 Mr. Jorge Rodriguez에게 첫과제로 주재국 최대 통신회사인 CAN TV와 최대전력회사인 ELECTRICIDAD DE CARACAS의 국유화를 지시하여, 전력과 통신 서비스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다.

2007년 5월 27일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민영방송사 RCTV의 전파 송출이 중단 되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통신위원회(CONATEL)의 방송 면허기간 연장 요구가 최종 거부된 탓이다.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터라 이 사안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시민, 학생의 데모가 있었으며 일반 기자들의 큰 반발과 빈축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차베스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이번 조치로 그를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진 가운데 차베스 정부의 데모 진압여부에 따라 국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베네수엘라 관계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선린우호 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며 1965년 국교수립, '83년 주한 상주공관 설치, '93년 과학기술협력 기본협정 체결, 이종과세방지협정 실무협상 진행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99년 10월 차베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아졌다. C.A. Perez 대통령 집권 당시에 국제관계 다변화 정책에 따라 '74년 북한과 수교한 바 있으나, 북한의 대남도발책동에 대해 비판적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상주공관을 운영하다가 '99년 초 철수한 바 있다.

2005년 4월, 3개월 관광 무비자 협정을 맺어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출입국이 간편해 졌다. 피아니스트 백교수 공연, 11월 홍신자 발레단 공연, 12월 사라 장의 바이올린 연주 등 문화계의 교류가 활발하다. 2006년 국영 TV 채널인 La Tele에서의 한국드라마 “겨울 연가(Sonata del invierno)” 방영, Dynamic Korea 의 광고효과, 11월 “가을동화 (Otono en mi Corazon)” 2007년 8월 “이브의 모든 것”, 10월 “캔디 캔디” 등의 방영이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가 비즈니스 쪽에도 높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나. 현안사항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일부 부품 미선적, 중고 부품 선적 등에 따른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수량 부족, 물량 선적에 따른 클레임이 늘고 있다. 이런 클레임들은 한국 상품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므로 대 베네수엘라 거래에 대해 우리 업체들의 대한 신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관세 인하 폭이 갈수록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상품은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내상품의 경쟁력 미달로 국내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수입 규제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초 철강판에 대해 세이프 가드가 제소되었다가 국내 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으며,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제소되어 12월 반 덤핑 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조치 타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자동차 조립 업체들은 수입차의 범람으로 국내 조립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고용은 물론 연관부품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그 방법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차 제도를 확대하여 국내 조립 상업용 차량 (버스, 택시, 소형 트럭,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한-베네수엘라간 경제 협정이 없어 통상에 많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시급히 경제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입찰시 국가간 맺은 경제협정에 기인하여 입찰허가를 발주하는데, 한국과는 계약없이 각 프로젝트간 정부 대 정부의 형식으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하반기(10월)에 베네수엘라 제2의 전력공사인 Cadafe에서 9,000km의 광케이블 입찰을 중국간 경제 협정에 의거 중국 정부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내 자국산의 광케이블 제조업체가 없어, 유럽·일본·한국의 광케이블 제조업체와 재협정을 맺었다. 그 결과 주재국에서 '중국에 입찰수주를 준 것은 중국산을 납품하라는 내용이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하여 거부한 실례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간 포괄적인 경제 협정이 있는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 및 기관의 입찰수주가 용이하므로 신속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2006년 5월에 차베스 대통령은 안데안 회원국 및 G3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MERCOSUR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2007년 집권 2기를 맞아 21세기 신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며 대 아시아 교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은 우리나라에 청신호로 작용하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 다변화와 정부 대형 프로젝트에 임해야 하겠다.

베네수엘라가 안데안 회원국, G-3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옴에 따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부정적인 요인은 있었으나 주재국의 G-3 탈퇴로 일정기간을 거쳐 특혜 관세가 철폐되므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함께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본다.

2007년 8월 정부의 기준유가가 배럴당 29불에서 현재 50-60 불대의 유가로 초과 이익금 발생으로 정부에 의한 성장동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여러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를 두고 있어 한국기업의 정부입찰에 뛰어들 때로 전망한다.

정부의 국유화 등 반 시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출서의 자금이 올해에도 지급예정으로 통신, 전력, 사회간접자본, 의료, 과학기술처 등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은 지속적인 상승무드에 있다.

다. 원유의 대 한국 수출 모색 및 경제 프로젝트 협력 방안

주재국 국영석유회사의 부사장인 Mr. Asdrubal Chavez씨는 2007년 11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제 1차 원유, 프로젝트 교류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어 한국측은 12월 11일 산자부 박대규 2등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측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방베하여 주재국 국영석유회사와 제 2차 실무회담을 가졌다. 2차 실무회담에서는 원유도입을 위한 상업차관 실무회담을 가졌고 제 3차회담에서 국가간, 한국석유회사와 주재국 석유회사간의 양해각서체결을 비공식 합의, 결정하였다.

2차 협상 중 주재국이 제공 가능한 원유의 종류가 한국측이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아 다소 진전이 늦었지만 제 3차 회담에서 분명한 합의점을 찾고 강화된 경제협력을 기대한다.

II. 경제

1.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및 전망

04년부터 상승한 고유가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으며 2006년도 GDP 성장률도 10.3%를 나타내었고 2007년도에는 고성장 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되고 있다.

특히 제조(10.0%), 건설(29.5%), 통신(23.5%), 상업서비스(18.6%), 용수 및 전력(29.5%) 등의 분야가 GDP 성장률에 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 서비스(43.4%)도 2004년부터 연간 4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분야가 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기획부에서는 2007년 GDP 성장률을 5.0%라는 보수적인 수치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연구소에서는 5.0% 성장은 최소 성장률로 파악,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5.5~7.0%를 전망하고 있다. 2007년 2/4분기의 GDP 성장률은 8.8%를 기록하였다. 2007년 상반기 GDP 성장률 8.8%는 건설(12.3%), 상업서비스(11.0), 금융(14.3), 공공 서비스(16.5) 등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각 되면서 석유부문인 Oil & Gas(-3.8%), Refining(-8.0%) 등의 마이너스 성정을 상쇄하고도 높은 성장세에 기인한다.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Chavez 정부의 일부 반 시장적인 정책으로 민간 부분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고유가로 수입이 늘어난 정부의 공공 시장이 팽창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도 정부의 오일 수입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일 산업에서 파급된 제2차 산업이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거시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성장률	%	-8.9	-7.7	17.9	9.3	10.3
GDP	U\$십억	95.4	85.5	111.2	145.2	167.1
인구	백만 명	25.1	25.5	26.0	26.5	27.1
인플레	%	22.4	31.1	21.8	15	14.0
경상수지	U\$십억	7.6	11.5	15.0	14.5	15.3
대외수입	U\$백만	11,673	8,337	15,160	33,186	30,600
공정환율	Bs/U\$	1,399.5	1,600	1,920	2,150	2,150
실세환율(연말)	Bs/U\$		2,423.0	2,770.9	2,700	2,650
외환보유고(“)	U\$백만	14,860	21,366	24,208	38,523	37,789

자료: 중앙은행 통계/Veneconomy/EIU

GDP 성장률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성장률(%)	-8.9	-7.7	17.9	9.3	10.3	8.3

주: 베네수엘라 기획부에서는 2008년 GDP를 5.0%로 전망하였음

자료: 재경부, 기획부

나. 서민, 빈민을 위한 분배주의 정책과 사회주의 노선 강화 예상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2002년 (-)8.9%, 2003년 (-)7.7%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차베스 대통령의 국민투표 승리로 정치가 안정되고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여 2004년에는 17.9%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 2005년 7.1%, 2006년 10.3%의 성장을 이루며 앞으로도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상 유례없이 높은 국제 유가 및 이에 따른 원유 판매수입 급증, Mission이라는 명칭의 각종 대 빈민 사회복지 정책 수행과 정부·공공 부분의 시장확대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역시 5.0%의 GDP 성장이 전망되는 제 2기 집권의 차베스 정부는 앞으로도 21세기 신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높은 원유가격, 정치 안정에 따른 경제 회복세, 그리고 두 번의 투표 승리를 통한 “볼리바르 혁명”(남미 해방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 장군의 뜻을 받들어 부자로부터 빈자를 해방시킨다는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 등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포퓰리스트(populist)적 사회복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빈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2006년 12월 3일 대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차베스 대통령은 분배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차베스 정부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대된 팽창예산으로, 이 중 40% 정도가 Misión Sucre(빈민층에 대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 빈민들에 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배분되어 있고 The Mercal System에 의거 식료품·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30% 내외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재집권 시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는 대부분의 경우 재정 적자 증대로 이어지지만, 오히려 고유가 덕분에 베네수엘라의 정부 재정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유가 하락 시에는 공공 부문의 과다한 인력 고용, 낮은 세수율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IEM(거시경제안정기금/석유수입 초과분을 비축, 향후 국제유가 하락 시 정부 재정에 충당하는 기금) 자금의 빈민복지 프로그램 전용은 국제유가 하락 시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 급격한 경제 회복세

한편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 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증대와 고유가에 의한 부유층의 수익증가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V자형의 급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134,357대였으나 2005년에 228,378대, 2006년 343,351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2007년에는 400,000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핸드폰, 가전 등의 내구재 및 고급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가격 및 외환 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투자가 활기를 되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라. 원유 수익이 관건

베네수엘라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2004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U\$260억의 석유 판매 실적(해외 자회사 판매분 미포함)을 거두었다.

이러한 막대한 석유판매 수익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각종 사회 복지 정책 수행을 위한 팽창 재정 정책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반면 경제의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국제유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베네수엘라가 맞게 될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06년 3월 31일 차베스 대통령의 원유 포함 모든 자원의 직접적인 정부주도의 국유화 선언으로 원유가격의 영향력 행사권을 확보한 가운데 고 유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마. 외환통제는 지속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2년 12월 총파업 이후 2003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정환율제 도입 및 동 환율에 의한 외환배정 실시가 주요 내용 이다.

이러한 외환통제가 외환보유고 증대에 큰 도움이 됨에 따라 외환통제를 담당하는 Cadivi (외환운영위원회)는 통제 초기의 엄격한 관리에서 벗어나 외환배정기간을 단축하고 공급량도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외환통제를 완화시켰다. Cadivi의 2004. 2/4분기 1일 외환 공급량은 평균 U\$5천만 수준이었으나 9월에는 U\$7천4백만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외환 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제 철폐 시 급속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외환통제 초기에는 고정환율이 달러당 1,600Bs이었으나 '04년도 초에 1,920Bs로 20% 인상되었고, '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2,150Bs로 유지되고 있다.

2005년 예산안의 환율 인상폭(12.0%)은 지난 '04년 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정환율제 도입으로 평행시장(parallel market) 환율(민간부문에서 적용되는 실세 환율)도 나타나게 되었다. 실세환율은 '07. 12월말 현재 4,900Bs 수준으로 환율의 차가 2배를 뛰어넘어 모든 수입은 실제로 정부가 제한하는 형태이며 수입자는 자유로이 시장환율로 달러를 구입할 수 없어 모든 수입을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로 되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1년당 해외 5000달러까지만 허용하며 인터넷사용한도 3000 달러, 한달 사용 가능 현금을 500달러로 규정 등으로 외환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바. 대외수입 급증 예상

베네수엘라의 대외수입은 지난 2001년도 이후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 및 외환 통제 등으로 2년 연속 약 30% 수준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에 따른 경제의 빠른 회복, 국제 고유가에 따른 외환통제의 한시 완화 등으로 향후 대외수입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2004년도 대외수입은 전년 대비 50% 이상, 05년에는 2~30%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도 전체 대외수입액 또한 U\$ 306억을 기록했다.

외환이 통제되고 있으나 주재국 시민들의 소비성향과 정부의 현금공세로 인해 시장은 현금이 풍족하며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Cadivi를 통해 수입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달러는 수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사. 종합

결론적으로 향후 베네수엘라 정치는 불안정 요인은 남아 있으나 지난 3년간과 같은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재차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 고 유가에 따른 석유수입 확대도 당분간은 지속되고 빈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 수행이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2008년대에도 경제의 5% 이상대의 발전을 기대한다.

경제성장의 비관적 요인으로 통신, 전력의 국유화, 언론통제 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한 가운데 조립 자동차 산업도 정부가 국유화한다는 루머가 있어 민간 경제분야는 신규 투자가 거의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준유가와 실제유가의 초과 이익금 발생은 정부에 의한 성장 동력으로 지속되고 있고 자국산 제조업이 약화됨에 따라 수입물량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베네수엘라 경제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국내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요망된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동향

베네수엘라의 산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석유관련 산업으로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는 베네수엘라 GDP의 1/3, 정부재정의 75%,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를 제외한 기타 산업부문이 27.1%, 서비스 부문이 69.8%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정부는 산업 다변화 정책을 세우고 석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에 착수, 소비재와 금속 가공 산업을 시작으로 알루미늄, 철강, 석유화학 부문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 Made in Venezuela를 생산코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89년 이후 경제구조 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90~'91년 중 제조업은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는데, 주로 내수 중심의 소비재,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조립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제조업이 석유 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 되었으나, 주로 외국기술 도입이나 다국적 기업이 많은 관계로 자체적인 기술력은 뒤떨어져 있는 편이다.

2001년 말,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 환율 유지정책이 폐지되고 2월 13일부터 환율이 자율화 되자 국내기업 경쟁력은 대폭 약화되면서 '02년 1/4분기 GDP 성장률이(-)4.2%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를 겪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수입품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 되자 섬유·의류·신발 등 상시 근로인력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수입 규제를 실시했다.

2002년 정부의 경제 정치 정책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 및 산업 현장 곳곳에서의 데모가 이어지며 달러 환율이 300% 증가하자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실시 중이다. 2005년 차베스 정권은 고유가 시세를 이용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석유 이외의 여타 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 산업 구조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은 원유를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든 자원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제 사기업의 합작 투자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 제1의 원유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정부 중심의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내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활동이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연간 부문별 GDP 및 증가율

(단위: 1997불변가격, 백만 Bs.)

항목	2003		2004		2005		2006	
석유 부문								
석유및가스	4,636,217	-8.2%	5,419,104	16.9%	5,630,449	3.9%	5,461,887	1.5%
정유	1,836,012	18.8%	1,806,368	-1.6%	1,795,530	-0.6%	1,747,227	-1.3%
생산부문								
농업	2,099,705	-2.1%	2,220,041	2.0%	2,182,300	-1.7%	2,223,764	1.9%
광업	270,056	-8.5%	301,868	14.0%	293,416	-2.8%	324,297	3.1%
제조업	5,774,826	-5.9%	7,239,626	27.5%	8,057,704	11.3%	8,271,309	5.3%
전력, 상수	941,050	-0.5%	1,005,946	8.0%	1,128,711	2.2%	1,086,744	2.4%
건설업	1,654,133	-39.5%	2,184,760	31.0%	2,711,287	24.1%	3,196,741	18%
서비스부문								
상업	2,826,260	-9.4%	3,545,829	26.5%	4,237,266	19.5%	4,205,619	4.5%
호텔, 식당	374,929	-9.5%	429,294	14.5%	460,203	7.2%	490,841	4.8%
통신	1,162,102	-5.0%	1,280,844	11.0%	1,537,013	20.0%	1,715,716	12.0%
금융, 보험	776,250	4.3%	982,623	26.2%	1,221,400	24.3%	1,108,792	4.0%
부동산, 기업서비스	3,877,107	-6.2%	4,251,783	12.7%	4,557,911	7.2%	4,597,640	2.4%
공공, 비영리	1,906,045	-0.3%	2,216,730	16.3%	2,445,054	10.3%	2,483,148	2.3%
정부서비스	4,692,582	4.9%	5,337,899	12.9%	5,626,146	5.4%	5,934,676	2.0%
이자	-860,195	7.1%	-1,066,739	27.8%	-1,125,410	5.5%	-1,170,426	4.0%
국내총생산	35,667,526	-7.7%	42,035,812	17.9%	46,521,635	10.7%	47,836,853	5.2%

자료원: BANCO CENTRAL DE ENEZUELA, VENECONOMIA

나. 광업

베네수엘라의 광업은 아직 미개발 분야가 많은 상태인데 주요 광물로는 철, 석탄, 보크 사이트, 금 등을 들 수 있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 전반에 대한 국가주권(soberanía nacional)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원 국유화 (auténtica nacionalización)를 추진 중에 있다.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99년 신헌법을 통해 주재국석유공사(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01년 석유법 개정 및 '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 이어 20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 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을 천명하였다.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로얄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 투자 시 PDVSA의 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 수입의 75%, 수출의 80%를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국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내생적 성장(desarrollo endógeno) 및 서민층 사회개발 프로그램 실행 등을 위해 활용하는 정책을 실행중이다.

경제사회개발기금(Fondespa: el Fondo para 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을 조성하는 핵심 기관으로 석유공사를 선정하여 교육, 보건, 의료, 생필품 염가 지원 등 서민층 사회개발프로그램(misión social)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의 내생적 성장 실현을 위해 개발 중심(NDE: Núcleos de Desarrollo Endógeno) 및 도로, 철도, 지하철, 전력, 농업 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을 추진중이다.

알루미늄, 철, 목재 등 여타 천연자원도 2013년까지 단순 원료 및 원자재 수출을 중단하고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창조한후 상품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A에 대항해 차베스 대통령이 주장한 역내 통합기구인 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속에서 석유, 가스 등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중남미 통합을 추진(Petroamerica 실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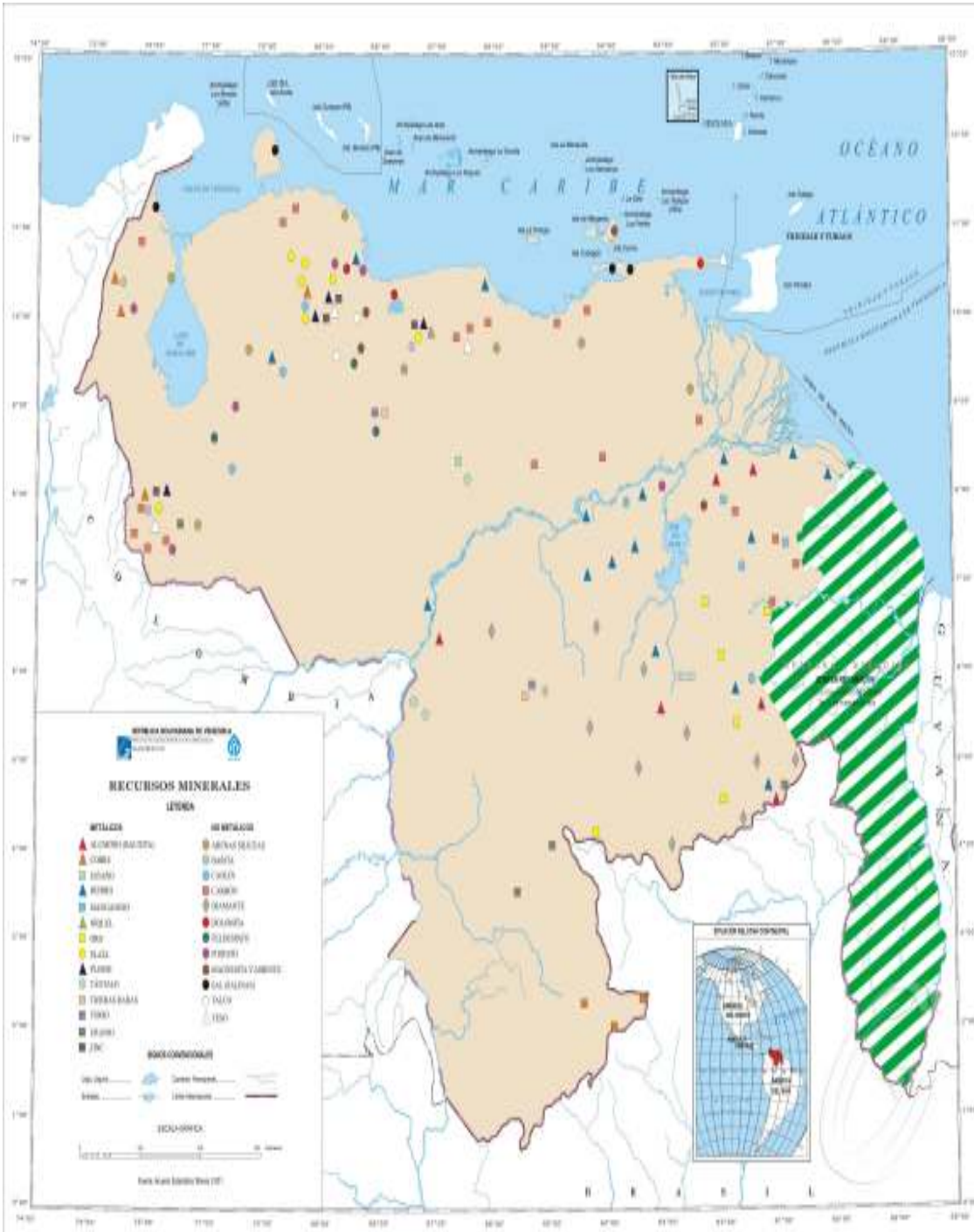
자국 석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같은 좌익 이념을 추구하는 쿠바, 이란, 중국, 인도 등 제3세계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강화책으로 적극 활용(oil diplomacy)코자 한다.

주요 광물자원 현황

광물명	소재지	매장량	비 고
석유	Zulia주, Anzoategui주, Monagas주	781억 배럴	
천연가스	Zulia주, Anzoategui주	140조 입방피트	석유 244억 배럴에 해당
Bitumen	Orinoco강 유역	2,700억 배럴	중질유, 초중질유, 역청이 혼합된 가연물질
철광석	Bolivar주	28억 M/T	80% 이상 high grade ore 임(Guayana지역)
석탄	Tachira주, Zulia주	90억 M/T	
보크사이트	Bolivar주	40억 M/T	
니켈	Aragua주	55백만 M/T	
Phosphate	Falcon주, Tachira주, Merida주	170백만 M/T	
Gypsum	Sucre주, Tachira주, Yaracuy주, Guarico주	84백만 M/T	

자료원: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광물자원 매장지역



Metálicos(금속):

■ Tierras raras 희귀토양 ● Fosfato 인산염 ▲ Aluminio (Bauxita) 알루미늄(보크사이트) ■ Torio 토륨 ● Magnesita y asbesto 해포석, 석면 ▲ Cobre 구리 ■ Uranio 우라늄 ● Sal (Salinas) 소금 ■ Estaño 주석 ■ Zinc 아연 ○ Talco 활석 ▲ Hierro 철

No Metálicos(비금속):

▲ Yeso 석회 ■ Manganese 망간 ● Arenas Silíceas 규토 ▲ Níquel 니켈 ● Barita 중정석 ■
 Oro 금 ● Caolín 백도토 ● Plata 은 ■ Diamante 다이아몬드 ▲ Plomo 납
 ● Dolomita 백운석 ● Tántalo 탄탈 ● Feldespato 장석

1) 철광석

CVG Ferrominera Orinoco CA에 의해 생산되며, 주 수출대상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이다. 2005년 수출량은 4,747,950MT로서 전년도 대비 12.1%(655,000MT)의 감소를 보였다.

철광석(Iron Ore) 생산, 수출 현황

(단위: 천 M/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	19,990	10,568	19,644	21,561	16,046	18,845
수출	6,857	3,608	7,397	9,309	5,833	5,880
국내소비	8,993	5,229	9,974	11,407	10,214	11,485

자료원: CVG-Ferrominera del Orinoco, Veneconomy 종합

Ferrominera사는 년산 330만 톤의 펠렛 생산공장을 건설, 94년 9월에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Kobe Steel사는 년산 330만 톤의 2호 펠렛 생산공장을 건설, 97년부터 조업 중에 있다. 또한 민영화된 철강 제조업체인 Siderurgica del Orinoco(Sidor)사도 자사의 펠렛 생산 용량을 현재의 연간 66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2) 석탄

총 매장량은 5.3억 톤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다. 대부분 석탄이 Zulia주 소재 Guasare 탄전 내 Paso Diablo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광산은 국영 석유회사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사의 자회사인 Carbozulias사와 Agip Coal사와의 합작회사인 Carbones del Guasare S.A.가 운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석탄 매장지는 Zulia 주의 Guasare 지역으로 약 30억 톤(mt)의 매장량을 추정한다.

3) 알루미늄

국영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CVG)사는 알루미늄 산업분야의 재편, 자산의 매매 및 신규 민간투자 유도 등을 전담하는 회사로서 1994년 알루미늄 산업 재편계획에 따라 연 생산능력 6백만 톤의 보크사이트 생산업체인 Bauxiven사와 Interlumina사를 합병, Bauxilum사를 설립하였으며 연간 2백만 톤 규모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깔데라 정권 때 정부는 알루미늄 회사를 민영화한다는 방침 하에 매각을 추진, 한국의 대우 등 많은 외국 회사들이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99년 말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매각보다는 외국 회사의 지분 참여를 통한 투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2000년 12월 프랑스의 Pechiny사가 자본 참여사로 결정되어 Bauxilum사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Pechiny사는 총 2억 6천만\$을 투자할 계획이며 알루미늄 생산량을 40만 톤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권은 계속 CVG가 갖게 된다.

알루미늄 생산-수출 현황

(단위 : 천 M/T)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량	605,293	601,295	623,531	615,036	608,840
수출량	459,952	458,266	413,615	417,408	429,912
국내소비량	142,846	148,661	207,810	179,656	176,428

자료원: Alcasa, Venalum

4) 금

중요한 금 매장지는 Bolivar 주의 네 지역(Tumeremo, El Callao, El Dorado, El Manteco)을 들 수 있다. 2004년도 금 생산량은 10.43톤에 달했으나, 금과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65% 이상이 불법 채굴 및 밀수에 의하여 거래되므로 정확한 생산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Monarch Resource사는 Camorra 광산을 1994년 여름에 개광하였는데, 동사는 Canaima 조차지를 시추한 결과, 동 지역에 확인매장량 163,000온스, 추정매장량 69,000온스의 금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lacer Dome사와 CVG사는 미화 1천만불을 투입, Kilometro 88 Mining District에 소재한 6,000헥타르에 달하는 Las Cristinas 탐사 및 시추결과, 품위 0.7-1.32g/톤인 금 약 150톤이 매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농업

농업은 전체 GDP의 약 6%, 전체노동인구의 약 13%, 국토면적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후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보조금 지급 축소 등으로 침체 양상을 보여 왔다. 농축산물이 전체 농업생산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과일, 야채는 대체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면 밀, 콩, 식용유, 설탕, 우유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 농업의 실태

식량자급 및 식품가격에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생계비 및 실질임금 등 국가 경제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농업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되는 부문이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인구는 약 240만 명 수준으로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석유 개발 이전에 오랜 동안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국가로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토지 자원이 풍부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을 효율화하고 다양화할 경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토 면적 910만 헥타르 중에서 절반 이상은 농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220만 헥타르만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된 토지면적 중에서도 약 32만 헥타르만이 경작될 뿐 나머지는 주로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지만 기후나 토질면에서 고도, 기후 및 강우량이 다양하고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겠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은 토지 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조방적인 영농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는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토지 소유자는 약 400,000명에 불과하며, 각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약 80헥타르로 인접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대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 1%의 농 장이 거의 50%의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농(20헥타르 미만을 소유하는 농민)은 농장 총수의 약 74%에 해당하지만 그들이 소유하여 경작되는 농지면적은 전체의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농지개혁 정책 하에 토지를 분배 받았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판매하거나, 은행대출을 위해 토지를 저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토지 개량 또는 수리 시설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75년 총 노동력의 21%에서 현재 약 14%로 감소)이 크게 줄어들고 또한 자본 및 기타 농업생산 자재도 점차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은 농민의 생활 향상, 농산물의 자급 자족이라는 측면에서 농업 분야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농업에 대출을 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들어 농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라티퐁디움(대규모 지주제)은 이제 없다고 밝히면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강제 몰수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농지개혁에 대한 법령 제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01년 들어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강택민 주석은 벼농사 기술 등 농업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며, 농업용 트랙터 등 농기계 공장도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만\$의 금융을 지원, 중국산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2004년 실제로 각 농가와 농장에 농업용 트랙터를 배포하였다.

2005년 정부는 대대적인 농업 계획을 세우고 2006년 자가농법을 실시하며 베네수엘라 농업을 활성화자 정부중심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전체 소비되는 음식물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0% 자급자족을 목표로 파종 생산계획(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7)을 수립, 진행 중이다.

2) 농업 기관

베네수엘라 정부의 농업 주 기관은 2005년 12월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y Tierras)로 정식 변경되었다. 경제기획부(CORDIPLAN)도 농업정책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국립농업행정처(IAN): 토지개혁을 담당
- 농업저장회사(ADAGRO): 농산물의 저장을 담당
- 농업서비스 주식회사(CASA): 잉여농산물의 수매를 담당
- 농산물 유통 및 수출회사(COMEXAGRO): 국가를 대신하여 농산물 수입담당
- 국립커피기금(FONCAFE): 커피의 시장확대 및 유통을 담당
- 국립코코아기금(FONCACAO): 코코아의 시장확대 및 유통을 담당
- 과일개발기금(FONDEFRU): FONCAFE와 FONCACAO는 커피와 코코아의 수출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에 농업금융을 제공

3) 농산물 정책

□ 파종. 생산계획(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5~2012)

총 6조3천3백억 볼리바르의 예산을 들여 2.32백만 헥타의 농경지를 확보 전국적인 채소망, 어업망, 산림망, 축산업망에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이로써 약 1.14백만의 직접 일자리와 3.42백만의 간접일 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했다.

생산품목	헥타르	재정지원
채소	2,070,931.00	4,222,511.28
산림	22,733.00	134,140.27
어류	230,678.00	236,901.70
축산	-	1,690,021.14
계	2,324,342.00	6,283,574.39

자료원: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2006년.

4) 임업

베네수엘라는 열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강(Orinoco)이 있어 산림 자원이 풍부하다. 베네수엘라 전체 면적 중 54.2% 해당되는 5천만 헥타를 산림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 지역의 67%가 Guayana 지역에 위치해 있다. 아직 세계 목재시장에 수출한 적이 없고 개발 초기 단계이다. 산림 지역은 환경자원부 관할 하의 자치 기구인 산림청(la jurisdiccion del Servicio Forestal-SEFORVEN)이 관할한다.

산림보유량

산림명	Imatace	El Caura	La Paragua	Guarapiche	Sipapo
면적(헥타)	3,640,899	5,134,000	782,000	370,000	1,215,500
산림명	Ticoporo	Caparo	San Camilo	Rio Tucuyo	Turen
면적(헥타)	187,156	181,143	97,100	47,640	116,400

자료원: 환경부 2006년

라. 석유화학산업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778억 배럴(2006. 11월 Oil and Gas Journal)로 미주대륙 전체 매장량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오리노코 벨트의 초중질유 합산시 3,000억 배럴 이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원유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매장량의 69%가 중질유(Heavy Oil) 또는 초중질유(Extra Heavy Oil)라 다소 경제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지만 고유가로 인하여 최근 투자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년 정부발표를 기준으로 일일 3.45백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국내 소비는 35~40만 배럴 정도이며 나머지 3.00백만 배럴은 수출하고 있어 원유가 정부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 경제학자는 정부발표보다는 적은 2.75백만 배럴을 생산하고 이중 2.3백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중 특징적인 것이 오리물전인데 오리물전은 천연 역청, 물, 활성제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석탄과 석유의 중간형태의 물질이다. 이것은 석탄·석유보다는 열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높아 발전용 대체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에 판매하고 있다.

1) 석유산업의 역사

- 1875년 상업용으로 최초 이용
 - 20세기 초까지 다음의 석유정책 견지되었으며 동 원칙에 근거하여 많은 채굴권이 인가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였음.
 - 지하광물자원은 토지의 지주 소유가 아니고 국가의 소유임.
 - 석유채굴권을 부여하는 권리는 국가만이 보유
- 1920-50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위의 산유국이 됨.
- 1920-68 세계 제1위의 석유수출국이 됨.
- 1943년 석유법 제정
- 1949년 외국 석유회사의 조업이익의 5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1958년 신규의 석유이권은 국영석유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한다고 공표.
- 1960년 4월 100% 정부출자의 국영석유회사 CVP 설립, OPEC 창설 주도.

- 1961년 CVP 업무개시, 외국석유회사가 석유의 탐사, 개발을 희망할 경우 용역 계약에 의하여 CVP를 상대로 교섭
- 1967년 8월 신 석유법(1943년 석유법의 제3조를 개정한 용역계약체결의 기준, 원칙) 제정
- 1968년 4월 마라카이보 남부지역에서의 탐사, 개발과 관련, 용역작업 계약의 구체적 조항 발표
- 1974년 3월 Perez 대통령의 등장에 의해서 석유산업의 조기국영화 방침 발표.
- 1975년 8월 석유산업 국유화 방안 공포, 신 국영 석유회사 PDVSA 설립.
- 1976.1.1일 석유회사 21개사 (20년간 주재국 내 활동하던 18개 외국석유회사, 서비스 용역 계약회사인 Occidental, Venezuela 2개사) 국유화. 법률적으로 석유산업의 전 부문에 있어서 외자계, 민족계를 불문하고 민간석유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됨.
- 1992년 제 1차 Reactivation Program에 기초한 조업계약 성립
- 1995년 Profit Sharing Agreement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 허용 (국영화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참여 허용)
- 1999년 헌법개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 및 PDVSA 내부 구조 조정 실시
- 2001년 석유법 개정으로 석유산업 국유화를 강화 (외국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종전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향후 공동합작 투자시 PDVSA 참여지분을 51%로 의무화)
- 2006년 차베스 대통령, 원유에 대한 국유화 선언, 모든 운영권을 정부가 가짐, 외국 석유회사는 지분을 사야 되며 PDVSA의 참여 지분 60% 이상 의무화, 34%의 로열티 지급 의무화

2) 석유관련회사

□ PDVSA

석유산업 국유화 방안 공포와 함께 설립된 국영석유회사로서 베네수엘라 유일의 석유회사이며 모든 석유관련회사는 PDVSA의 자회사로 되어 있다. 동력자원부의 감독을 받으며 산하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조정, 계획, 감독, 통제를 행한다.

3) 산업개황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산유국이다. 석유수출 이전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고, 정부재정 수입의 50%-60%를 석유 판매로 얻어지는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석유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OPEC Crude 생산량

(단위: 1,000 b/d)

국가명	7월	8월	9월	10월	2007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	9,487	9,503	9,513	9,451	9,242
이란	3,975	3,941	3,902	3,932	3,912
베네수엘라	2,627	2,614	2,604	2,600	2,634
아랍 에미레이트	2,445	2,473	2,502	2,502	2,497
나이지리아	2,472	2,409	2,426	2,463	2,509
쿠웨이트	2,509	2,527	2,555	2,575	2,103
리비아	1,649	1,655	1,659	1,661	1,604
인도네시아	937	936	925	932	998
알제리아	1,362	1,367	1,370	1,372	1,309
카타르	797	796	797	801	802
OPEC 합계	28,261	28,219	28,253	28,287	27,610

자료원: 국제에너지기구

2007년 6월 OPEC이 정한 석유값

(단위: \$US per Barrel)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Venezuelan 가격	20.21	21.95	25.76	32.61	51.28	50.18
7 Crude	23.12	24.36	28.10	36.04	55.07	45.24
WTI 40	26.00	26.06	31.12	41.42	44.03	45.11
Brent 38	24.46	24.93	28.84	38.24	60.04	56.29

베네수엘라는 비교적 오랜 석유개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878년에 석유개발을 시작했으며, 1914년부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석유를 생산하였다. 20세기 초한 동안 세계 2위 산유국 및 제 1위 수출국으로 OPEC창설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석유산업은 대부분 외국 기업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76년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89년에 베네수엘라 투자기금(FIV: Fondo Inversiones de Venezuela)을 설립하면서 서서히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90년대 들어 석유산업 개방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확인 매장량은 '99년 기준 약 726억 배럴(전세계 6위, 비중은 6.9%)에 이르고 있으며, 오리노코강 유역(Orinoco Belt)의 초중질유 및 비투멘(Bitumen) 매장량은 약 1조 2천억 배럴에 달하고 있다. 이중 현재의 기술로 채굴이 가능한 초중질유는 약 2,670억 배럴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에 필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지금까지 유전 개발은 주로 서부 마라카이보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개발 상태인 동부의 오리노코 강 유역 북부 대평원지대의 초중질유 개발과 해상가스전 개발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는 주로 광구 분양, 합작계약 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석유산업 개방 정책으로 외국기업이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1억 달러에 달하는 Hamaca중질유 경질화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이미 외국기업과 계약되었거나 국회승인을 받은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오리노코 초중질유 생산사업은 개발뿐 아니라 정제 등 Downstream부문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의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10년 간 신규 유전개발, 기존 유전개량, 가스전 개발, 정유, 수송 등 각 분야의 투자에 총 5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70%는 PDVSA 자체 프로젝트, 나머지 30%는 외국인 참여 프로젝트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차베스 대통령 당선 이후 석유생산 비중을 줄이는 등 원유채굴 중심의 석유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부문의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PDVSA를 신시장 개척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제 Major들과 경쟁하는 시장지향형 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PDVSA의 중점사업 방향으로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개발, 신시장 개척, 경질유(light and medium gravity crude oil) 생산확대, 중남미 통합 시 수요증대에 부응키 위한 정유설비 증대, 그리고 국내·외 민간 부문, 특히 국내 민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탄화수소법, 가스법 및 국내 시장법 등 석유관련법을 '99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해양가스개발 입찰, non-associated gas blocks on land개발입찰이 추진될 예정이며 오리노코 벨트지역의 초중질유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최근 석유부문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PDVSA는 최근 브라질을 향후 유망시장으로 지목하여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 해 왔으며 석유 및 가스부문의 공동 개발과 항공연료의 판매, 동북부 지역의 고속 송 전망 및 변전소 참여방안에 대해 브라질 측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PDVSA와 브라질 석유공사(PETROBRAS)는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계약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탐사 및 생산 활동과 브라질 동북부지역의 고압 송전선 및 변전소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etrobras 기술자들이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의 탐사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다녀갔으며 이 부문의 사업참여에 관해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DVSA, 쿠바 국영석유공사(CUPET) 및 Burmah Castrol PLC(영국)는 지난 '91년 소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이 끊긴 이래 건설이 중단된 연산 2,10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완공과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 2001년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Cienfuegos지역에 소재한 이 정유공장은 가솔린, 디젤연료, 제트연료, 윤활유 등을 생산하여 현지 및 카리브해 국가에게 공급 중이다. 국영석유공사(PDVSA)의 자회사인 Bitor(Bitumenes del Orinoco)와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는 발전용 연료인 Orimulsion 생산 신규 플랜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PDVSA는 Bitor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총 3억 달러를 투자하여 20%지분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China National Petroleum는 70%의 지분을 목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 신규 플랜트가 완공되면 베네수엘라의 Orimulsion 생산량은 현 6.3백만 톤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연4백만 톤과 기타 이탈리아, 아일랜드국가 등지로의 2백만 톤 수출 등을 포함하여 총1,260만 톤으로 증가된다. Bitor는 '99년 4.8백만 톤의 Orimulsion 판매를 포함하여 1,2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생산량부족으로 1.5백만 톤의 주문에 응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2000년에는 3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rimulsion은 이탈리아(3백만 톤/연)로 수출되고 있으며, 덴마크(1.2백만 톤), 케나다(8십만 톤), 중국(50만 톤)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에서 발전용 연료를 오리물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베네수엘라 국내정치문제로 지연되었다. 2005년 11월 말 중남미 협회에 참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공사가 참여(14%지분)하고 있는 Onado 광구의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2003년 남부발전과 체결한 오리물전(베네수엘라에서 개발, 독점 생산하는 발전용 新연료로 베네 수엘라의 오리노코 강 유역 지하 600~1500m에서 생산되는 Bitumen을 주 연료로 물(30%)을 섞어 만든 연료) 도입 계약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4) 석유 산업 투자계획

정부는 2010년경 세계 원유수요를 1일 5,000~9,200만 배럴로 전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0년 원유생산량을 1일 580만 배럴로 증산하기로 하였다. 석유수출(원유 및 정유제품)은 현재 1일 3.1백만 배럴 수준이나 2010년에는 1일 약 480~52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2009년 간 총 589억불(탐사 및 생산 407억불, 정유 21억불, 천연 가스 개발 54억불, 화학, 석유화학분야 89억불, 기타 18억불)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가스관련 신규개발분야에 약 110억불을 투입 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투자에 따른 방대한 자원조달을 위해 정부는 '75년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분배계약 방식(Profit Sharing Agreement)에 의한 탐사광구 입찰을 허용함으로써 석유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신규 유전개발을 위한 이익분배계약 방식, 한계유전 개발을 위한 운영계약(Operating Contract) 방식, 오리노코강 유역의 초중질유의 경질화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ssociations)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비 전통 석유의 일종인 천연 비투멘(Orimulsion 이라는 상표로 알려짐)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석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외국기업의 석유부문에 대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분배계약(Profit Sharing Agreement) 방식: '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기업이 탐사에서부터 생산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취급할 수 있다. 개발된 광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외국기업은 PDVSA와 이익을 분배토록 되어 있다. '96. 1월 실시된 국제입찰에 44개 외국 기업으로 구성된 2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10개 광구 중 8개 광구가 외국기업에 분양 되었다. 향후 2차 국제입찰을 통해 주로 해상광구가 분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석유 부문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개 광구(LA Ceiba, San Carlos, Golfo de Paria Este, Golfo de Paria Oeste)에서 개발이 성공했고, 나머지 4개 광구는 원유 미 발견으로 계약이 종결된 상태이다.

운영계약방식(Operational Service Contract, Marginal Oilfield Development): 생산이 중단된 기존유전(Inactive Oil Fields)이나 매장량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계 유전 (Marginal Oil Field)을 국제입찰을 통해 외국기업에 양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른 사업에서는 외국기업이 생산한 원유를 전량 PDVSA에 판매해야 하며 수출할 권리는 없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33개 광구가 35개 외국기업에 분양 되었다. 특히 '97년 6월에 실시된 제 3차 국제입찰에서 우리나라의 유공, 유개공 및 대우가 캐나다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했다. PDVSA는 2006년까지 상기 33개 생산 광구의 1일 생산량이 110만 배럴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00~ '09년간 확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8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lliance): PDVSA는 오리노코강 벨트지역에서 점도(API) 9도인 중질유 및 초중질유를 API 20내지 25도로 개량하여 중유나 경유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 Conoco사가 '90년 coker technology를 이용해 초중질유를 경질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이후 현재 계약기간 35년의 6개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Coastal 프로젝트는 '99년 1월 취소되었으며, Exxon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Shell, BP, Repsol, YPF, JNOC 등 세계 유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리노코강 유역의 초중질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130억 달러를 투자, 10년 이내에 1일 700,000배럴의 원유를 증산할 계획이다. 특히 Hamaca 프로젝트의 경우 동 프로젝트의 합작회사인 Ameriven이 발주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하류부문 경질화 설비(Upgrader)국제입찰에 우리나라의 SK, 현대 중공업이 Bechtel, Otepi (현지회사), Foster Wheel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을 시도하여 낙찰이 유력시 되었으나 PQ통과 후 입찰준비 중에 컨소시엄 멤버인 Bechtel이 포기하여 아깝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이 프로젝트는 Downstream(11억달러)부문은 Fluor Daniel이, Upstream (10억 달러)은 Inelectra와 Parsons가 수주했으며 완공 시 1일 190,000배럴의 중질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maca지역에는 30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의 기술로 35년간 약 21억 배럴을 채굴할 수 있는 규모이다. Anzoategui주는 이 지역에서 채굴된 중질유를 경질유로 처리하여 Jose 산업단지의 정유공장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략적 제휴방식에 따른 초중질유 경질화 4개의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초중질유 경질화 프로젝트 추진현황

- PETROZUATA 프로젝트
 - 투자자(Strategic Association) : PDVSA(49.9%) : Conoco(50.1%)
 - 용량: 120,000BPSD
 - 사업 규모: 24억 달러
 - EPC 계약자: Contrina(Technip+B&R+Parsons+Proyecta의 컨소시엄)
 - 공사 내용: 파이프라인 건설(125마일)과 경질화 설비 프로젝트 (10억 달러 규모)
- CERRO NEGRO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1.7%), Mobil(41.7%), Veba(16.6%)
 - 용량: 120,000BPSD
 - 사업 규모: 25억 달러
 - EPC 계약자: JGC + Vepica + Jantesa
- SINCOR 프로젝트
 - 투자자(Strategic Association): PDVSA(38%), Totalfina(프랑스47%), Statoil(노르웨이 15%)
 - 용량: 200,000BPSD
 - 사업규모: 29억 달러
 - EPC 계약자: Contrina
- Hamaca 프로젝트
 - 투자자(Strategic Association): PDVSA(40%), Texaco(30%), Phillips(30%)
 - 용량: 197,000BPSD
 - 사업 규모: 21억 달러
 - Site : Hamaca

한편 PDVSA는 탐사, 생산 등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Outsourcing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석유산업의 현대화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PDVSA는 Outsourcing분야에 가스관 건설(2억 달러), Guiria지역 부두시설 건설(4.8억 달러), 오염물질처리공장건설(1.6억 달러), 전력 인프라 구축(1.9억 달러), Injection of gas PIGAP II(1.7억 달러), 가스압축(4,000만 달러), Hydrogen 공급공장건설(2천만 달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 석유산업 계획 2005-2012(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

정부는 2005년도부터 2030년에 이르는 야심찬 계획을 현재 (2005년 8월18일) 발표한 상태이다. 그 중 1차 계획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1차 계획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560억 달러로 정부투자 70%, 사기업투자 30%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리노코 석유 벨트가 주관하며 발전용 원료의 주 물질인 탄화수소지역으로, 4개의 큰 지역(Boyaca, Junin, Ayacucho-구 Hamaca, Carabobo)을 다시 27개 지역(각각500km2)으로 구분, 전면적인 개발을 실시한다.

□ 대보유량(Magna Reserva) 프로젝트

Proyecto de Cuantificacion y Certificacion de Reservas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된 전체 탄화수소량을 수량화, 증명화하는 작업. 철저한 경제적 분석에 들어간다. 오리노코 벨트지역(총 면적 55,314km²)에서 석유 개발 탐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11,593km²으로 추가 매장량을 확인한다. 초중질유를 상업성을 조사하여 세계 제1위의 원유 매장 국가로 인정받는데 그 목표가 있다.

□ 오리노코 프로젝트(Proyecto Orinoco)

오리노코 벨트지역의 석유를 낙후된 주재국 남부지역의 발전원으로 활용, 오리노코 벨트와 Apure 강 일부 유역을 지역 개발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PDVSA 주관으로 오리노코 북쪽 지역에 전면적인 도로, 철도를 계획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다.

오리노코 벨트 지역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자료원: 에너지 석유부(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

□ 델타-카리베 프로젝트(Proyecto Delta-Caribe): 가스, 석유화학, 전략사업 확대

델타-카리베 프로젝트는 여러 세부 프로젝트로 나뉘어진다. Gas Gran Mariscal de Ayacucho 공업 센터 건설, Paria 반도의 CIGMA(Sucre주), Plataforma Deltana의 가스 지역 발전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0억달러의 투자액이 소요되며, Costa Afuera 가스 개발 착수로 시작한다. 남부,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 가스 운송 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5) 정유산업 현황 및 추진계획

□ 현황

베네수엘라는 국내, 카리브, 미국, 유럽 등지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소유, 세계적인 정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유능력은 1일 1.3백만 배럴로 우리나라(2.4백만, 세계 6위)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합작 정유공장을 포함할 경우 전체 정유능력은 3.3백만 배럴로 늘어난다. (미국 Citgo, 카리브 지역, 유럽지역) PDVSA는 국내외에서 1일 2.8백만 배럴의 정유능력을 보유한 세계 4위의 회사로 국내 주요정유시설은 다음과 같다.

- Paraguana Refining Complex : 940,000BPSD
- Judibana(Amuay) : 571,000BPSD
- Punta Cardon : 286,000BPSD
- Puerto La Cruz : 200,000BPSD
- El Palito : 130,000BPSD
- Bajo Grando : 115,000BPSD
- San Roque : 5,000BPSD

PDVSA는 1989년 Down Stream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 이후 6개년간 총 28억 달러를 투자 하여 정유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추진중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기 추진사업

- Virgin Islands Refinery(美)

□ Puerto La Cruz(PLC) Refinery Modernization Project

- 발주처: PDVSA
- 공사 규모: 6~7억 달러
- 공사 자원: JBIC(5억 달러, 확정)/ 시공사 금융(US\$1~2억 달러, 미 확정)
- 공사내용
 - Splitter : 16,000BPSD
 - Reformer : 35,000BPSD
 - Diesel HDT : 38,000BPSD
 - Gas Treatment : 4.1MMSCFD
- 참가 형태: 미정
- 추진 현황: '98년 Original PQ가 실시되었으나 사업추진 중단
 - '98년 P/Q 통과 업체(JGC, Chiyoda, Foster Wheeler, Fluor Daniel, Technip, Kellogg Brown & Root, MHI)
- 2001년 EPC 계약자 선정
- 공사기간: 2001~2006년

□ Bahamas 정유공장

- 발주처: Bahamas Oil Refining Co. Int'l(BORCO)
- 위치: Grand Bahama Islands, Bahamas

- 용량: 500,000BPSD
- Storage Tanks(65개) – 20mil. Barrels for crude
- 95 feet deep sea port marine facility
- 추진현황
 - British Oil Refining Co.가 100%인수를 위한 프로포절을 PDVSA에 제출하고 협상 중
 - British Oil Refining Co.사 사업계획안
 - 1단계: 정유공장시설 인수(1억 4000만 달러)
 - 2단계: Terminal과 Transshipment시설 개보수 (US\$7억 달러)
 - 3단계: 정유공장 재 가동 가능성 조사

□ 정유추진사업

석유산업계획 2005-2012의 일부로 정유산업의 계획서로, 다음과 같은 세계 석유 요구량을 기본으로 전면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3개의 정유공장 신설(Cabruta 정유공장, Caripito 정유공장, Batalla de Santa Ines 정유공장), 2개 기존공장의 증설 및 리모델링(RPLC 2008, RELP). 3개의 정유공장 신설에 들어갈 총 투입액은 100억 달러며 이로서 일일 70만 배럴의 정유량(62%의 원유)이 증가한다(13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또한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자마йка 등 역내 국가들에 해외 정유시설 건설도 추진 예정이다.

- 총 투자액: 16,480MM\$
- 베네수엘라 투자액: 14,304MMS(87%)
- 페트로아메리카 투자액: 2,176MM\$ (13%)
- 원유 생산: 910MBD(62%)
- 에탄올 생산: 21MBD

세계 석유 요구량

(단위: 백만 배럴 / 일일)

	2005	2010	2015	2020
나프타	5.1	6.3	6.9	7.2
가솔린	22	24.3	26.5	29
캐로센	6.4	7.4	8.1	9
디젤	22.6	24.6	27	29.5
기타	10.3	10.5	11	11.4

자료원: Nexant

6) 석유 화학

□ 현황

PDVSA의 자회사로 석유화학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Pequiven은 석유부문 확장계획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포함 약 88억 달러를 투자, 현재 연간생산량 8.8백만 톤에서 2010년 약 2.5배 증가된 22백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Chavez대통령은 천연가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석유화학산업부문에 투자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현재 과잉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Olefins & Plastics, 비료공장 및 Aromatics/Oxygenates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민자유치의 일환으로 Pequiven은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암모니아 및 요소, 올레핀, 메탄올(methanol)분야에 수개의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Pequiven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석유화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Pequiven의 일부 민영화로 인해 정부의 Pequiven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나 조만간 의회통과로 Pequiven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어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 석유화학 생산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와 같은 Pequiven의 석유화학부문 확장계획에 따라 석유 및 석유화학 공업단지인 Jose 공업단지에 산업 인프라확장을 추진 중에 있어 공장건설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water supply, pier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electricity, 방출오염물질 처리시설, nitrogen and oxygen gas plants 및 maintenance shops 등)의 구매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석유화학 공단 현황

	위 치	생산 품목	생산 능력
El Tablazo	Zulia 주	올레핀, 플라스틱, 비료 등	연간 340만톤
Moron	Carabobo 주	질소비료 및 인산비료, 유산, 올레옴 등	연간 140만톤
Jose	Anzoategui 주	메타놀, MTBE 등	연간 200만톤

□ 투자계획

최근 PDVSA는 약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화학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또한 Pequiven는 향후 10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Jose 산업공단에서 에틸렌, 초산(acetic acid), 메탄올 생산확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제 5차 라틴 아메리카 메탄올 회의(Latin American Methanol Conferance)에서 Pequiven의 Gustavo Hernandez국장은 세계 메탄올 생산업자 및 소비자 협회 회원에게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8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Pequiven은 현재 연간 1.5백만 톤 규모의 메탄올 생산량을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Metor 메탄올 공장(2004년 운영 시작) 및 또 다른 2억8천만 달러 규모의 Supermetanol 메탄올 공장(2008년 운영 목표)건설을 통해 2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산 플랜트 프로젝트 일정이 마무리되는 데로 연간 1백만톤 규모인 2기의 에틸렌 공장이 각각 2004년에 생산개시, 2010년에 생산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Pequiven는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88억 달러 가운데 자체적으로 1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72억 달러는 합작이나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Methanol (Methanol Expansion) 프로젝트

- 투자자: Pequiven(37.5%) +Mitsubishi Corp.(23.75%) + Mitsubishi Gas(23.75%) + Polar(10%)+IFC
- 기존공장 (제 1 단계)
 - 2,200 MTPD 규모로 MHI와 Inelectra가 Lump Sum Turnkey Base로 EPC 수행,'94년 완공, 생산 중
- 제 2차 확장 계획
 - 현재 Methanol 가격의 하락(USD 100/MT)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증설용량 포함)중이다. 현재 PDVSA의 화학부문인 Pequiven은 석유 및 가스정유의 부산물인 방향제의 사업성을 조사 중이다. 방향제는 사업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금융조달능력과 경험을 갖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Pequiven 은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벤젠을 합성수지로 가공, 폴리스틸렌 포말을 생산하는 연간 200,000~300,000톤(약 4억 달러)의 합성수지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 Paraguana Aromatics Complex 프로젝트

- 발주처 : Pequiven, Chevron 합작
- 용 량 : Benzen, Paraxylene & Styrene 1,200,000 MTPA
- 위 치 : Paraguana Peninsula, Venezuela
- 공사규모 : 10억 달러
- 자금조달 : Project Financing
- 기술사
 - Benzene - Chevron's Aromex Process
 - Paraxylene & Styrene - Eluxyl hybrid technology co-developed by Chevron and IFP
- 진행상황 : 파이낸싱 물색 중

7) 가스부문

□ 현황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227조ft3(전세계 매장량의 4.3%)로 남미 1위, 전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량 중 91%는 원유 생산 시 수반되어 나오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이다. 천연가스 생산능력은 현재 1일 60억 5300만 ft3이며, 연 평균 생산량은 1일 52억 7400만 ft3이다. 천연액화가스(LNG)의 생산능력은 1일 22만 6000만 배럴이며 생산량은 17만 7000배럴이다.

오리노코강 유역에는 주로 화력발전소용으로 이용되는 비전통 석유의 일종인 천연비투멘(Natural Bitumen)42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 BP와 공동으로 비투멘을 이용해 액체석탄 유형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Orimulsio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연간 3백만 톤이 생산되는 Orimulsion은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연소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기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연가스 매장량 91%가 석유 생산 시 부산물인 Associated Gas(잔여 9%가 Free Gas)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잉여가스를 재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유 생산이 OPEC의 쿼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신규 non-associated gas의 탐사를 추진 중이다. PDVSA는 가스수요가 발전량 증가와 석유화학 및 LNG 수출로 인해 2000년 2.45조 ft3에서 2010년 5.13조ft3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PDVSA는 또한 국내가스 수요증가에 따라 가스공급 파이프 라인망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방안은 건설 및 운영사업을 민영화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의 절충안으로 대형건설업체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PDVSA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법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2개 대형 파이프라인이 있어 1개 라인은 베네수엘라 동부에서 중부 산업 지대를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Maracaibo 호수지역에서 정유산업지대까지 연결한다.

□ 개발 및 투자현황

베네수엘라는 점증하는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99년에는 신 가스 법안을 통과시켜 가스개발권 및 판매권을 민간에 개방,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Low Temperature를 이용한 Cryogenic Separation, Fractionation, Treatment, Gas Compression Facil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주된 ACCORE Gas Project III & IV와 같이 BOO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11개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사업에 향후 20년간 총 1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PDVSA가 발표한 11개 육상광구에는 중부 지역의 대규모 미 탐사지역인 7개 광구와 2조ft3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Yukal Placer 지역의 2개 광구 및 기타 2개 광구가 포함되어 있다. 11개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사업은 최근 제정된 신 가스법에 따라 최대 20%이상의 추가 로열티를 제시한 기업에 낙찰된다.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50억 달러 규모의 Venezuela LNG 터미널 공사(이전 Cristobal Colon Project 사업취소 후 추진중인 사업)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동부 Paria 반도 해양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연간 460만 톤의 LNG를 미국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분구성은 PDVSA 33%, RD/Shell 30%, Exxon 29%, Mitsubishi 8%로 되어 있다. 1989년에 30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개발소요자금이 56억 달러로 증가하여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의회는 외국 회사의 국내 참여를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국유화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93년 8월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1994년에 합작계약(Strategic Association)이 체결 되었다.

또한 PDVSA는 베네수엘라 사상 최초의 LNG 플랜트 건설공사(6억 달러 규모) 추진을 위해 Enron(미)과 계약 체결했고 동부 Jose 항에 건설되는 이 LNG 플랜트는 연 3백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어 2004년 운영을 시작했다. Enron은 이외에도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Mitsubishi와 공동으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4백만 톤 생산규모의 신규 LNG 플랜트를 추진 중에 있다.

PDVSA는 또한 동부지역의 Puerto La Cruz에서 Margarita섬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우선적으로 Margarita섬의 전력시설에 메탄올 가스를 공급하며, 이후 카리브해의 다른 지역 및 Cumana, Coche와 Margarita 지역에도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 부문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Venezuela LNG Terminal 프로젝트

- 성격 : LNG Production & Processing Plant
- 투자자 : PDVSA+Shell+Exxon+Mitsubishi
- Site : Cristobal Colon(북동부 해안의 Free Gas Field)
- 용량 : 4MTPA × 1 Train(미국, 카리브해 국가 및 브라질 수출용)
- 현황 : '96년 1차 F/S 이후 추진 보류된 사업으로 현재 상세설계

□ Natural Gas Pipelines Expansion (Methane) 프로젝트

- Anaco-Jose-Porto La Cruz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 발주처 : 국영 석유공사 가스사업(PDVSA GAS)
 - 사업주 : PDVSA Gas(Minority)+Developers
 - 위 치 : Anaco-Jose(Anzoategui주, 베네수엘라 북동부)
 - 재 원 : SPC설립에 의한 BOO 방식
 - 투자액 : 공사내역
- Anaco-Crucero de Barbacos-Jose Transmission Line
 - 연 장 : 140km(26" 111km/12" 29km)
 - 용 량 : 424 MMSCFD
- Anaco-Crucero de Barbacos-Puerto La Cruz Pipeline
 - 연 장 : 107km(20" 58km/16" 42km/12" 7km)
 - 용 량 : 152 MMSCFD
 - 가스수요처: Jose Petrochemical Complex, PLC Refinery 및 Local Distributors
 - 사업추진일정: 현재 PQ 평가 중
- Anaco-Porto Ordaz Transmisson System Expansion
 - 투자액 : 0.65~0.75억 달러
 - 생산능력 : 665MMSCFD
 - 개시년도 : 2000년
- Anaco-Barquisimeto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 투자액 : 4.1억~5.3억 달러
 - 생산능력 : 700MMSCFD
 - 개시년도 : 2000~2007년
- Moron-Rio Seco Pipeline
 - 투자액 : 2.5억 달러
 - 생산능력 : 350MMSCFD
 - 개시년도 : 2011년
- City Distribution Network(Methane)
 - 투자액 : 3.3억달러
 - 생산능력 : 60MMSCFD
 - 개시년도 : 2002~2007년
- Western Cryogenic Complex(Natural Gas Liquids)
 - 투자액: 1.5~2억달러
 - 생산능력: 500MMSCFD
 - 개시년도: 2002년

2005년 석유산업계획 2005-2012의 일부로 가스산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카리브 해안 지역 개발(Golfo de Venezuela, Fachada Caribe, Fachada Atlantica, Plataforma Deltana) 로써 총 투자액은 167억 8천만 불(전액 PDVSA 투자)로 이로써, 2012년까지 가스 생산 능력은 현재 6300MMPCD에서 11500MMPC로 증가된다.

마. 에너지산업

1) 현황

총 발전설비용량은 21,214MW('04년 기준)으로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65.4%인 13,864MW로서 대부분이 동부의 Caroni강가에 소재한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은 34.6%인 7,350MW이다. 현재 가동 중인 수력 발전소는 9기로 발전용량은 총 11,120MW이며 민영화사인 ELECARG, 국영 회사인 CADAPE, EDELCA 등이 생산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21기, 총 7,083MW로 국영인 CADAPE, ENELVEN, ENELBAR와 민영인 ELECARG가 주로 공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력회사는 총 13개사로서 이중 민영이 8개사, 국영이 5개사이다. 국영 CADAPE가 총 전력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영 회사 중 ENELVEN, ENELCO, ENELBAR는 현재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전력 소비는 주거용이 전체의 약 25%, 상업용이 약 14%, 산업용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원별로는 수력발전이 13,864MW로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은 증기 5,011MW (22.2%), 가스터빈 2,887MW (12.1%), 디젤 73MW(0.3%)의 순이다.

최대 전력생산량은 23,214MW(2005년 전력협회 발표기준)에 달하는데 비해 수요는 13,132 MW 에 불과해 인접국인 콜롬비아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브라질로의 수출을 위해 현재 송전선을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은 강우량에 좌우되는 등 한계점이 있으며 시설이 노후 되어, 화력 및 원자력 등의 건설을 통한 발전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우기의 엄청난 수량과 풍부한 석유, 세계 최대의 설비 용량을 지닌 Guri댐 (10,000MW) 등을 바탕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15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Macagua II & III(2,540MW) 수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전력부문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발전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발전현황

구 분	단 위	2002	2003	2004	2005
발전설비용량	MW	19,657	20,399	21,214	21,849
화 력		7,166	7,176	7,350	7,436
수 력		12,491	13,223	13,864	14,413
전력 생산	GWh	90,725	90,962	97,719	104,070
화 력		29,877	29,537	26,778	26,841
수 력		59,534	60,532	70,075	77,229
전력 소비	GWh	66,316	65,778	70,349	75,090
주거용		16,601	16,613	16,997	18,719
상업용		9,944	9,885	10,274	11,425
산업용		30,180	29,838	33,033	34,630
기 타		9,591	9,442	10,045	10,318

자료원: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2006년

바. 자동차산업

1) 산업개황

베네수엘라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조립과 자동차 부품생산으로 구분되며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부양책 실시 이후 가장 먼저 활성화된 산업분야의 하나이다. 자동차 조립업체로는 먼저 승용차 조립업체로 미국의 BIG3 와 일본의 TOYOTA, 미쓰비시가 있다. 종전 이태리의 FIAT와 일본의 HONDA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판매부진으로 '99년 조립 라인을 폐쇄하고 지금은 주로 브라질로부터 완성차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GM이 조립하는 승용차로는 Corsa, Esteem, Cavalier, Lumina와 SUV 차로 Blazer와 Gran Balzer의 2개 모델이 있다. Ford는 Fiesta, Laser SUV로 Explorer와 Ranger가 있다 2000년까지는 한국 기아로부터 프라이드 CKD를 수입, 조립하여 Festival이란 이름으로 판매 하였으나,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다임러 클라이슬러는 Neon과 SUV 차로 Jeep Cherokee, Gran Cherokee의 2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Toyota는 Corolla 와 SUV형 모델로 Samurai를 조립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미쓰비시 모델로 Lancer를, 현대 모델로 액센트를 조립판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조립, 판매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소형차와 SUV차들이다.

상용차는 트럭부문에서는 GM, Ford, Toyota, 미쓰비시와 트럭 전문회사인 Fiat계열의 Iveco, 미국회사인 Mack이 있다. 승용차 제조업체들이 주로 소형, 중형 트럭을 생산하는 반면 Iveco와 Mack은 중대형 차량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GM의 트럭 모델은 R-10, R-31, C-1500, C-3500, Kodiak 등이 있고 Ford의 트럭 모델은 F-150, F-350, F-7000, F-8000등이 있다. Toyota생산 트럭은 Dyna이며 미쓰비시 생산트럭은 Canter이다. Iveco사의 모델은 소형인 5912, 4010과 중형인 120E, 250E 대형인 190E, 380E, 400E, 720E등이 있다 Mack은 중형인 Mid liner와 대형인 RD688, CH613등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류의 상용차 중 판매의 약 절반은 1.5톤 이하의 픽업류가 차지하고 있다.

버스 제조업체로는 100% 베네수엘라 기업인 Encava사가 독보적인 존재로, 일본의 Isuzu, 미국의 Cummins 등으로부터 엔진을 수입, 자체적으로 샤시를 생산, 버스를 조립하는 이외에 조립업체들에 샤시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GM도 샤시를 생산하나 버스 조립은 하지 않고 샤시만 판매하고 있다. 기타 버스 조립업체로 중형 규모는 Iveco, Autogago, Fanabus 등이 있으며, 소규모 업체로 Servibus, Carroceria Andina등 5-6개 업체가 더 있다.

우리나라 업체는 아직 현지에 조립공장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으나, 미쓰비시 자동차 공장의 위탁 생산을 통해 96년부터 엑셀모델, '99년부터는 액센트 모델을 조립하고 있다. 또한 포드사에서 기아의 프라이드를 조립, FESTIVA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현지조립의 경우 안데안 공동 자동차 규정에 의해 안데안산 자동차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 조립의 확대는 아울러 부품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2006년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 조립공장은 7개로 GM, FORD, TOYOTA VENEZOLANA, MMC AUTOMOTRIZ, DAIMER CRYSLER, IVECO VENEZOLANA, MACK VENEZOLANA 등이 있다. '06년 3월 GM 현지 조립 공장에 21백만 US\$를 직접투자, 올해 십만 대의 추가 생산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메이커별 생산량

(단위: 대)

메이커	2003	2004	2005	2006
GM	16,122	37,487	52,329	62,461
FORD	12,397	26,348	31,914	33,490
TOYOTA VENEZOLANA	8,629	19,729	24,485	26,340
MMC AUTOMOTRIZ	7,112	11,392	15,779	17,028
DAIMLER CHRYSLER	1,917	6,534	12,096	13,622
IVECO VENEZUELA	707	1,645	2,509	3,587
MACK VENEZUELA	0	115	817	980
총 생산량	46,884	103,250	139,929	157,508

자료원: 자동차 협회(CAVENEZ-Cámara Automotriz de Venezuela)

2) 자동차 규정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 조립산업을 위해 조립용 부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완성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35%, 수리용 부품의 관세가 5%, 10%, 15%, 20%인데 반해 CKD 부품은 관세가 3%로 대단히 낮다. 또한 LOCAL CONTENT 규정에 의해 전체 사용 부품 중 안데안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하고 있는데, 동 비중은 매년 높아지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2000년은 24.8%에서 매년 1%씩 높아져 2004년에는 28.8%이 되며, 2005년 30.4%, 2006년 31.5%, 2007년 32.6%, 2008년 33.7%, 2009년 34.6%로 매년 상향 조정되도록 계획되어있다.

3) 판 매

'99년부터 자동차 판매는 정상화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에는 전년보다 39.3%가 증가한 145,306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한편 수입차의 비중은 '95년 12.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9%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들어서도 판매는 계속 증가, 판매 대 수는 총 216,976대로 지난해에 비하여 49.3%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제로 (달러화 상승과 외환통제)인해 2002년도에는 42%의 감소율을 보였고, 계속해서 2003년도 또한 51%의 하락을 초래했다. 이후 차베스 정권의 안정세로 2004년도 52%의 상승을 보였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6월 현재, 주재국에서 판매 랭킹을 차지하는 최고의 인기 차종은 Chevrolet Aveo (GMDAEWOO), Daihatsu Terios (TOYOTA), Chevrolet Corsa, Chevrolet Optra로 조사 되었다.

주요 모델 별 판매랭킹 및 판매량

(단위 :대)

랭킹	모델명	2004년
1	Chevrolet Corsa fam.	15,127
2	Daihatsu Terios fam.(TOYOTA)	10,904
3	Ford Fiesta fam.	9,074
4	Toyota Corolla	5,480
5	Chevrolet Aveo fam.	4,501
6	Hyundai Accent fam.	4,235
7	Chevrolet C-1500	4,165
8	Ford Eco Sport	3,958
9	Chevrolet Optra	3,668
10	Chevrolet Grand Vitara	3,509
11	Ford Explorer	3,389
12	Mitsubishi Signo fam.	2,887
13	Renault Twingo fam.	2,831
14	Chevrolet Trail Blazer	2,424
15	Chevrolet C-3500(CUN)	2,100

랭킹	모델명	2005년
1	Chevrolet Aveo fam.	22,541
2	Daihatsu Terios fam.(TOYOTA)	12,102
3	Chevrolet Corsa fam.	10,117
4	Chevrolet Optra	9,741
5	Ford Fiesta fam.	7,276
6	Hyundai Accent fam.	6,698
7	Toyota Corolla	6,290
8	Ford Ka	6,263
9	Fiat Palio	5,897
10	Ford Eco Sport	5,896
11	Chevrolet C-1500	5,666
12	Jeep Grand Cherokee	4,675
13	Chevrolet Grand Vitara	4,208
14	Ford F-350(CUN)	4,195
15	Toyota Hilux	3,246

랭킹	모델명	2006
1	Chevrolet Aveo (venemovil)	25,277
2	Chevrolet Optra	15,362
3	Ford Fiesta (venemovil)	13,027
4	Daihatsu Terios (venemovil)	10,501
5	Fiat Palio	9,237
6	Chevrolet Spark(Venemovil)	8,470
7	Chevrolet Grand Vitara	8,433
8	Toyota 4Runner	7,937
9	Ford Ka (venemovil)	7,521
10	Ford F-150	7,431
11	Toyota Yaris	7,185
12	Toyota Corolla	7,113
13	Ford F-350	6,864
14	Chevrolet C-1500	6,639
15	Fiat Siena	6,593
16	Jeep Grand Cherokee	6,200
17	Hyundai Tucson	6,187
18	Chevrolet Luv	6,050
19	Ford Eco Sport	5,270
20	Ford Explorer Eddie Bauer	5,243
25	Mitsubishi Signo (venemovil)	4,440
33	Chevrolet Corsa (venemovil)	3,433
42	Hyundai Elantra	2,349
45	QQ(Cinascas)	2,112

주: fam, venemovil 은 국민차로 지정된 1만 불 이하의 승용차

자료원: 자동차 협회

4) 자동차 부품 판매 동향

베네수엘라의 자동차 부품 수요는 '04년 12억 5백만\$로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총 판매의 약 25%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99년부터 2002년 폐쇄까지 대우 자동차의 선풍적인 인기에 따라 부품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현상을 빚었다. 2001년부터 한국 수출상까지 과당경쟁으로 품귀현상 속에 수요자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어 한국업체의 자제력이 요구된다. 참고로, 2001년 11월까지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실적은 23백만 불로 중남미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03년 대우자동차의 판매 중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악센트, 기아차의 판매 힘으로 한국부품은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시장과 함께 부품시장은 지속 성장단계에 있다. 한국산자동차의 부품조달 신뢰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향후 이를 타개할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5) 자동차 판매사별 경쟁동향

주요 경쟁 회사별 판매량 및 판매 시장점유율(2006년)

(단위: 대, %)

회사명		현지생산	수입	총 판매량	비중
Daimler-Chrysler		9,290	4,832	14,122	6.0
Ford		24,906	16,948	41,854	18.0
GM		42,650	5,012	47,662	20.5
Mitsubishi - Hyundai	Mitsubishi	8,117	1,438	9,555	Mitsubishi -Hyundai
	Hyundai	5,154	5,440	10,594	
Toyota		19,591	11,461	31,052	13.3
Fiat		-	15,347	15,347	6.6
Honda		-	4,387	4,387	1.9
Kia		-	3,577	3,577	1.5
Nissan		-	5,577	5,577	2.4
VW-Audi		-	7,524	7,524	3.2
2006. 전체 판매량: 343,351대					100.0

자료원: 자동차 협회

베네수엘라는 자동차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모델들의 자동차들이 팔리고 있다. 상기 회사들 이외에 독일의 MERCEDEZ BENZ, BMW, VOLKSWAGEN, 일본의 SUBARU, 스웨덴의 VOLVO, 이탈리아의 Alfa Romeo등도 판매되고 있다.

승용차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크기와 가격에 의하여 구분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해 본다면 중형 이상의 디럭스나 스포츠형의 승용차 보다는 경제적이고 소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높다. 판매가격 미화 8,500-20,000불 대의 경제적이고 배기량이 적은 차량 중에서 선호되는 모델들은 GM의 Corsa, Cavalier, Esteem, FORD의 Laser, Fiesta, TOYOTA의 Corolla, Starlet, CHRYSLER의 Neon, FIAT의 Palio, Siena, Uno, MITSUBISHI의 Lancer DAEWOO의 Lanos, Cielo, HYUNDAI의 Elantra, Accent, HONDA의 Civic, NISSAN의 Sentra 등이다. JEEP형의 차로는 GM의 Blazer, FORD의 Explorer, TOYOTA의 Samurai, CHRYSLER의 Grand Cherokee, 등을 들 수 있다.

6) 국민차 생산

베네수엘라 상업 생산부는 '99년부터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자동차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는 2004년 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차(Carro Familiar)의 개념은 배기량이 1,000-1,600cc에 기본사양만 갖추어 가격을 낮춘 차량으로, 가격은 대략 10,000\$ 미만의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국민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할부 금융 이자율을 시장금리의 90%로 하고, 구입 비용의 70%를 3년 이상 장기 융자토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부가세를 면제하며, 조립사나 부품회사 모두 최소 마진만 붙이도록 하였다. 국민차는 1인당 1대씩만 구입이 가능하다. 국민차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업 생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조립사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등 안데안 국가 조립차도 국민차 지정이 가능하다.

99년 국민차로 지정을 받은 차는 국내 조립차로 GM의 Corsa, Ford의 Festiva와 Fiesta, 현대의 Accent 가 있으며, 콜롬비아 조립차로 르노의 Twingo, 19 Energy, 마스다 323 등 총 7개 모델이다. 한편 토요타 베네수엘라 공장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1,300cc 급 CAMI 모델을 생산했다.

베네수엘라 상업 생산부는 국민차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2001년에는 경트럭과 택시에 대해서도 국민차 개념을 도입했었다.

2004년 10월 국민차 프로젝트를 새롭게 가세타 법령 38,044로 발효시켰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는 Ford, GM, MMC, Toyota, Daimlerchrysler, Renault 그리고 Mazdad이다.

1차 국민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2007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민차 판매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트럭과 택시에 이어, 오토바이와, 트랙터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총 10개 부문)

국민차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단위: Bs)

업체	모델명	수동	자동
FORD	KA	18,800,000	-
	FIESTA	21,200,000	-
MMC	악센트 1.3	17,694,000	-
	악센트 1.5	18,849,000	19,155,000
	시그노 1.3	20,800,000	-
	TERIOS	20,450,000	21,200,000
	CORSA	16,800,100	-
GM	AVEO 4	20,855,500	21,500,000
	AVEO 5	20,855,500	21,500,000
ALIANZA MMC Y DAIMLER	BRISA	20,800,000	-

사. 정보통신산업

1) 정보통신산업동향

베네수엘라의 정보통신분야는 91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다양성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 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91년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 산하에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CONATEL)를 설립,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기획, 통제, 감독 및 투자 유치, 기술혁신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영 전화공사(CANTV)의 1차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CANTV는 96년 말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49%를 국내외 주식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

CONATEL의 설립과 CANTV의 민영화를 계기로 정보통신분야는 최근 수년간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한 분야가 되었다. 1차 통신 붐은 CANTV의 1차 민영화와 이동 통신, CABLE TV 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무선통신 사업자 선정은 통신업계에 제한적 이나마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통신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2차 통신 붐은 1997년 이후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것으로 유선통신 사업자인 CANTV와 무선통신 사업자인 TELCEL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정보통신분야 중에서도 이동통신(Cellular Operating)분야와 Cable TV 분야가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온 부문으로서 Cellular Phone은 베네수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으나 가입자수가 5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통신가능지역의 확대와 통신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가입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2) 컴퓨터

베네수엘라에서는 컴퓨터가 자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컴퓨터 부품을 수입, 현지에서 조립하는 복제품 시장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Electroshop computer와 Siragon 두 회사만이 각각 e-tech, Canaima 라는 브랜드의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며, 후자는 전량 중국산 제품이다. 한편, 최근 2005년 10월 차베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하여 중국 컴퓨터 시장과 연계하여, 자체 공장을 베네수엘라에 설립, 중국의 기술과 베네수엘라의 인력으로 가정용 컴퓨터를 생산하겠다고 대국민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로써 기존가격의 30%를 절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컴퓨터 및 부품 수입 대상국은 미국으로 2004년도 기준 총 수입의 71%에 해당하는 US1.6억을 미국에서 수입하였다. 이외에 멕시코 대만 등이 주요 공급국이다. 한국산의 경우 모니터, 메모리 및 CD-ROM DRIVE 등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직수입 보다는 대부분 마이애미 등지로부터 반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컴퓨터 판매업체들은 각 시장 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층(대기업, 중소기업 가정, 학생)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수익성이 높은 시장 중의 하나이다.

컴퓨터 시장구조 및 경쟁동향

시장구분	비중(금액)	브랜드 별 비중	비고
기업용	70%	COMPAQ-HP 50% IBM 20%, 기타 30%	2005년까지 미국 브랜드가 시장을 석권하였으나 2006년부터 중국산 조립공장의 가동으로 베네수엘라산 정부 기관 설치
가정용	30%	복제품 60%, 수입품 40% (COMPAQ-HP, IBM, APPLE, DELL etc.)	저렴한 가격의 복제품이 시장주도 랩탑 수요 확대
계	100%	-	-

자료원: PC World(2006년)

3) 이동 통신

베네수엘라에 셀룰라폰이 도입된 것은 1991년이다. 미국의 BELL SOUTH 투자기업인 TELCEL이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CANTV의 계열사인 MOVILNET은 1992년 셀룰라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8년에는 지방 이동통신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DIGITEL, ELCA, INFONET 3개 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사업자로 선정된 DIGITEL은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TLCEL, MOVILNET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MOVILNET은 TDMA 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MOTOROLA, NOKIA, ERICSON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DIGITEL은 GSM방식을 채택, NOKIA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TELCEL은 TDMA방식으로 시작하였다가 1998년 CAMA 방식으로 바꾸면서 삼성, 현대 등 한국산 단말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셀룰러폰 가입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96년 50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00년 들어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와 같은 가입자수의 증가는 카드구입을 통한 PRE PAY 시스템과, 신속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데, 유선전화의 경우 신청에서 설치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반면, 무선전화는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또 PRE PAY시스템은 10,000Bs, 20,000Bs, 30,000Bs짜리 카드를 사서 입력하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공제되고, 수신전화는 요금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학생층, 서민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04년, 2005년 현재 계속된 가입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Movistar의 판매전략과 판촉행위로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의 셀룰라폰이 쏟아지며, 현 2005년 12월, 2003년에 비해 2배 증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베네수엘라 인의 소비성향과 유행성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며, 구매 가능한 층들을 겨냥한 새로운 모델들의 판매가 증가추세에 있다.

회사별 휴대폰 가입자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인구(천명)	25,242	26,106	26,540	26,590
가입자수(천명)	7,637	10,784	13,374	18,790
인구대비 비율	37.04%	45.81%	61.3%	68.93%
MOVISTAR(천명)	3,078	4,569	6,119	8,286
MOVILNET(천명)	3,009	3,180	3,206	7,173
DIGITEL(천명)	1,550	3,035	4,049	3,331

자료원: Conatel 발표 보고서

4) Cable TV

베네수엘라에는 8개의 고유 채널이 있으나, 방송이 다양하지 못하고, 통신부 (CONATEL)에서 강제적으로 예고없이 정부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기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대부분 CABLE TV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로는 SUPERCABLE, CABLEVISION, DIRECT TV 등이 있는데, 가입자수는 78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5) 인터넷 활용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사용률이 2000년에 4%이하에 불과했지만, 정보통신 분야가 1999년에 20% 성장을 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인터넷 사용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 베네수엘라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Jupiter Research의 경우 54만 2,000, IDC의 경우 59만 6,000명으로 발표했다. Jupiter Research는 2003년에는 207만 명, 2005년에는 379만 명의 사용자로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분야는 휴대폰의 보유율이 높고 인터넷 접속에 대한 관심이 높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선 웹을 통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이 유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보다 훨씬 유망한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 대표적인 회사는 CANTV의 CANTV Servicios와 Telcel의 T-Net이다.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ISP 제공업체인 두 업체가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10%의 시장에서 18개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들과는 달리, CANTV의 경우 이미 구축된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향후 상황에 대비해서 Cool Card같은 선불서비스를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Telmex에서 성공을 거둔 서비스인 무제한 인터넷 접속과 PC제공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ADSL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유선통신 인프라와 낮은 개인컴퓨터 보급률(16%), 높은 통신료가 인터넷접속을 제한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확대를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선불카드를 통한 공공 인터넷 이용장소인 정보센터를 정부건물, 지하철역,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개발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나 통신분야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인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및 활성화가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되는 등 도시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6) 전자상거래 현황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서는 B2B시장이 B2C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자상거래담당 협회인 Cavecom-e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 중 20%의 이용자만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자 상거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유선통신시설의 미비와 신뢰하기 힘든 우편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00년 11월의 유선 통신시장 개방으로 서비스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편서비스의 신뢰문제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유선통신시설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전자 상거래관련 법안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 차베스 대통령은 전자

결재나 온라인구매 등을 위한 보호법안제정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며, 과학기술처는 2001년 2월 전자결재와 전자서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서 온라인 옥션 사이트인 DeRemate.com의 베네수엘라 지부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등에도 지부를 갖고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tucarro.com, 구직구인 사이트인 empleate.com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른 중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먼저 활용한 분야이며 Banco Mercantil이 온라인 बैंकिंग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컨텐츠 제공업체인 EUD.com, 베네수엘라의 주요신문인 El Universal의 디지털신문, 인기 잡지 Urbe의 디지털버전인 loquesea.com 등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기업인 loquesea.com은 2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인터넷 포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chevere.com, yuada.com, ayantapui.com, 등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미디어 재벌인 Cisneros Group과 American Online의 합작회사인 AOL-Latin America는 브라질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최근 아르헨티나 포털사이트인 El Sitio를 매수했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안정한 우편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사설 우편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Movistar의 mipunto.com은 DHL과 계약을 맺고 있다.

7) 주요 무선통신회사

□ Movistar

Movistar(Telcel)는 베네수엘라 최초의 휴대전화 서비스회사이며 중남미에서 최초로 100만 명의 고객을 돌파한 회사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 접속) 네트워크를 위해 Lucent Technologies 장비를 이용했고, 1991년에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30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현재는 8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향후 4년간 매년 250-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2004년에는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ystem), WLL(Wireless Local Loop)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 회사는 WAP을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WAP 서비스확대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2001년에 휴대전화 이용자의 20% 정도를 WAP사용자로 전환시켰다. 이 회사는 144킬로바이트 속도로 데이터전송을 할 수 있는 IMT-2000(3G:Third Generation) 기술을 도입했다. Telcel.net(T-Net)을 통해서 인터넷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며, 가입자들은 Mipunto.com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인터넷접속과 이메일 이용, 물건 구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도입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해외 여행 시에도 로밍 서비스를 통해 전화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004년도 스페인 통신회사에 팔려 현재 이름을 Movistar로 변경, 이미지 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제조된 단말기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2004년도 크게 가입자 수가 상승하였다.

□ Movilnet

CANTV의 자회사인 Movilnet은 1992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Movilnet 시스템의 95%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Ericsson에서 기술과 단말기를 제공해왔으며, CD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에 5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거대 통신회사인 CANTV는 2000년 초에 Movilnet 무선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tarMedia와 함께 Tun-tun. 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이는 휴대전화사용자를 위한 중남미 지역 최초의 포털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현재 WAP이용자들에게 뉴스, 이메일, 무료 번역 서비스, 웹 사이트 접속 등을 제공하고 있고, WAP서비스에 월 7달러를 받고 있다.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기술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했다.

2007년 1월 차베스정부는 통신, 전기시설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CANTV를 정부화하겠다고 선언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하나 CANTV 지분은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장기화될 예정이다.

□ Digitel

Digitel은 자국 및 외국기업들간의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0년 11월 이태리의 Telecom Italia가 56.6%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gitel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900 유선 네트워크설치를 위해 노키아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유럽 및 미주지역의 GSM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Digitel은 UOL과 계약을 맺고 GSM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채팅 등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 수는 20만 명 정도이지만, 올 말까지 70만-90만 명으로 고객을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회사명	MOVISTAR	MOVILNET	DIGITEL
서비스지역	98 %	100%	23개 주 중 12개 주
국제로밍 서비스	해외지역에 따라 이용 요금이나 서비스 가능 여부 차이	좌 동	부가요금 없이 서비스
가입자수	8,400,000	4,600,000	3,210,000
(선불제)	(80%)	(85%)	(70%)
기술	800 MHz band의 CDMA	800 MHz band의 TDMA	900 MHz band의 GSM
선불카드	USD \$7, \$17, \$35 "Telpago" 카드 이용	USD \$7, \$17, \$35 "Coolcards" 이용	USD \$18, \$35 "Radical" 카드 이용
핸드셋	Motorola, Samsung,	Nokia, Motorola	Siemens, Ericsson,
브랜드명	Hyundai 장비가 주	Ericsson장비가 주	Nokia, Motorola, Philips, Audiovox
인기모델명	Motorola Elite, Startac	Baby Nokia(Nokia 6120)	Siemens C25
네트워크	45% 디지털 55% 아날로그	98% 디지털 2% 아날로그	100 % 디지털
서비스시작일	1991	1992	지방서비스: 1998 도시지역: 1999
지분보유율	Movistar(spain): 78% Oswaldo Cisneros:17% Invest-지역투자자들:5%	100% CANTV	Italia Telecom 56.6% BSCH: 15%, BBO: 12% Latin American ment Bank: 10%
인터넷서비스	"T-Net" ISP, "Mipunto.com" 포털사이트, WAP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CantvServicios" ISP 휴대전화를 통한 "Tun-tun.com" 포털사이트, WAP서비스 이용 요금 USD 7.00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배포 채널	공식 에이전트: 2,000	공식 에이전트: 1,600	상업적인 파트너
애프터서비스	서비스 센터: 160	서비스 센터: 125	-

자료원: El Nacional (위의 자료와 기타 연구소자료는 수치에 차이가 있음.)

□ 유선전화서비스

2000년 11월 27일에 시내, 시외, 해외전화서비스 등 기본 전화서비스가 CANTV의 독점 서비스 체제에서 공개 경제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고, Movistar과 Veninfotel이 운영권을 받았다. 현재 독자적인 전화부스를 설치하여 유선전화서비스의 다양화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설치, 유지문제로 인해 아직 Cantv의 전화 부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8) 통신장비 수입 현황

전화부스, 전화박스, 동축케이블 등을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에서 정보통신 장비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국가들은 주로 스위칭 장비를 공급해왔고, 동축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은 미국에서 수입해왔다. 미국은 통신장비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통신장비 수입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는 상황이나, 통신장비의 수입업체는 CONATEL로부터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9) 통신사업자 선정

베네수엘라의 정보통신 분야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으나 사전에 CONATEL에 등록 및 사업권을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CONATEL은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다.

○ 선정기관: CONATEL

- ADD: Paseo Las Mercedes, Av. Veracruz con Calle Cali, Edif. CONATEL,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909-0310, 909-0311, 909-0321
- FAX: (58-212) 993-0165

□ 통신사업자 선정절차

CONATEL의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은 두 가지 단계 즉 Register(사업자 등록)와 Concession(사업권 취득)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사업자등록 (Register)

- 사업자 인적 사항, 자본금, 회사형태, 서비스 종류, 채택기술, 사업계획 등을 구비, CONATEL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CONATEL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의 중복, 채택기술의 적정성, 과당경쟁여부 등을 기준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허가하게 되어있다.

○ 사업권 취득(Concession)

- CONATEL에 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기술적, 경제적 및 법률적인 자료와 함께 CONATEL에 제출하여 사업권을 요청하게 되어 있으며 CONATEL의 각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권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통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통신 사업권을 취득하여야 비로서 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안데안 공동시장

베네수엘라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 함께 동 5개국으로 구성된 안데안 공동시장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안데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역내국 간에는 무세, 역외국과는 공동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신관세를 시행령 제2087호에 의거 '92년 3월 24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를 중심으로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경제협정을 강화하고자 2006년 3월 안데안 공동 시장으로의 공식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안데안 공동시장은 주재국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재국 여권 첫 표지에도 안데안 국가 표시가 있는 등 주재국의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 안데안 공동시장 회원국으로의 회귀를 고려중이다.

□ 역외국 적용 세율

-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자본재: 무세
- 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자본재: 5%
- 제조품: 15%
- 최종소비재 및 사치품: 20%(사치품에 사치세 부과)
- 자동차: 25%

나. G-3 자유무역협정 (2006년 3월 공식적인 탈퇴선언)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3국은 '95년 1월 1일부로 3국간 자유 무역을 실시하였다. 기본 원칙은 자동차와 농산물, 그리고 지난 '94년 5월 추가로 제외된 섬유 부문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멕시코는 처음에 36%를 인하하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21%를 인하한 후 '95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10년 후에는 완전한 자유 무역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다. LAIA(중남미경제연합)

베네수엘라 상공부는 '96년 1월부터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과의 교역시 특혜 관세(Preferencia Arancelaria Regional: PAR)를 적용기로 하였다. PAR은 LAIA 회원국간 교역 시 적용하는 관세로서 각국이 정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데 베네수엘라는 LAIA 회원국 중 유일하게 PAR 제도 미 시행국이었다.

○ PAR의 주요내용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시 베네수엘라는 수출에 있어서 각국 수입 관세의 28%를 면제받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를 면제한다.
-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로 수출 시 12%를 인하, 수입은 28% 감면한다.
- 칠레, 멕시코, 안데안 국과는 이미 개별 협정에 의해 관세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AIA 특혜관세(PAR)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LAIA 특혜관세(PAR) 제도는 1980년에 체결된 우루과이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관세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04년 7월 8일 준회원국으로 인정받은 이래, 차베스 정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05년 12월 9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베네수엘라는 정식으로 MERCOSUR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 이 등 창설 회원국과 같은 자격으로 MERCOSUR의 5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합의해야 할 관세, 품목 등 여러 사항들이 남아있고, 준회원국들과의 관계 등도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다.

안데안 공동체, G3 탈퇴 이후 남미공동시장 강화를 천명하였다.

마.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경제협정

정치, 이념을 위해 반미적 색채를 띠고 형성된 연합체이나 최근 차베스의 중남미 좌파 리더로의 역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차베스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이하여 MERCOSUR와 더불어 ALBA의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차베스대통령은 과거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G3, ANDEAN을 해체하고 중남미 국가만을 위한 공동체 창설을 주장했으며, ALBA는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MERCOSUR회원국이 베네수엘라를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ALBA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바.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협정 및 과학기술협정 체결

2006년부터 중국과의 실제적, 구체적인 대규모 경제협력에 들어가 과학기술협정 및 통신, 원유, 사회간접자본, 국방, 교육, 관광 등에 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각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양국간 정치적인 협력 하에 무역교류는 2004년 13억 US\$에서 2005년 21억 US\$, 2006년 40억 US\$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현재까지 인공위성, 통신, 사회간접자본에 걸친 방대한 중국의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100억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사. 쿠바와의 경제협정

2007년 1월 24일 수요일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양국간 광물, 통신, 원유, 농업, 관광,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해 상호 11.2억 US\$의 투자에 관한 16개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ALBA협정에 기초한 것으로 상호공조, 경제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국내 발전을 저해하는 “신상업주의 신자유주의”를 배척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통합모델 구축의 의지를 결의하였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26,781	27,170	38,748	55,473	64,568	45,346
수입	11,673	10,687	17,318	23,693	31,344	38,454
수지	15,108	16,483	21,430	31,780	33,224	6,891

자료원: 중앙은행

주: *은 Veneconomia 경제기관의 추정치임

원유 관련수출품이 2005년 480.69억불로 86.5%, 2006년 89.5%로 수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를 제외한 민간부분의 수출액은 2005년 7.4억불, 2006년 6.7억불로 베네수엘라의 수출시장에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07년 총 수출액 44.491억불에서 원유, 가스 수출액이 38,057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8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국제원유가는 당분간 큰 폭의 하락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원유로 인한 수입(收入)은 소득을 증가시켜 수입(輸入)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세계 1위의 막대한 원유보유량으로 원유 고갈 이후의 산업에 대한 고민이 미미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 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원유, 가스의 수출액 감소에 따라 전체 수출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연도별 원유,가스 수출액은 2005년 48,069억불, 2006년 58,438억불에 비하여 2007년 추정 수출액은 35,920억불이다.

수입은 국내생산시 주요기업의 국유화, 원부자재의 수입통제, 높은 세금, 정부의 잦은 규정변경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을 회피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수입증가세는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지속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베네수엘라간 수출입 통계

2004년부터 고유가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고 있다. 2006년에는 10.3%의 GDP 성장률을 보이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74~148% 증가하였다. 2007년 말 GDP 성장률을 8.3%로 나타내며 모든 부분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외환 통제로 사기업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국가 프로젝트 중심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별로는 화물 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의 수출이 2006년에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베네수엘라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수요를 위한 전선(광섬유) 수출이 1,221% 증가를 보였다. 그 이외에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또한 꾸준한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승용차 또한 수출 효자로 자리잡고 있다.

연도별 한국수출 실적

(단위: U\$천 불)

연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
1971	132(-)	-(-)	-
1975	2,941(-72.5)	1(-)	-
1980	29,141(-29.4)	25,103(118.0)	4,038
1985	31,696(-16.1)	10,331(57.5)	21,365
1990	51,039(36.9)	20,385(145.2)	30,654
1995	116,683(18.5)	68,391(19.5)	48,292
2000	380,277(35.7)	25,547(-38.9)	354,730
2001	554,664(45.9)	42,237(65.3)	512,427
2002	247,486(-55.4)	45,873(8.6)	201,613
2003	106,977(-56.8)	50,171(9.4)	56,806
2004	229,902(114.9)	93,609(86.6)	136,293
2005	570,523(148.2)	212,009(126.5)	358,514
2006	995,909(74.6)	75,645(-64.3)	920,264

주) () 괄호 안의 '증가율'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임

□ 월별 수출실적

2005~2006년 월별 수출실적

(단위: U\$천 불)

월	2005		2006	
월	월 별	누 계	월 별	누 계
1월	31,834(411.1)	31,834(414.1)	42,440(33.3)	42,440(33.3)
2월	34,262(203.2)	66,096(277.8)	52,739(53.9)	95,179(44.0)
3월	37,900(159.7)	103,995(224.1)	52,967(39.8)	148,146(42.5)
4월	42,660(279.4)	146,655(238.5)	52,351(22.7)	200,497(36.7)
5월	163,367(1155.2)	310,022(450.2)	184,509(12.9)	385,005(24.2)
6월	42,166(84.7)	352,188(344.8)	66,572(57.9)	451,578(28.2)
7월	33,392(66.1)	385,580(288.4)	60,778(82.0)	512,355(32.9)
8월	28,692(39.1)	414,272(245.5)	71,307(148.5)	583,662(40.9)
9월	33,725(53.2)	447,997(215.7)	98,085(190.8)	684,747(52.2)
10월	44,727(46.2)	492,724(185.6)	100,641(125.0)	782,388(58.8)
11월	47,206(74.1)	539,930(170.5)	122,157(158.8)	904,545(67.5)
12월	30,593(1.1)	570,523(148.2)	91,364(198.6)	995,909(74.6)

주: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2005~2006년 월별 수입실적

(단위: U\$천 불)

월	2005		2006	
월	월 별	누 계	월 별	누 계
1월	35,738(2576.9)	37,586(29.1)	17,866(-50.0)	17,866(-50.0)
2월	23,634(198.5)	78,650(9.6)	12,459(-47.3)	30,326(-48.9)
3월	28,899(120.1)	107,335(-7.4)	288(-99.0)	30,614(-65.3)
4월	16,591(115.2)	128,776(-15.4)	14,775(-10.9)	45,388(-56.7)
5월	22,508(19.1)	144,431(-23.2)	7,511(-66.6)	52,899(-58.5)
6월	18,823(50.4)	160,417(-32.7)	95(-99.5)	52,994(-63.8)
7월	37,407(428.4)	172,465(-38.1)	331(-99.1)	53,324(-71.0)
8월	2,731(-63.1)	185,403(-41.9)	299(-89.0)	53,624(-71.2)
9월	1,249(-90.6)	196,926(-53.6)	380(-69.6)	54,003(-71.2)
10월	6,128(297.1)	215,117(-53.3)	10,482(-71.1)	64,486(-66.7)
11월	17,258(611.2)	231,870(-53.5)	204(-98.8)	64,690(-69.3)
12월	1,044(244.6)	247,486(-55.4)	10,955(949.6)	75,645(-64.3)

주: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MTI (6단위)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U\$천 불)

MTI 품목코드	품목명	2005	2006
0	농림수산업	1,044(-27.5)	1,044(-)
1	광산물	47(-)	6(-86.4)
2	화학공업제품	14,650(100.0)	28,038(91.4)
3	플라스틱고무/가죽	11,049(59.0)	15,374(39.1)
4	섬유류	8,735(-25.0)	9,492(8.7)
5	생활용품	8,090(141.9)	13,522(67.1)
6	철강금속제품	10,677(31.9)	6,529(-38.8)
7	기계류	410,260(225.2)	81,4039(98.4)
8	전자전기제품	103,736(63.4)	10,3301(-0.4)
9	잡제품	2,233(57.2)	4,563(107.4)
합계		570,523(148.2)	995,909(74.6)

MTI(6단위) 1-30위까지 수출실적

(단위: U\$천 불)

순위	품목명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229,011	155.4	601,378	162.6
2	선박	123,317	-	123,317	0
3	자동차부품	27,680	49.7	34,451	24.5
4	무선전화기	47,576	56.7	28,233	-40.7
5	에어컨	15,399	0	26,002	68.9
6	화물자동차	2,812	113.7	12,439	342.4
7	합성수지	6,803	483	11,706	72.1
8	기타가구	5,623	197.9	10,724	90.7
9	냉장고	8,933	52.8	10,113	13.2
10	건설중장비	2,238	1.7	9,441	321.9
11	섬유기계	4,156	17.3	9,216	121.8
12	타이어	4,845	200.1	6,780	39.9
13	전선	465	68.1	6,142	1,221.50
14	합성고무	2,603	474.6	5,919	127.3
15	칼라TV	2,836	110.1	5,331	88
16	무선교환기및중계기	483	-	4,952	926.3
17	세탁기	1,715	532.2	4,121	140.3
18	기타석유화학제품	575	57.9	4,107	613.6
19	무기류	1,510	42.6	3,867	156
20	기타플라스틱제품	2,559	0.2	3,762	47
21	엘리베이터	594	120.2	3,178	435.5
22	기타섬유제품	1,057	191.8	3,074	190.9
23	무선통신기기부품	2,057	1,452.30	2,835	37.8
24	축전지	1,240	190.6	2,824	127.7
25	타이어튜브	1,767	72.4	2,393	35.5
26	공기조절기	1,341	44.3	2,361	76.1
27	편직물	2,584	-39.8	2,314	-10.4
28	펌프	3,023	162.9	2,263	-25.1
29	기타정밀화학원료	1,451	-13.1	2,126	46.6
30	금속절삭가공기계	615	520.8	2,115	244.1
	기타	63,655		48,425	
총 계		570,523	148.2	995,909	74.6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실적

(단위: US\$천 불)

순위	품목명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환원철	144,058	398.7	62,422	-56.7
2	기타 석유제품	56,300	8.8	9,433	-83.2
3	기타 정밀화학원료	1,459	38.6	1,196	-18.0
4	동과 및 스크랩	1,499	-80.1	448	-70.1
5	기타 신발	55	4,240.4	360	552.6
6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0	-	296	-
7	어육	203	-	258	26.9
8	기타 산업기계	0	-	256	-
9	섬유판	0	-	208	-
10	기타 기계류	0	-	173	-
11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1525	46.7	158	-89.6
12	타이어	7	-	78	1083.3
13	견과류(*코코아)	176	-46.1	64	-63.8
14	기타 플라스틱제품	127	36.7	62	-51.2
15	칼	0	-	28	-
16	합판	0	-	18	-
17	자수포	28	-	18	-35.4
18	주류	0	-	18	-
19	무선전화기	127	-80.3	17	-86.6
20	직물제의류	2	-85.6	16	752.1
기 타		6,443	-	118	-
합 계		212,009	126.5	75,645	-64.3

자료원: 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개 요

베네수엘라의 수입관리제도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등 자격 제한없이 납세자면 누구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금지품목은 무기, 마약 등 통상적으로 금지되는 품목들에 한한다. 의약품, 식품 농수산물 등은 보건을 위해 사전에 수입 적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관행과 비슷하다.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통관절차가 강화되는 등 수입 관련 프로세스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그 동안 말수, 언더밸류 등 비정상적인 수입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2년, 2003년의 정치문제, 전국 노조파업 등의 경제문제를 겪으며 차베스 정부는 2006년 현재 국가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우파와 관련된 수입 규제에 들어갔다.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수입업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외환관리 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필요한 외환을 구하여 수입할 수 있다.

2007년 말 현재 공식달러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2배 이상으로 외환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외환을 구하던 수입상들도 외환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며 국가가 실제적인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나. 2005년 10월 14일 발표된 외환통제 하 Cadivi 수입절차 10단계

- 1단계
 - 수입자는 회사를 RUSAD에 등록해야 하며, RUSAD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AAD에 외환획득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음
 - RUSAD
 - the Currency Administration System, 외환관리시스템
 - Cadivi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환 수요자를 관리하는 외환관리시스템임
 - AAD(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 the Authorization to Exchange Foreign Currencies, 외환획득증인서
- 2단계
 - 수입자는 AAD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주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함
 - 은행 신청 시 동반 제출하는 서류
 - Proform Invoice, Freight
 - Insurance · 지불방법 및 구매일자가 기록된 공문 또는 계약서
 - P/ O · 수출자 정보(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
- 3단계
 - 수입자가 AAD 외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Cadivi에 회사정보와 함께 AAD 신청서, RUSAD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은행은 제출 받은 서류를 Cadivi에 5영업일 내로 재 송부해야 함
- 4단계
 - 신청된 AAD가 Cadivi에 승인된 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관련 제품의 공급을 주문할 수 있음
 - 승인된 AAD는 양도할 수 없으며 180일간 유효기간을 갖고 있음
 - 180일간 유효기간의 시작은 Cadivi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5단계
 - 제품이 베네수엘라 항구(세관)에 도착할 경우 수입자는 Cadivi에 통관, 관세 등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Copy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m
 - Copy of the Commercial Invoice
 - Copy of the Transportation Document(BL etc)
 - 제품이 도착하자 마자 수입자는 항구(세관)에 소재한 Cadivi 사무소에 제품(화물) 검사를 요청해야 함
 - 수입상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Cadivi는 외환 사용 승인을 취소함
- 6단계
 - Cadivi에 의해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Verification Act" 발급
 - "Verification Act"가 발급될 경우 수입자는 지체 없이 관세와 통관세를 납부
- 7단계
 - 통관절차가 완료될 경우 수입자는 은행에 통관서류(관세납부 서류 포함), Commercial Invoice, BL,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및 Cadivi 검사증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자 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등은 단순히 수출입자 간 사적인 서류가 아니라 제3의 공공기관이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작성된 것

○ 8단계

- 은행은 접수된 수입자의 서류를 접수일자를 포함한 5영업일 내로 Cadivi에 제출

○ 9단계

- Cadivi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검토 후 하자가 없는 경우 ALD를 받을 수 있음
- ALD는 Cadivi가 수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한 은행에 송부하며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ALD를 받을 수 있음
- ALD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해당하는 결재금액을 은행에 입금

○ ALD(Autorizacion de Liquidacion de Divisas)

- the Foreigen Currency Settlement, '외환집행승인서'로 해석됨

○ 10단계

- ALD를 받은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결재금액 입금이 확인된 경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으로 외국환(U\$) 송금을 요청함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수출자의 계좌로 ALD에서 승인된 자금을 송금함

□ Cadivi 외환승인 절차시 중요사항

-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 동일해야 함
- AAD가 승인되었을 경우 Cadivi는 18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 Cadivi 제도하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함
 - Cadivi(또는 중앙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수입자가 선금을 지급할 경우 2중 지급이 됨
- 수입자가 Cadivi를 신청시부터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금액을 확보함으로 Cadivi 신청절차가 들어간 경우 수입자 자금은 Cadivi 신청절차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수출자 계좌로 송금되고 있음

□ LC 거래시 특이사항

- LC로 거래를 수행할 경우 10단계 중 4단계까지는 동일하며 바로 10단계로 진행함
 - AAD가 승인된 경우 즉시 대금결재 금액을 은행에 납부
 - 은행은 수입자가 대금결재 금액이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Cadivi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Cadivi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ALD 발행 후 중앙은행에 외화송금을 통보 요청
- LC 거래를 수입자가 회피하는 주요 이유
 - 은행에서 LC 개설 시 대금결재 금액의 120-150% 수준으로 예치 조치
 - 베네수엘라 은행에서 LC 거래 시 각종 은행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5-8% 수준으로 너무 많아 제품단가 인상의 요인임
 - 은행 업무 자체가 늦어 Cadivi를 통한 거래 기간과 차이가 없으며 은행 행정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Cadivi와 은행간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많음

□ Cadivi 전(前)단계로 상공부(Milco)의 수입 승인이 추가됨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상공부는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5조 결의안의결 후 대통령 결재 취득하였다.

재경부 산하의 외환승인위원회(Cadivi)의 외환통제로 자유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공부(Milco)의 추가 억제책으로 무역을 위한 외환배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짐. 베네수엘라 상공부 195조 결의안 내용을 보면 기존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외화획득증인서(Aquisicion de Divisas: AAD)를 획득하였는데, 수입업자는 경공업 상공부(MILCO)로부터 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 등의 3,680개의 관세 코드를 제외한 3,500개의 관세 코드에 해당 되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비제조 확인서" 및 "국내 불충분 제조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확인서가 필요한 주요 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 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등이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국내 비제조 확인서"의 경우 1년이며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의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2006.12.05일 관보 제 38,577조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다. 수입관련 제세

2007년 베네수엘라에는 관세 이외에 1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유무역 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8%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으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00년 8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되며, CIF가격+수입관세에 대해 부과된다. 이외에 통관수수료로 수입 가격의 2%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10%를 수입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05.9.01 부터 시행).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8-16.5%의 범위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한데, 최초에 15.5% 에서 2000년 8월부터 14.5%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후 2002년 16%로 상향된 바 이어 2004년 9월 15%, 2005년 9월 1일 관보로 현재 14%로 하향 되었다. 그러나 30,000USD 이상의 고급 자가용이나 500cc이상 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 등의 수입품 판매에는 24%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다.

최근 차베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막기 위해 2007년 3월 1일부터 현 14%의 부가가치세를 11%로, 7월 1일부터 9%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 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 및 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 등은 과세가 면제된다.
-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산지 규정

베네수엘라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세가지인데, 첫째는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이며 이는 관세율표상 법적 구속 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원산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G-3협정에 의한 교역과 안데안 국가간 교역시 면세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세번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덤핑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마. 자동차부품수입관련 규제

자동차부품의 경우 경공업 상공부가 2006년 11월에 발표한 195조 결의안에 의하여 치명타를 입고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품 미선적, 중고 부품선적 등에 따른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수량 부족, 불량품 선적에 따른 클레임이 있었는데 이런 클레임들은 한국 상품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므로 우리 업체의 베네수엘라 거래에 대한 신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MERCOSUR 체결국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부정적인 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멕시코와의 G-3협정에 따라 콜롬비아산 타이어는 무관세로 반입되는 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1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현재 주재국의 수입이 정치적인 색채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한국을 겨냥한 규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무역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외환관리위원회의 배정이 낮아지고 있어 실제적인 수출대금결제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베네수엘라의 상품 분류는 HS 분류체계로서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35%를 부과하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약 10%)

관세율(%)	대상품목
0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5	원자재 및 자본재
10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15	각종 공산품
20	최종소비재로 사치성 품목
35	자동차

나. 특혜관세 제도

2006년 3월 안데안 공동체, G3 탈퇴선언을 선언하였으나 각각 5년, 180일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어 특혜관세제도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안데안 공동시장 회원국 사이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며 G-3 회원국 사이, ALADI 회원국 사이에도 특혜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3회원국 간에는 매년 일정율의 관세를 인하하여 2004년에는 완전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ALADI 회원국 간 특혜 관세는 각 나라마다 관세 양허율에 차이가 있으며 칠레와는 6,000여 품목에 특혜 관세 교역 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는 카리브국이 소국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EU 15개 회원국에 수출시 GSP-DRUG 혜택을 받는데 이는 EU 회원국이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작물 재배 억제를 위해 GSP보다 관세면제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GSP-Drug 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원유, 철강, 기타 광물 등 일부에 불과하다. EU는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재배 억제를 위해 10년간 안정적으로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졸업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베네수엘라와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CARICOM,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T&T, 우루과이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ANDEAN 국가와 MERCOSUR간의 특혜관세 협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 볼리비아와 ALBA협정을 맺고 있어 관세특혜를 동국가들에게 주고 있다.

다. ALADI 관세율

'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 역내국가 중 저개발국, 중개발국, 발전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각국별 관세 인하율

적용국가	인하율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10%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7%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5%

라. 관세 평가 제도

베네수엘라의 관세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한다. 단, 송장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가격으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 사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 가격으로 비치한다. 기준 가격 설정시 제시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가격, 가격 구성표, 카탈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이다. 특수한 형태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산정은 브랏셀 가격산정 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른다.

6.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

- 수입품에 대한 규격 인증 확인과 원산지 규정 강화
- 폭죽 관련 인화성 물질은 수입 전 반드시 검사 필요
- 음식, 의약품 수입에 있어 베네수엘라 보건, 복지부에 등록을 마쳐야 함

나. 인증 관련 정부 담당기관

1) COVENIN (Comision Venezolana de Normas Industriales)

- 공업용 기계, 부품 등에 있어 수입 전에 사전 검사, 인증확인 필요
- 자동차 부품인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 covenin의 인증확인 필요

2) SENCAMER (Servicio Autonomo Nacional de Normalizacion, Calidad, Metrologia y Reglamentos Tecnicos)

- 경공업 상업부(Ministerio de Industrias Ligeras y Comercio)의 산하기관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시 각 수입상은 수출상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한다.
- 홈페이지: www.sencamer.gob.ve

다. Cadivi 전(前)단계로 상공부(Milco)의 수입 승인이 추가됨

-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
 - 상공부는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5조 결의안 의결 후 대통령 결재 취득
 - 재경부 산하의 외환승인위원회(Cadivi)의 외환 통제로 자유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공부(Milco)의 추가 억제책으로 무역을 위한 외환배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짐
- 베네수엘라 상공부 195조 결의안* 내용
 - 확인서가 필요한 주요 제품
 -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등
 - 확인서의 유효기간
 - . "국내 비제조확인서"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 .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의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 적용시기: 2006.12.05일 관보 제 38,577조에 따라 즉시 적용

□ 상공부(Milco) 195조 결의안

기존 방식으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외화획득승인서(Aquisicion de Divisas: AAD)를 획득하였는데, 수입업자는 경공업 상공부(MILCO)로부터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 원자재 등의 3,680개의 관세코드를 제외한 3,500개의 관세코드에 해당되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비제조확인서" 및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된다.

7. 지적재산권

주재국 지적재산권은 공식적으로는 법의 적용을 받으나 실제로 단속, 집행 등의 문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으로 침해한 대립을 보인 서적, CD, 음반 등도 불법 카피가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국가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워 규제는 거의 없는 편이다.

공식적으로는 SAPI(EI 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라는 정부 기관에서 관장, 1997년 4월 24일 관보를 통해 문화·경제·사회 발전에 관계된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상표, 발명, 새 기술, 저작권, 공업 재산권에 관한 보호를 하고 있다.

기술도입, 특허 및 상표의 이용은 지적 재산권법과 안데스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특허와 상표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은 SIEX(외국인 투자청)에 체결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는 5년부터 10년 이내, 혹은 외국의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인정되며, 어느 것이든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특허가 나간 후 2년 이내에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이 특허는 취소된다.

저작권은 저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오디오 및 비디오의 무단 불법 복제 시 민사 및 형사법의 처벌을 받는다. 등록은 SAPI산하기관인 DNDA(la Direccio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에서 한다.

공업 소유권법에 의해 특허는 등록 후 5년간, 상표도 등록 후 5년간 유효하고 동 허가를 받은 후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약해, 상표 도용 등 침해사례가 많은 편이다. 특히 청바지, 모자, 의류 등의 상표 도용이 심해 국내 제조업체나 정식 수입업체의 고발이 잦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 B/L 원본, 상업 송장,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품질 증명서(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이다. 통관 시에는 반드시 통관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물품 검사는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하는데, 동 방법에 의한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될 때에는 전수 검사를 한다. 또한 한번 문제가 발생한 수입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01년까지만 해도 세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 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 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세관 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졌다.

이에 따라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단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 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재검사를 하는데, 국가수비대는 원래 마약이나 무기 등 유해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해 왔으나, 근래에는 세관원이 제대로 화물 검사를 하였는지 재검사를 하고, 세관 검사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국가수비대는 보세장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이 최종 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2003년 제1 항구인 라과이라(La Guaira) 직원들이 수입상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정보부에 발각되면서 정보부 직원이 전국 세관에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라과이라 세관을 필두로 향후 지속적인 세관 행정을 전산화하여 부정을 막고 세관 행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UN의 지원하에 설치된 세관 자동화 시스템은 시험단계에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관 통관관행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것보다는 과거와 같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편이며 불법으로 통관되는 물품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된다.

통관시에는 물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필히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산 자동차 부품일 경우 사전에 수입상의 협조 하에 이곳 품질인증서(homologacion)를 받아, 수입자측이 준비해야 한다. 의약품이나 식품인 경우 각각 보건복지부의 식품부의 등록을 마친 후 등록증을 보여야 통관이 된다. 필요한 인증서나 등록증이 없는 경우 물품의 통관이 거부되거나 수입자 측에 주관적인 벌금을 물게 되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나. 통관시 CADIVI의 점검강화

2005년 10월 14일 발표된 외환통제하 수입절차에 따라 통관시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 동일하지 않거나 수입품목에 필요한 품질인증서가 없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어 수출상은 선적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송장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통관이 거부되기도 한다.

다. 국제 공항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은 SIMON BOLIVAR 공항이다. 이 공항은 카라카스 시내에서 약 25KM 떨어진 LA GUAIRA 해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통상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교통 체증이 없는 경우 차로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

2006. 1. 5(목)을 기점으로 국제공항간 고속도로를 폐쇄하였는데 연초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이동하였고 과거부터 부실하던 고가 위에 건설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의 하반부 일부가 무너짐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이 정지되었으나 이후 1년여 간의 공사 후 완공되어 현재 문제없이 양방향 통행이 자유롭다.

기타 주요 도시의 국제공항은 다음과 같다

- SANTIAGO MARINO 공항 (MARGARITA섬)
- TACHIRA 공항 (TACHIRA주 SAN ANTONIO시)
- LA CHINITA 공항 (MARACAIBO시)
- VALENCIA 공항 (CARABOBO주)
- BARCELONA 공항 (ANZOATEGUI주)
- BARQUISIMETO 공항 (LARA주)

라. 국제 항구

주요 국제항구로는 수도권의 LA GUAIRA항구, CARABOBO주의 PUERTO CABELLO항구 ZULIA주의 MARACAIBO항구, ANZOATEGUI주의 PUERTO LA CRUZ 항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상품이 주로 도착하는 항구는 수도권 근처의 LA GUAIRA 항구와 대형 화물선의 접안이 용이한 PUERTO CABELLO 항구이다. PUERTO LA CRUZ 항구는 석유산업 중심지인 JOSE 공단에 인접해 있어 원유 및 가솔린 수출, 관련 자재 수출입 등에 이용된다.

카라카스의 관문인 LA GUAIRA 항구(SIMON BOLIVAR 공항)는 '99년 말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경우 동 공항을 통하여 출입하게 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빈발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마.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 Aerotransporte Rapicar, C.A.
 - 주소: Ave. Los samanes, Centro Plaza Paez, Nivel planta Alta, ofc.03, El Parais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484-7614, 483-6555 / 팩스: (58-0212) 484-3885
- Alafletes, Agencia Latinoamericana de Fletamentos, C.A.
 - 주소: Puente Yanes, Edf. Beco, Piso 3, La Candelari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576-6944 / 팩스: (58-0212) 576-6018, 577-6055
- Aerofletes
 - 주소: Av. Romulo Gallegos, Edf. Pascal, Torre B, P.B., Local 4-B,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355-2669 / 팩스: (58-0212) 286-2956
- Consignacion Tamayo, S.A. CONTASA
 - 주소: CC. uslar, Piso 4, Ofc.41, Urb.Montalban la Veg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443-8347 / 팩스: (58-0212) 332-5480
- C.A. Danzas Veneolana
 - 주소: Carretera Petare Sta. Lucia, 5km, Sector El Limoncito, Filas de Mariche. Estado Miranda, Venezuela
 - 전화 : (58-0212) 291-2049, 291-2816 / 팩스 : (58-0212) 291-2331/2575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미개발된 수많은 지하자원 및 관광 자원, 국내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소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제 구조 등 얼핏 보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 시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불안, 정부의 비효율성, 낮은 노동의 질, 고용주에 불리한 복잡한 노동법, 소수 10%에게 집중된 극심한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투자 진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베네수엘라는 1992. 3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아래의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 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에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법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 내 금융 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99년 12월 개정된 헌법은 특히 자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석유의 경우 외국업체와의 합작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발권을 주던 개발 양허제가 금지되었다.

외국인은 다음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TV, 라디오 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
- 석유, 철광 등 자원개발 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안 별로 의회 승인시 투자 가능

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우선 베네수엘라의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및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 또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한 특별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산업의 하청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필히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품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인근 안데안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가시화하고 있어 인근 국가로부터의 부품 및 자재 수입도 무세로 조달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차베스 정권이후 헌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측면이 더욱 강화된 바 2001년 이후에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세법, 석유관련법, 통신법 등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석유 관련법이 변경되었으나 한국기업이 파악해야 되는 사항은 별로 없어 기재하지 않기로 하며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투자관련법으로는 부가세 면제 조항으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 허가기준으로 고용 증대, 수입 대체 및 수출촉진, 고도의 기술 여부, 경영권, MARKETING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부문, 유통업 부문, 전문 서비스 부문, 석유 철강개발 부문, 금융 부문, 보험 부문 등은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라. 투자허가. 감독기관

투자허가. 감독기관으로는 외국인 투자청(SIEX)가 있는데, 동 기관은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관리청으로 그 기능은 외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등록 및 관리와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다.

외국인 투자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SIEX)
 - 주소: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483-6666
 - FAX : (58-212) 484-4368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유치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유치 사무소(Conapri)
 - 주소: AV. Francisco Miranda ,Centro Empresarial Parque del Este, piso 12, la Carlota, Caracas 1071, Venezuela
 - 전화: (58-212) 237-5007/5647
 - 팩스: (58-212) 237-6028/6109
 - 성격: 정부보조금과 민간경제단체 및 기업기금으로 운영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
 - 기능(주요 업무)
 - . 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환경 자료 발간
 - . 투자유치 사절단 구성, 베네수엘라 투자환경 정보제공 등

마. 외국인 투자제한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 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언론 및 국가 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 및 국유 자원의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99년 12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다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는 분야로는 국방, 석유, 철광석, 기타 천연자원 개발 및 기초 석유 공업, 은행, 보험, 리스업, 전문 용역업(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보안 및 경비업, 방송, 스페인어 출판업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합작비율 20%까지)만이 허용된다.

2006년 3월 30일 주재국 국회는 에너지 석유부가 제출한 합작회사 관련 규정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20년 기간으로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되, 회사 지분 60% 이상을 PDVSA(국영 석유 회사)가 소유하여 석유주권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바. 투자법 개요

'99년초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국내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 새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각 산업 관련 법령, 예를 들어 가스 관련 법령, 전기법, 통신법 등 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법령도 새로이 바뀌고 있으므로 현지 투자시 이와 같은 제반 법령을 같이 살펴 보아야 한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원 국유화를 추진중에 있다. 1976년 석유법에 따라 석유산업이 국유화되었으나 국영석유회사는 석유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실질 주도권을 다국적 기업에 모두 양도하고 형식적인 승인권만 가지게 된 상황으로 전략, 자국의 석유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다국적 기업의 사유물이 되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내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활동이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99년 신헌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01년 석유법 개정 및 '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 이어 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을 천명하였다.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 투자시 PDVSA의 참여 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중에 있다.

○ 베네수엘라의 투자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1월 공표된 법령 제727호(신외국인 투자법)
- 1992년 2월 공표된 법령 제2095호(상표, 특허, 로열티에 관한 개정)
- 1993년 11월 공표된 법령 제3228(은행법 개정)
- 1999년 10월 3일 공표된 법률 제 356호(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2일자 관보 특별판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 319호(전기서비스 법률/9월 21일자 관보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 296호(입찰법/10월 11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 318호(공공공사에 관한 법률/10월 25일자 관보 게재)
- 1999년 9월 12일 공표된 법률 제 310호(가스법/9월 23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 295호(광산법/9월 28일자 관보 특별 판에 게재)
- 2000년 3월 28일 공표된 법률 (금융에 관한법률/관보 36920)
- 2001년 10월 17일 공표된 법률(조세법/관보 37305호 게재)
- 2001년 11월 9일 공표된 법률 1546호(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
- 2006년 3월1일 공표된 법률(원유, 자원/로열티에 관한 개정)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대외 투자진출 통계

베네수엘라는 대외 투자 진출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의 개입이 없으며 따라서 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은 업체는 석유공사(PDVSA)로 미국, 유럽 등지에 정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 약간의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 아시아 투자는 PDVSA가 오리물전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일본에 세운 오리물전 판매 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대 베네수엘라 직접 투자액

(단위: 미\$)

	1월	2월	3월	한해 총 투자액
2004	55,152,372	46,986,386	24,415,759	126,554,517
2005	4,637,436	50,243,553	126,927,837	181,808,827

자료원: SIEX (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

주1) 연말 잔고를 기준으로 한 실적임. 석유, 석유 화학, 광물, 보험, 은행 투자는 제외

주2) 2006년 이후 통계는 집계 안됨

업종별 투자액

(단위: 미 달러)

2004년		
농림수산업	563,878	0.12
제조업	415,888,346	84.54
전력	1,243,447	0.25
건설	1,152,037	0.23
광산 개발	12,738	0.00
상업	14,374,437	2.92
운수, 창고	1,595,168	0.33
사회서비스	1,938,064	0.4
기타서비스	55,165,203	11.21
계	491,933,322	100%

자료원: 상동

주: 2006년 집계 안됨

2005년		
농림수산업	254,974.30	0.03
제조업	462,633,313.44	50.58
전력	1,475,115.63	0.16
건설	3,286,024.31	0.36
광산 개발	184,366.69	0.02
상업	6,719,372.22	0.73
운수, 창고	390,816,678.94	42.73
사회서비스	181,823.66	0.02
기타서비스	49,070,976.18	5.37
계	914,622,645.37	100%

자료원 : SIEX(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

주) 2006년 집계 안됨

국가 별 대 베네수엘라 투자액

(단위: USD)

연번	국가	2003년	2004년	2005년
1	독일	9,817,743.75	10,540,869.86	3,217,538.88
2	아르헨티나	139,821.08	9,429.91	110,590.40
3	아루바	5,620.00	0	499,960.00
4	오스트레일리아	60,049.59	0	0
5	오스트리아	205,175.46	0	0
6	바하마	1,434,180.66	3,197,654.93	3,321,125.64
7	바베이도스	0	250.00	204,000.00
8	룩셈부르크	9,744,726.32	1,537,759.29	867,781.43
9	베르무다스	931,643.64	15,046,033.83	1,052.97
10	브라질	120,955.00	1,752,925.93	99,984.85
11	까이만	11,960,658.17	0	400,240,143.32
12	캐나다	39,346.57	1,754,446.59	5,220.86
13	칠레	899,951.15	129,966.00	2,739.91
14	중국	11,352.69	0	0
15	콜롬비아	17,672,451.14	21,332,332.23	3,913,798.21
16	한국	10,752.69	14,553.73	0
17	코스타리카	1,764,011.05	0	915.23
18	쿠바	32,004.86	0	4,662.88
19	쿠라사오	691,095.86	4,142,152.72	6,524.31
20	디나마르카	0	1,950,727.85	1,046,063.28
21	에콰도르	0	98.00	496,282.32
22	미국	995,892,510.72	173,945,476.73	368,636,341.68
23	슬로바키아	0	0	310.82
연번	국가	2003년	2004년	2005년
24	스페인	11,158,029.67	20,836,923.58	30,601,778.53
25	필리핀	0	0	9,607.34
26	프랑스	16,037,271.90	50,231,384.28	6,777,329.44
27	홍콩	18,634.99	0	0
28	인도	0	1,000.00	0
29	이스라엘	0	391.61	0
30	이란	0	0	104,913.96
31	이탈리아	814,634.22	831,868.41	6,512.75
32	일본	9,089,249.91	0	50,718,380.64
33	레바논	35,973.80	0	0
34	모리시어스	2,109.22	0	0
35	말타	0	272,702.32	0
36	리베리아	0	0	2,681.88
37	멕시코	98,302.28	399,130.62	259,721.07
38	노르웨이	12,898.60	0	0
39	네덜란드	50,520,253.42	2,343,134.57	25,604,975.39
40	파나마	21,257,032.90	3,897,010.65	10,989,482.26
41	페루	90,607.34	2,834,676.99	19,376.82
42	포르투갈	0	265,084.60	194.00
43	리히스타인	0	3,426,809.84	0
44	푸에르토리코	499,984.61	987,261.14	0
45	영국	2,625,256.45	1,694,660.90	2,806,760.63
46	도미니카공화국	0	33.93	0
47	루마니아	0	0	10,400.00
48	스위스	3,368,974.53	157,104,799.57	1,327,280.15
49	스웨덴	0	1,243,447.13	0
50	우루과이	2,804,463.89	1,283,351.72	52,139.89
51	버진아일랜드	4,372,350.06	8,924,972.97	2,402,143.67
	합계	1,174,240,078.19	491,933,322.43	914,622,645.37

자료원: 베네수엘라 투자청(SIEX) / 주) 2006년 집계 안됨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현황

가장 규모가 큰 건으로는 지난 '97년 포항제철이 철강 원료인 HBI 생산을 위하여 합작법인(POSVEN / Posco Venezuela) 설립 건으로, '97년 5월 Puerto Ordaz에 공장 착공, 2000년 6월 완공하였다. 우리 기업이 75%의 지분을 소유하며(포철 40%, 포스틸·포스코 개발·동부 각 10%, 현대 5%), 미국 및 멕시코 기업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철수하였으며 현재 2007년 10월까지 한국투자기업은 없다.

기타 제조업으로 평화산업에서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못 생산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2000년 들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우자동차는 제조업은 아니나, 판매 법인으로 투자하였다가 2002년 대우가 포드에 매각되며 인수되었다.

'00년 및 '01년도, '05년도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액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비철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조립 등 분야에 4억 4천만 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볼 때 우리 나라도 상품 위주의 수출에 한계가 올 것에 대비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 및 자원 개발과 연계된 기간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진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이 될 주요 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탄화가스), 석탄, 철광석, 커피, 열대과일 등이 있다.

나. 기업 투자동향

주재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사가 지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였다. 대우전자의 경우 파나마 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 파나마에서 관리하는 지사를 주재국에 세워 현재 지사형태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3개사가 있다.

한국기업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는 법인이 아닌 지점과 같은 형태로 진출하고 있고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는 인근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편이다.

시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 부진요인은 강력한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자원의 국유화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베네수엘라의 외자법은 ANCOM(안데안공동시장) 공통외자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90년초 정부가 신 외국인 투자법(대통령령 제727호)을 발표한 이후 이윤의 송금, 재투자 자유화, 로열티 지급한도 폐지 등을 통하여 국내 자본 부족에 따른 투자 자원 확보, 선진기술 도입, 고용 및 외화 획득 증대를 목표로 한 외자 장려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92년 3월에는 신 외국인 투자법(대통령령 제2095호)을 통해 외자 도입의 무제한 허용, 외자허가제 폐지, 이윤 송금, 재투자에 대한 제한 폐지, 특허권, 기술 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 ANCOM 가맹국의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등 대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91년 5월 1일부로 실시된 노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간 노동 시간이 종전의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고 야간 노동 시간대의 경우 임금 가산률이 높아지는 등 노동자 보호 입법이 강화되었고, '91년 9월 1일부로 조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양면으로의 움직임이 혼재한 상황이다.

'99년 초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이 국내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령이 새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각 산업 관련 법령, 예를 들어 가스 관련 법령, 전기법, 통신법 등 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법령도 새로이 바뀌고 있으므로 현 지 투자 시 이와 같은 제반 법령을 같이 살펴 보아야 한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soberanía nacional)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원 국유화(auténtica nacionalización)를 추진 중에 있다. 1976년 석유법에 따라 석유산업이 국유화되었으나, 90년대 석유산업 개방화 이후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석유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실질 주도권을 다국적 기업에 모두 양도하고 형식적인 승인권만 가지게 된 상황으로 전략, 자국의 석유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다국적 기업의 사유물이 되었다(privatización)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내 다국적 기업의 영업 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활동이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99년 신헌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01년 석유법 개정 및 '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 이어 '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을 천명하였다. 개정 석유법을 통해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투자시 PDVSA의 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 중에 있다.

베네수엘라의 투자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1월 공표된 법령 제727호(신외국인 투자법)
- 1992년 2월 공표된 법령 제2095호(상표, 특허, 로열티에 관한 개정)
- 1993년 11월 공표된 법령 제3228(은행법 개정)
- 1999년 10월 3일 공표된 법률 제 356호(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2일자 관보 특별판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 319호(전기 서비스 법률/9월 21일자 관보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 296호(입찰법/10월 11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 318호(공공 공사에 관한 법률/10월 25일자 관보 게재)
- 1999년 9월 12일 공표된 법률 제 310호(가스법/9월 23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 295호(광산법/9월 28일자 관보 특별 판에 게재)
- 2000년 3월 28일 공표된 법률 (금융에 관한법률/관보 36920)
- 2001년 10월 17일 공표된 법률(조세법/관보 37305호 게재)
- 2001년 11월 9일 공표된 법률 1546호(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
- 2006년 3월 1일 공표된 법률(원유, 자원/로열티에 관한 개정)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베네수엘라는 1992. 3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 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아래의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 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에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법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 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99년 12월 개정된 헌법은 특히 자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석유의 경우 외국업체와의 합작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발권을 주던 개발 양허제는 금지가 되었다.

현재 2006년 3월 1일부로 원유를 포함한 국가 모든 자원의 국유화 선언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실제적으로 억제력을 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외국인은 다음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TV, 라디오 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 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
- 석유, 철광 등 자원개발 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투자가능

다.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우선 베네수엘라의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및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제한 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 감면, 금융지원, 특정 부문 또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 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산업의 하청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필히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품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인근 안데안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가시화하고 있어 인근 국가로부터의 부품 및 자재수입도 무관세로 조달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 허가 기준으로 고용증대, 수입 대체 및 수출 촉진, 고도의 기술 여부, 경영권, MARKETING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부문, 유통업 부문, 전문 서비스 부문, 석유 철강 개발부문, 금융 부문, 보험 부문 등은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요

1992.3월 개정된 대통령령 2095호(외국인 투자법)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 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의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 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 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대외차입의 경우 사전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 없다.

나. 현지법인 설립절차

사전에 현지 변호사로 하여금 법인 설립을 대행하게 함이 바람직하며,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일정치 않으므로 가격 및 서비스 비교를 위해 2~3명의 변호사를 면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Registro Mercantil)

- 사업자 등록소에서 신청 양식을 구득한 후, 회사 이름 3개를 선정, 신청 양식과 함께 사업자 등록소에 제출한다.
 - 등록소에서 동일한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회사 이름 선택
- 정관 작성 및 제출
 - 회사 이름 및 주소, 사업종류, 설립 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 그리고 주주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 제출한다.
- 사업자 등록시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등록시 납입 자본금(paid-in capital)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납세자등록

- 사업자 등록 후 재무부 산하 국세청(Seniat)에서 납세자 등록(RIF 및 NIT)신청을 해야 한다.
 - RIF(Registro de Informacion Fiscal): 소득세 납세자 등록번호
 - NIT(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판매세 납세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 후 은행구좌를 개설함이 바람직하며, 구좌개설을 위해서는 보통 사업자 등록서(Registro Mercantil) 사본 1부 및 minimum deposit(은행마다 다름)이 필요하다.

3) SIEX 등록

- 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내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 절차
 - 외환의 국내 반입 증명서류 또는 투자자의 납입 자본금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재화 반입 증명서(증명 서류는 bank statement 이거나 장비, 기계 등 재화 형태의 실물 투자를 입증하는 statement)
 - 회사 정관: 투자자 본국 주재 베네수엘라 영사의 공증을 받은 스페인어 번역본
 -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대표자(변호사)에 발행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설립 회사의 "외국인 회사(Foreign Company)" 분류 신청서
 - 외국인 투자 지분 크기에 따라 국내 회사, 혼성 회사, 외국인 회사로 분류됨.
- 회사 설립 후 동 사실을 사업자 등록서 및 회사 정관과 함께 반드시 대중 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소요 기간: 보통 3주-6주간 소요

4)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법인

- BENTATA ABOGADOS
 - 주소: TORRE LAS MERCEDES, PISO 2,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993-9004/992-0720
 - FAX:(58-212)992-6609/992-6676
 - EMAIL: lawyers@bentata.com
 - Home page: www.bentata.com
- RODRIGUEZ & MENDOZA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PARQUE CRISTAL, TORRE ESTE, PISO11,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285-4944
 - FAX: (58-212)285-1379/284-4665
- TINOCO, TRAVIESO PLANCHART & NUNEZ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COUNTRY CLUB, PISO1,2,3, CHACAIT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2-9033/953-9033
 - FAX:(58-212)953-1053/8365
 - EMAIL: ttpn@ttpn.com.ve
- TORRES, PLAZ & ARAUJO
 - 주소: EDIF. POLAR, TORRE OESTE, PASEO COLON, URB. LOS CAOPOS, PISO 17, PLAZA VENEZUELA,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709-5311
 - FAX:(58-212)709-5300/5301
- DERECHO: FORMA Y FONDO
 - 주소: AV. LA ESTANCIA, CCCT PISO1, OFI. C-107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959-8308/3645
 - FAX:(58-212)959-2684/2805
 - 회계법인 겸무

다. 회계 법인

- BAEZ, DASILVA & ASOCIADOS
 - 주소: CENTRO LIDO PISO 13, OFI. 131-A,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953-5222
 - FAX:(58-212)954-0069
- C.A. URBAEZ-RIVERO-GONZALEZ Y ASOCIADOS
 - 주소: AV. VENEZUELA CON CALLE CARONI, EDIF. EL PAISA, PISO 3, URBANIZACION BELLO MONTE, PARROQUIA EL RECREO, CARACAS, VENEZUEL
 - 전화:(58-212)952-6305/5692
 - FAX:(58-212)952-5692
 - EMAIL: caurga@telcel.net.ve
- DELOITTE Y TOUCHE
 - 주소: MULTICENTRO EMPRESARIAL, LOS PALOS GRANDES, AV. ANDRES BRILLO, COM 1RA TRANSV.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278-1211
 - FAX:(58-212)285-6960
- PEREZ- MENA, EVERTS LARIA, TORRES & ASOCIADOS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MENE GRANDE, PISO 2,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209-4011
 - FAX:(58-212)285-0386/209-4381
 - EMAIL: pmeasoc@ccs.internet.ve

라. 공장 설립

1) 공장 부지의 선정

공장 부지는 제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물색한다. 농산물 가공인 경우에는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한 곳, 소지재인 경우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처에 인접한 곳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장에 대한 혜택이 지방 자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시정부를 접촉하여 마땅한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와 카라카스 외고가 고속도로 부근, 또 각 지방 자체 단체마다 규정된 환경 보호 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문제가 없다.

2) 공장 건축

공장 건축 허가는 시청에서 얻을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에는 공장 부지의 위치, 건축 계획, 전기, 용수 및 하수 서비스 가용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장 건축 허가는 제출 후 30일 내에 발급되며, 30일 이내에 아무 회신인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 건축이 끝나면 역시 시청으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 검사는 건축 허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준공 검사를 받고 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시청에서 담당하며 동 검사에는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 토지사용 허가서, 건물 용도 설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 소방 당국에 신청하며, 건물의 소방안전 시스템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6년부터 모든 공장 건축 시 소방관련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상당한 벌금과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마. 투자방식

대 베네수엘라 투자방식은 국가간 경제 협정을 통한 국제 입찰, 프로젝트 수주나 법인 설립을 통한 개별 프로젝트 참여가 있다.

현재 한국과의 어떠한 경제 협정도 맺고 있지 않아 정부 발주 대형 프로젝트의 참여가 없는 관계로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경제협정 체결이 시급하다.

주재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사가 지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2000.6월-2004.4월: 포항제철 투자기업 POSVEN 매각, 이후 한국의 투자기업이 없음)

6.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 구역

특별 경제구역으로 마가리따 자유무역지대 (NUEVA ESPARTA 주(state)의 섬)를 들 수 있다. 모든 상품에 대한 11%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역이다.

마가리따 자유무역지대 지도



- 수도: LA ASUNCION
- 연중기온: 27 °C
- 인구: 385,000명
- 면적: 1,150Km²

치안은 양호하며 주요 경제 활동으로는 관광업, 상업, 자동차 및 건축 산업 등이 활발하다. PORLAMAR, PAMPATAR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쇼핑몰이 운집해 있어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나. 산업단지/VALENCIA 및 JOSE 공단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으로는 CARABOBO주의 VALENCIA를 들 수 있다. 카라카스에서 약 200km 떨어진 VALENCIA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항구인 PUERTO CABELLO를 인근에 두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발렌시아에는 여러 개의 공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석유,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종류의 공장들이 입주해 있다. 한편, 카라카스 동부의 PUERTO LA CRUZ 항구 인근에 JOSE 공단이 조성되어있는데, 동 공단은 주로 석유 화학 관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입지 선정 시 최우선 되어야 할 점은 제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물색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인 경우에는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한 곳, 소비재인 경우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처에 인접한 곳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장에 대한 혜택이 지방 자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 정부나 시 정부를 접촉하여 마땅한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와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또 각 지방 자체 단체마다 규정된 환경 보호 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 주도 하에 카라카스 인근 지역에 철도가 신설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Valle del Tuy, Charallave 지역이 주요 공장 부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7. 노무관리

가. 개요

베네수엘라는 비교적 실업률이 높은 국가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석유 수입이 많아 사회 복지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하기보다는 실업 수당을 받고 노는 편을 선호 하기 때문이었다. '90년대 이후 경제가 계속 퇴락하면서 실업 수당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침체로 일자리가 늘지 않아 실질 실업률이 20-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실업수당이 없어지고 최저 임금을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증대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2002~2003년의 정치적 문제와 파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위축되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인하여 정부는 석유 수출 대금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 의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력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못하다. 업무 시 지각율이 높고 공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며 직장에서의 이직률이 높아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노동자나 전문경영자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업률은 1주일간 보수를 목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취업자로 분류 하는 ILO 방식의 폭넓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경제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8% 대의 공식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단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업률	13.25	15.85	18.00	15.25	8.9	8.4
정규직	50.1	48.6	47.3	51.4	52.7	55.5
비정규직	49.9	51.4	52.7	48.6	47.3	44.5

자료원: 노동부

나. 임금 수준

법정 최저임금율의 변화는 인플레이션, 통화량, 외환 등과 같이 금융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정치적인 변수도 함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997년도에 임금이 BS 15,000.00에서 5배인 BS 75,000.00로 수직 상승한 것은 수년 동안 동결되다시피한 임금을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가 쟁취해낸 것으로, 같은 해에 노동법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비교적 합리적인 인상율을 지켜왔으나 서민, 빈민을 대표하는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부터 매년 대폭 상승, 2006년의 최저임금은 BS 512,325.00이다.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자료원: 노동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최저임금의 세부 내용(환율기준: US\$1.00=BS2,150.00)

(단위: BS)

분야별 법정 최저임금	변경시기 및 금액		
	06.2.1	06.5.1	06.9.1
도시근로자	465,750.00 (US\$216.62)	465,750.00 (US\$216.62)	512,325.00 (US\$238.29)
20인 미만의 사업자 근로자	426,917.72 US\$(198.57)	465,750.00 (US\$216.62)	512,325.00 (US\$238.29)
농촌근로자	465,750.00	465,750.00	512,325.00
견습생	349,296.29	349,296.29	384,225.91
일용잡수	465,750.000	465,750.000	512,325.00

자료: 노동부

다. 근로 조건

노동 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주당 최대 44시간, 야간 근무자는 주당 최대 40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주당 42시간이다.

이익 분배금(utilidades)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매년말에 당해년도 순이익금의 15%를 근로자에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근로자들에 배당되는 이익금 분배액은 기존에 체결된 노사간 단체 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저 15일 임금액에서 최고 4개월간 임금액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 분배금은 통상 강제지급의 연말 보너스 개념으로, 공무원도 1~3개월 분의 이익 분배금을 지급한다.

휴가 보너스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불하며, 휴가 제도의 경우, 1년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매 1년의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1일씩의 유급 휴가가 추가되나 추가 일수는 15일을 최대 한도로 하여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2주의 출산 휴가가 지급되며 출산 후 1년간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복리 후생

복리후생제도로써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노동자용 식당을 구비하여 점심을 제공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주택자금 확보를 위해 노동자가 월 급여의 1%, 사용자가 2%씩 부담하여 주택은행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택제도는 주로 국영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는 회사가 기본급의 11%, 근로자가 4%를 부담하며, 고용보험으로 회사가 기본급의 1.7%, 근로자가 0.5%를 부담한다.

한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교통비와 식사 보조비를 제공해야하나 식당을 갖추고 급식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경우 식사 보조비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05 현재 식사보조비 대신으로 모든 공사기업은 음식물을 살수 있는 Ticket을 의무적으로 발부한다. 또한 노동자의 교육의무사항으로서 사용자는 10명 이상을 고용 할 때 총 인원의 5% 이상을 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국립 직원훈련원에 위탁, 교육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체는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해 초등학교 및 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마. 해고절차와 조건

종업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는 1주일전에, 6개월 이상 근무자는 15일 전에, 1년이상 근무자는 1개월전에, 5년 이상 근무자는 2개월전에, 10년이상 근무자는 3개월전에,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사전 해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제 해고인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2주일 전, 6개월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전,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는 2개월 전, 5년이상 근무자는 3개월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해직수당(퇴직금)의 경우, 1997년 6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입사 1차년도 퇴직금은 임금의 45일분, 2차년도 퇴직금은 임금의 60일, 이후 매1년마다 2일씩 30일분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즉, 최대 9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동 금액은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회사나 연금재단에 예치시키되 퇴직 시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JUST CLAUSE)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전술한 해직수당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해고사유로는 3일 연속 무단결근, 직무 태만 및 고의적인 기물 파손 등을 들 수 있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종업원은 노동법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결시 해고직원을 복직시키거나 정상적인 해직수당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실시 구두로 경고하기 보다는 문서로 사유서를 그때그때 작성해 두는 것이 노동법정 분쟁시 회사측에 매우 유리하다.

바. 외국인 고용

'95년 5월 1일부로 개정된 신 노동법의 현지인 의무고용 관련 조항에 따르면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과거 75%) 이상을 베네수엘라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과거 75%) 이상을 베네수엘라인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 노조 결성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전체 노동자의 50% 가량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10인 이상이면 노조결성이 가능하다. 또한 30인 이상이면 전국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부와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전국노조연맹은 임금, 노동자 복지 등을 대통령이나 전경련과 협의할 정도로 그 세력이 강하다. 노사협상은 연 2회 정도인데, 노동자들은 주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특히 주 산업인 석유 노조와 건설 노조의 활동이 강하며, 공무원, 교원도 노조가 있어 종종 파업을 일으키곤 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기존의 노조가 부패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파업으로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노조연맹의 해체와 새로운 노조 결성을 시도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00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노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2001년 9월에 새로운 전국 노조를 구성하였으나 일반 노동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너무 정치화되었다. 그 후 정치혼란을 겪어 왔으며 2007년 현재, 전국 노조는 친차베스파이며, 대통령은 이들을 위해 여러 복지혜택을 실시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을 입법화하고 있다. 노조활동이 기업주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어 기업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다.

8. 조세제도

가. 조세 개요

베네수엘라에서 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SENIAT)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로, 관세와 함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자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나. 법인의 소득세

법인 소득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과 세 소 득	세 율	누진 공제율
0 ~ 2,000 T.U.	15%	0
2,000 ~ 3,000 T.U.	22%	140T.U.
3,000 ~	34%	500T.U.

주 : T.U.(tax unit) : 1 T.U.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년 조정됨.
2007년 3월 현재 1T.U.= 33,600볼리바르

- 양도 소득세: 지방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양도에 대하여 1%의 세율이 적용된다.
- 지정 이익세: 지정과 베네수엘라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베네수엘라 법인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베네수엘라 납세자가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에 납부한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가 없으며, 베네수엘라 과세소득으로부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 또한 없다.

법인의 소득세는 회사의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제출된 연간 소득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

과 세 소 득	세 율	
	세 율	누진공제
T.U. 0 - 1,000	6 %	T.U. 0
1,000 - 1,500	9 %	90
1,500 - 2,000	12 %	135
2,000 - 2,500	16 %	215
2,500 - 3,000	20 %	315
3,000 - 4,000	24 %	435
4,000 - 6,000	29 %	635
6,000 -	34 %	935

- 세율: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 소득은 소득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봉급과 특별수당 같은 기타 유형의 보상은 원천 징수의 대상이다.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 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다음의 인적 공제가 허용된다.
 - 납세자: 10 T.U.
 - 배우자와 거주자인 각 부양 가족: 10 T.U.

-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법인의 소득세와 동일하게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없다. 과세 기간은 주요 소득이 급료와 임금, 전문가 보수, 사용료, 이자, 기타 소득으로 이루어진 개인은 역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주요 소득이 상업·산업활동, 농업, 가축 사육과 어업, 광업 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른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과세 년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80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자를 말한다. 전 과세 년도의 거주자는 현 과세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180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도 조세 목적상 거주자로 남는다.
- 원천징수세율: 다음의 균일세율이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베네수엘라에서 획득한 소득에 적용된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급료와 기타 보상: 34%
 - 베네수엘라에서 제공된 비상업적 전문 용역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과세소득은 총 수입의 90%): 34%
 - 비거주자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소득(과세소득은 베네수엘라 원천으로부터의 순 수령액의 30%): 10%

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은 '99년 5월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99.6.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사치, 도매세 (ISVR: 16.5%)와 고가사치품에 대해 적용되던 10-20%의 특별소비세는 폐지되고 부가세로 통일되었다.

-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8~16.5%의 범위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한데, 최초 15.5%에서 2000년 8월부터 14.5%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후 2002년 16%로 상향된 바 이어 2004년 9월 15%, 2005년 9월 1일 관보를 통해 현재 14%로 하향 되었다. 그러나 30,000US\$ 이상의 고급 자가용이나 500cc 이상의 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 등의 수입품 판매에는 24%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다.
- 최근 차베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막기 위해 2007년 3월 1일부터 현 14%의 부가가치세를 11%로, 7월 1일부터 9%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면세 대상 품목: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 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 기자재, 공공 보건 및 의료 기자재, 상하수도, 전기 등은 과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해서는 전면 면제로 변경되었다.

마. 금융 거래세

베네수엘라는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99년 5월 14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융 거래세를 적용했었다. 금융 거래세의 세율은 0.5%로 당좌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 각종 유동성자금 및 신탁예금 계좌로부터의 자금 인출, 제 3자에 의한 각종 환어음, 약속 어음,

신용장 등의 현금결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투자의 회수, 청산, 양도 결제 및 금융 기관의 대출, 은행간 대출, 은행 보증수표의 결제, 이자 지급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 활동에 부과되었다. 은행 및 상공인의 반발로 2000년 5월 폐지되었으나 정부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하여 다시 2002년부터 부활한 제도이다. 동 법은 2007년 현재까지 폐지한 상태이지만 언제 다시 부활될지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달려있다.

바. 법인 자산세

소득세와 동일한 회계년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상업 활동에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에 소재한 유형·무형자산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최소 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조정된 유형·무형 자산가액의 순 평균액이다. 논란 가운데 국세청이 자산세를 2002년부터 1.7%로 인상하였다

사. 지방자치 면허세

지방자치 면허세는 베네수엘라 자치도시 영토 관할 안에서 상업적, 산업적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과된다. 매년 신고에 의하여 보고된 회사의 총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사업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세율표에 의하여 자치당국에서 정한다.

세율은 0.25~10%로 자치 단체에 따라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0.5% 또는 그 이하이다. 자치당국에 따라서는 정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아. 천연자원세

국영석유산업에는 개발세와 기타 조세가 부과된다. 광업운영은 보통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특정 품목을 채광하는데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조세가 부과된다.

자. 토지와 재산세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르나, 부동산 세금은 비교적 소액이다. 가격이 Bs 500,000이상의 부동산 양도인 경우, 양도가액에 대하여 1%의 부동산 양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차. 자본세

완전히 응모된 수권자본은 1/1,000의 비율로 과세된다. 자본세는 등록에 대하여 부과되며, 베네수엘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제도

베네수엘라는 2003년 2월 6일부로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정부 공식 환율은 1USD = BS2,150.00 볼리바르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2월 5일 밤 외환 규정 1호 및 2호를 통해 발표한 외환 통제는 2003 12월 2일부터 실시된 총파업으로 인해 석유 생산이 중단 되고 외환 도피가 급증, 볼리바르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외환 통제 하에서 개인을 포함한 기업은 외환의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및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외환관리제도는 현재까지 유효하며 불법외환거래는 엄격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외환규정 1호

- 베네수엘라에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BCV/Banco Central de Venezuela)에 집중하며 중앙은행은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
- 외환 통제 관련 법규의 구체적 운용은 5인으로 구성된 외환운영위원회(Cadivi/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에서 담당
- Cadivi는 외환의 신청, 등록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며 부정의 증거가 있을 시 절차 중단
- 중앙은행은 필요 시 정부와 협의, 환율조정 가능하며 가용외환 확보 시에만 외환 판매
-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
- 관련 법령 발표 시까지 외환표시 외채증서(일명 Brady 증권)의 매입매각 금지
- 정부 명의로 체결된 국제규약 및 계약은 신규 외환법령의 우선적 적용 대상
- 공공기관의 채무지급 및 긴급 식품/보건 관련물품 구입용 외환은 Cadivi 절차 없이 중앙 은행이 직접 외환 배정
- 불법 외환거래 처벌을 위한 외환형사법(Ley Penal Cambiaria) 국회 상정

○ 외환규정 2호

- 정부와 중앙은행은 달러화 매입환율 U\$1=2,144Bs, 매각환율 U\$1=2,150Bs로 정함

나. 불법 외환 통제법(05,10,14) 요약

9월 5일 입법, 9월 14일 공포로 정부 Gaceta(관보) 38272호를 통해 10월 14일부로 입법화된 내용을 발효했다.

제 1조: 동법은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환전과 그에 상응하는 거래를 구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조: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Divisas: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써 동전,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화되는 서류, 유가증권 등 모든 것을 지칭함.
- ② Operador Cambiario: Divisas 수수, 송금 등 거래를 통하여 수수료 등의 이익을 수취하면서 중앙은행, 정부, 입법기관 등 베네수엘라 국가에 등록된 모든 기관 및 종사자
- ③ Autoridad Administrativa Competente Designada por el Ejecutivo Nacional en Materia Cambiaria: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지정된 합법적인 외환거래기관으로 국가는 Cadivi(La 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를 동 기관으로 지정함.

제 3조: 동법은 자연인, 법인 등 모든 거래 당사자를 구속하며 동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지시자, 보조자, 해당 법인 등 관련 인사 모두가 적용된다.

제 4조: 자연인, 법인 등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있는 동안 미화 10,000불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외환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동 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 받는 경우는 18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며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허용된 기관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는 동법에 외국인이라도 적용을 받는다.)

제 5조: 재화가 아닌 자산, 서비스 등 거래라도 미화 10,000불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 개시 후 15일 전까지 신고가 유효하며 그 이후의 거래는 불법으로서 당사자는 동법을 적용 받는다.

- 제외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국가, 국가가 지정한 기관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거래
 - 탄화수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직법에 의해 지정된 회사

제 6조: 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미화 10,000~20,000불까지 허가 받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경우 베네수엘라 화폐(Bs, 볼리바르)로 거래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가하며 미화 20,001불 이상 거래 시에는 2~6년까지 징역형과 합법적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제 7조: 사기, 부정에 의한 거래, 위조 등을 통해 외환을 환전하는 경우 3~7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며 거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기, 부정, 위조 등을 통해 거래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무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감형한다.

제 8조: 거래자가 합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고 자기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3~7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조: 통상적인 불법 환전행위가 아닌 전자 거래, 환치기, 3국간 거래, 카드를 통한 환전 등 불법 환전의 의지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벌금은 3배로 배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 10조: 공무원, 공직자 등이 불법 외환 거래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 11조: 동법의 발효와 동시에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있는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며 유죄로 판결날 경우 동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제 12조: 자연인, 법인, 개인기업, 공공기업 등은 중앙은행, 국세청, 은행감독원, 외국인 투자청, 보험 감독원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지시할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동법에 적시된 처벌 조항은 기본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규정하며 형법(刑法)에 따라 계산한다.

제 14조: 재화, 서비스, 자산 등 화폐로 환산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동법을 적용하며 적용받는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등 거래 관계자 모두를 지칭한다.

제 15조: 제 4, 5조의 의무인 외환 거래 행위의 신고를 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부정 신고, 서류 조작, 위조 등의 경우에도 거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조: 수출자가 중앙은행에 총액을 누락시키거나 일부만 신고하여 불법성이 발견된 경우도 동법을 적용, 거래 금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조: 베네수엘라 정부는 관계 기관을 정하여 부당 외환거래의 따른 제재, 벌금 부과 등을 행할 수 있으며 동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지정된 관계 기관의 행위는 정당하다.

제 18조: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은 외환거래의 합목적성과 불편부당함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 19조: 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심사는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구두 통보 또는 서면 제출시 개시된다.

제 20조: 외환 거래 위반이 복합성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관계 기관이 사안마다 또는 원인마다 심사하여 징계한다.

- 석유공사(PDVSA)의 모든 외환수입은 출처에 관련 없이 중앙은행에 매각
- 민간기업의 적법하게 등록된 수입 및 외채 지급용 외환은 Cadivi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
- 외교사절단에 대한 외환운영은 국제 관행에 준함

다. 외환 관리방침

지난 2월 6일부터 외환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외환 통제 실무기관인 외환 관리위원회(Cadivi)의 규칙 제1호를 통해 향후 적용될 수입용 외환 관리 방침을 밝혔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2월 7일 긴급 발표됨에 따라 향후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이 규칙은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중앙은행은 향후 수입용 외환 배정 계획을 작성, Cadivi에 통보하며 Cadivi는 이 계획에 따라 수입상의 수입용 외환 사용승인 신청을 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상은 승인일로부터 120일 내에 L/C개설부터 통관을 마쳐야 한다.

수입 대금 결제는 통관 완료 후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실제 수입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 중앙은행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외환을 배정받아 이뤄지게 된다. 통관 이전에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Cadiv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지화(Bs) 보증금도 예치해야 한다.

□ 이번 발표된 수입용 외환관리 규칙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 등록(Rusad/규칙 제1, 2조)

모든 수입자는 Cadivi에 ‘외환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Rusad/Registro de Usuarios del Sistema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을 하여야 수입용 외환을 사용할 수 있음. Rusad 신청은 Cadivi 지정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법인의 경우
 - 상업등기
 - 적법하게 등록된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및 현행 정관
 - 납세자 정보 등록증(RIF)
 - 법적 대표자 또는 관재인의 신분증
 - 최근 3회의 소득세 신고서
 - 영업허가서
 - 최근 3회의 수입 신고서
 - 최근 3회의 부가세 신고서
 - 최근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최근 INCE(직업훈련학교)세 납부증명서
 - 최근 재산세 신고서
 - 지방세 신고서
- 자연인의 경우
 - 신분증 또는 여권
 - RIF
 - 최근 재산세 신고서
 - 최근 3회의 수입 신고서
 - 현행 법률에 따라 상기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관련서류가 적법하게 갖추어 졌을 경우 Cadivi는 수입자 등록증(Certificado de Registro de Importador)을 발급함. 이 등록증은 현행 외환제도 하에서 수입활동 수행에 필수적 요소임.

3)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 신청(제3, 4조)

Rusad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수입자는 Cadivi에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Importacion)을 신청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상기 신청은 매 수입별로 이뤄져야 함(제12조).)

- 신청서
- 구매주문서(Orden de Compra) 사본
- 견적송장(Factura Pro forma) 사본
 - 견적송장에는 운임, 보험, 수수료 및 기타 수입관련 비목이 분명하게 명기돼야 함.
- 보증서(Fianza) 원본
 -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선적 또는 서비스 계약체결 전에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사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주 수입품목이 아닌 특별품목 수입시에는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 신청"(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을 하여야 함(제5조).

4)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제6, 7, 8, 9조)

Cadivi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외환배정 계획,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기본지침 및 정책 등을 고려, 외환사용 승인 신청을 판단함.

- 보증서(Fianza)가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
- 수입자는 외환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수입 화물의 출발지에서 화물의 발송 또는 선적을 요청해서는 안되며 또한 서비스 구입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됨. 단,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화물은 예외임(관련규칙 제정 예정).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은 기명으로 하며 양도될 수 없음. 승인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함.

- 이 기간 내에 수입물품 통관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Cadivi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동 기간 연장 가능
- 외환사용 승인신청 명의인이 하수인(荷受人)이어야 함.
- L/C 개설도 외환 사용 승인 후에 가능

5) 수입물품 세관도착 통보(제18조)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해야 하며 Cadivi는 적절한 시기에 배정외환의 적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관련 절차는 향후 Cadivi 제정).

6) 통관서류 은행 제출(제19조)

수입물품의 통관 종료 후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된 통관관련 서류를 지정된 은행에 제출함.

-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수입비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첨부서류
- L/C 결제인 경우 L/C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 사본
- 신용거래인 경우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사본/공개계정(cuenta abierta)에 의한 수입인 경우 지급방법이 표시된 공급자 발행서류
- 기타 Cadivi가 경우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서류접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상기 서류의 사본을 원본과 대조 후 사본에 도장을 찍고 서류 접수자의 서명을 함.

7) 외환구입 수속 진행(제20조)

상기 서류의 접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외환 금액의 구입 수속을 진행함. (실제 사용할 금액 산정 시 수입자와 외국 공급자간 사전 협의된 기간 및 외환구입 승인서의 예상기간을 반영)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은행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접수서류를 Cadivi에 송부함. (접수서류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컴퓨터 자료도 동시 송부)

라. 기 타

1) At sight 결제 시 보증금 납부(제10조)

At sight 결제의 경우 수입자는 Cadivi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화물통관 이전에 외환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만큼 볼리바르(Bs)화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보증금은 수입자가

관련기관의 외환 적법사용 증명서(Certificado del Correcto Uso)를 받은후 환불됨.
(Cadivi는 보증금 제도의 운용을 위한 관련조건 및 법규를 제정)

의료, 문화,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의 예외 인정
(수입금액,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 기타 국익 차원에서 고려 가능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예외 여부를 결정)

2) 분할선적 등의 금지(제11조)

분할선적 및 수입화물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음. 단, 수입화물의 성질상 그러한 방식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전 Cadivi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재수출 또는 반송(제13조)

현행 외환규정에 의해 외환을 배정받아 내수용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개량 또는 변형
하지않고 재수출 또는 반송할 경우에는 향후 Cadivi가 제정할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함.

4) 하자 보상금의 매각(제14조)

현행 외환규정에 의해 배정받은 외환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발생한 하자 - 미 인도, 분실,
상실, 감소, 해손, 손상 등 - 로 인해 수입자가 보상받은 외환은 외환의 획득시점부터 은행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지정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지정 환율로 중앙 은행에 매각해야 함.

5) 수입물품 관련정보의 일치(제15조)

수입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외환사용 승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Cadivi는 외환사용 승인 취소, 외환지급 중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함.

6) 미사용 외환의 포기 신고(제16조)

물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위해서 사용된 외환이 외환사용 승인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입자는 나머지 미사용 금액에 대한 포기 신고서를 Cadivi에 제출해야 함. 은행이나 금융
기관은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하고 중앙은행에 대해 실제 수입에 사용된 금액만큼만
외환을 요청함. 동 금액은 본 규칙 19조에 명시된 수입자의 제출서류에 의해서 결정됨.

7) 내국 운송(제17조)

Cadivi는 수입물품의 내국 운송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8) 비상상황 발생시(제21조)

Cadivi는 본 규칙에서 예상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신청서"(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를 통해 외환사용을 신청하여야 함.

마. 과실송금

새로운 외환관리법령으로 인해 현지화의 달러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들에게만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외환을 허가하고 있다. 개인이 해외관광을 목적으로 외환획득이 필요할 시 정부의 허가 하에 매년 5,000US\$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부과하며 은행절차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는 현금은 연당 600US\$ 수준이다.

바. 현지 자금조달 방법

정식적으로 주재국의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재산, 기업 등의 신용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중인) 자금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금이 결정된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특성

1) 시장규모

인구 2,650만 명에 연간 수입액이 313억\$ 정도인 크지 않은 시장이다. 멕시코와 비교할 때 인구는 1/4 수준이나 무역액은 1/9에 불과하다. 이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빈곤층의 비율이 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매력을 가진 인구를 약 50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 색채의 정치적 변화와 차베스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금이 풍부해졌고 신흥 사회주의 부유층이 형성되며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2) 시장특성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강의 초중질유가 석유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세계 6위에서 1위의 석유 매장국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3위의 석유 수출국으로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심해 국제유가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전체 수출의 70%, 정부 재정의 60%, GDP의 30%에 달할 정도로 심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 변동할 때 연간 수입액이 10억\$ 차이가 난다.

미국 및 유럽에의 무역의존도가 심하다. 1900년대 초 석유 개발 시초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미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특히 마이애미와 가까워 소비재 상품의 경우 미국을 통한 소량 수입 및 판매가 일반화 되어 있다. 또한, 석유 수출로 부유하게 살던 습관이 남아 있어 선진국의 고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제품을 선호하여, 일본 제품도 최근에야 부각되었을 정도이다. 일부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베네수엘라는 통상 유통 마진이 큰 편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이 비싼 편이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만을 보고 수출 가격을 올렸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서민들을 위한 상품은 주로 중국과 미국의 재고품들이 수입된다.

기업들은 대부분이 독점 기업들이고, 손쉽게 장사를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박리다매 보다는 높은 마진에 소량 판매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마이애미에서 소량 수입을 하던 수입상들이 아시아로 눈을 돌려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기업인 석유공사(PDVSA), 전력청 등 많은 국영 기업과 정부 기관의 조달이 많다. 그러나 정부 조달의 경우 공고일부터 입찰 서류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2주일 정도이며, 대부분의 경우 외국업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PDVSA의 큰 프로젝트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제한 지명입찰을 하고 있어, 참여 경험이 없는 우리 업체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서명국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 특히, 수입의 경우 세관의 비효율과 부패, 밀수를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의 횡포가 심하다.

나. 유통구조

1) 유통 단계

통상 유통단계는 전통적으로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단계이나, 도매상이 배제되고 수입상이 직접 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근래에는 수입에 있어 소규모 판매상들도 직접 수입, 판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에이전트의 경우 커미션으로 통상 10% 정도를 요구한다. 유통 마진은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나 통상 CIF가격의 3.5~4배를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베네수엘라는 대형 유통업의 발달이 뒤진 관계로 2001년 초 매장규모가 불과 2,000~3,000평 규모의 백화점 2개(MAXY'S와 BECO) 정도만이 전국에 매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SAMBIL, BECO 백화점 등의 중산층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TIJERAZO, TRAKI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백화점, 그리고 백화점형태의 대형약국(FARMATODO, LOCATEL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백화점 형태보다는 쇼핑몰 형태가 오히려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카라카스 시내의 경우 과거 대표적인 쇼핑몰 CCCT가 있었으나, '99년 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SAMBIL이 생기어 젊은 층의 최대 쇼핑몰이 되었다.

카라카스의 경우 기존 구 시가지에 우리의 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재래식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서민들은 주로 이 곳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단위 쇼핑몰이나 신시가지의 상가 등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다국적 유통업체로는 네덜란드의 MACRO가 영업 중이며 콜롬비아와 프랑스 합작업체인 Exito가 2001년부터 카라카스에 매장을 개설하여 서민층의 주요 구매처가 되었다. 대규모 백화점이나 슈퍼 체인, 마크로 등의 할인매장들은 통상 직접 수입보다는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를 선호한다. 이는 대금 결제, 불량품 반품, 재고 처리 등에 있어 국내 수입상에게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2) 구매 시즌

연중 가장 소비량이 늘어나는 때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이다. 기업별로 100%~300% 가량의 보너스와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1년을 마무리하며 그 동안 번 돈을 소비하고 싶은 충동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월의 사육제 기간과 4월의 부활절 기간도 비교적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때는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며, 8월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인 까닭에 아동용품이나 아동복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3) 상권 현황

베네수엘라는 유럽에서 이주해 온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계들이 상권이나 제조업 등을 장악하고 있으며 유태계의 경우 섬유나 액세서리 분야에서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한 관계로 마이애미로부터 상당량의 물품이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며 사회주의국가들인 쿠바, 중국, 이란 등과 경제협력을 근거로 한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되며 상권은 유럽, 미국에서 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물가정보

□ 도시: 카라카스(베네수엘라)			- 환율(비공식) : US\$1 = BS4,9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 양복(1벌, 순모100%)	721	7.1	구두(1켤레, 소가죽)	82
1.2	넥타이(1개, 실크100%)	90	7.2	치약(150g, 1개)	1.13
1.3	와이셔츠(1벌, 면100%, 긴소매, 흰색, 현지브랜드)	53	7.3	칫솔(1개)	3.3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6	7.4	면도기(1세트)	6
1.5	코트(1벌, 긴코트, 추동)	211	7.5	건전지(1세트, 1.5V AA)	1.38
1.6	스타킹(1켤레, 밴드 타입, 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1.0
1.7	청바지(Levi's)	60	7.7	비누(1개)	0.8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5.2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3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7.0	8.2	볼펜(12개)	4
2.3	닭고기(1KG, 생닭)	2.4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2
2.4	쌀(1KG, Short Grain)	1.4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
2.5	밀가루(1KG)	0.6	8.5	휴대폰(범용형)	200
2.6	설탕(1KG, 백설탕)	0.3	8.6	휴대폰 사용료(1개월, 기본)	80
2.7	달걀(10개)	0.8	8.7	인터넷 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38
2.8	감자(1KG, 현지산)	1.0	8.8	인터넷 사용료(1개월, 기본)	99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5,000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L)	5.18
3.2	된장(1Kg)	없음	9.3	휘발유(1L)	0.04
3.3	라면(1개)	없음	9.4	자동차 등록비(2,000cc)	64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없음	9.5	자동차 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800
3.5	불고기(1인분, 200g)	없음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0.12
3.7	김치찌개(1인분)	12	10.2	시내버스(1구간)	0.22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3
4.1	햄버거(1개)	2.5	10.4	택시(추가요금/Km)	0.73
4.2	피자(1판)	12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37	11.1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57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95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7
4.5	담배(수입산, 1갑)	1.0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042
4.6	위스키(1병, 750ml)	33.5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042
4.7	커피(1병, 175g)	5.4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10.0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22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2,000	11.7	국제우편(일반 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5.37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0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8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2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2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1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33			
6.2	VTR(6헤드, 범용)	88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82			
6.4	전자레인지	7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7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750			

□ 도시: 카라카스(베네수엘라)			- 환율 : US\$1 = BS2,7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9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1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9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2,00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9%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1,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6,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26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7,000	18.6	연간국경일	12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5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5일
13.2	골프장 회원권(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40,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4시간
13.3	골프공(1타)	60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00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 최신)	4.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 Full Cover, 치과 제외)	1,5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8%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 초진)	80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 초진)	80			
14.4	치과(스켈링, 1회)	8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6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44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41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2.8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5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4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5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400			
17.3	가정부(월 급여)-최저임금	216			

3. 바이어 발굴

가. 정부기관 및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 수출입 업체 정보
- 외국인 투자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
 - 주소: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483-6666
 - FAX : (58-212) 484-4368
- 투자진흥 위원회(CONAPRI: Comision Nacio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 주소: AV. Francisco Miranda , Centro Emoresarial Parque del Este, piso 12, la Carlota, Caracas 1071, Venezuela
 - 전화: (58-212) 237-5007/5647
 - 팩스: (58-212) 237-6028/6109
 - 정부보조금과 민간경제단체 및 기업기금으로 운영되는 투자 유치
- 관세청(SENIA: 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 수출입 업체 정보
- 수출자 협회(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 자동차 제조 협회(FAVENPA: Camara de Fabricantes Venezolanos de productos Automotores)
 - 전화: (58-212)571-5091/3698,573-4121
 - 팩스: (58-212)573-4221
 - 자동차 제조, 조립업자 정보
- 자동차 수입 협회(CANIDRA)
 - 전화: (58-212)571-0265,573-7646
 - 팩스: (58-212)571-5898
 - 자동차 수입상 정보

나. 전시회 주최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자동차 액세서리, 부품 종합 박람회(Exposicion internacional de automoviles, Motos, Accesorios y Servicios)
 - 주최기관: ORGANIZACION EXPOCENTER
 - 전화: (58-212)959-4511/3211
 - 팩스: (58-212)959-3977
- 자동차 종합 박람회(Exposiociion internacional y Nacional del Automovil en Venezuela)
 - 주최기관: EXPOSICIONES ORTIZ, C.A.
 - 전화: (58-212)751-1355/1555
 - 팩스: (58-212)751-1122

다. 전화번호부 및 Yellow Pages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베네수엘라 자동차 명부(Directorio Automotor de Venezuela)
 - 전화: (58-212)751-1355/1755/1955
 - 팩스: (58-212)751-1122
 - 자동차, 부품 관련 수입상, 도매상, 소비상 전화번호부
- 전화번호부(CANTV-주재국 유선통신회사)
 - 전화: (58-212)596-0110/0121/0133/0203
 - 팩스: (58-212)562-0855
 - 업체 연락처 정보
- Total Guia(기업 총 명부)
 - 전화: (58-212)552-3287(팩스겸용)
 - 팩스: (58-212)552-3287
 - 홈페이지: www.totalguia.com(유료)
 - 기업의 모든 정보 수량: 제품, 제품취급형태, 설립 년도, 종업원수,



라. 정부기관, 국영기업

아래의 베네수엘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주소는 다음과 같으나, 정부 측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gov와 .gob를 .gob로 통함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Gobierno d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포털사이트: <http://www.gobiernoenlinea.ve>

- 농림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http://www.mat.gov.ve>
- 통신정보부 (Ministerio de Comunicacion e Informacion): <http://www.minci.gov.ve>
- 교육체육부 (Ministerio de Educacion y Deportes): <http://www.me.gov.ve>
- 문화부 (Ministerio de Estado para la Cultura): <http://conac.gov.ve>
- 인프라부 (Ministerio de Infraestructura): <http://www.infraestructura.gov.ve>
- 국방부 (Ministerio de la Defensa): <http://www.mindefensa.gov.ve>
- 환경자원부(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http://www.marn.gov.ve>
- 내무법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y Justicia): <http://www.mij.gov.ve>
- 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http://www.mintra.gov.ve>
- 국회 (Asamblea Nacional): <http://www.asambleanacional.gov.ve>
- 대법원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http://www.tsj.gov.ve>
- 감사원 (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http://www.cgr.gov.ve>
- 옴부즈맨 (Defensoria del Pueblo): <http://www.defensoria.gov.ve>
- 검찰청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http://www.fiscalia.gov.ve>
- 선거관리위원회 (Consejo Nacional Electoral): <http://www.cne.gov.ve>
- 생산상업부 (Ministerio de Produccion y Comercio): <http://www.mpc.gov.ve>
-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http://www.mre.gov.ve>
- 재무부 (Ministerio de Finanzas): <http://www.mf.gov.ve>
- 기획개발부 (Ministerio de Planificacion y Desarrollo): <http://www.mpd.gov.ve>
- 보건사회개발부 (Ministerio de Salud y Desarrollo Social): <http://www.msds.gov.ve>
- 과학기술부 (Ministerio de Ciencia y Tecnologia): <http://www.mct.gov.ve>
-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http://www.mem.gov.ve>
- 조세청(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http://www.seniat.gov.ve>
-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http://www.ine.gov.ve>
- 예산청 (Oficina Central de Presupuesto): <http://www.ocepre.gov.ve>
- 투자진흥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http://www.conapri.org>
- 정보통신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 <http://www.conatel.gov.ve>
- 공정거래청(Superintendencia para la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Libre competencia): <http://www.procompetencia.gov.ve>
- 석유공사 (Petroleos de Venezuela): <http://www.pdvsa.com.ve>
- 가이아나 공사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 <http://www.cvg.com>

마. 은행, 금융기관

-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Venezuela): <http://www.bcv.org.ve>
- 저축대부은행 (Banco Nacional de Ahorro y Prestamo): <http://www.banap.com>
- 산업은행 (Banco Industrial de Venezuela): <http://www.biv.com.ve>
- 연방은행 (Banco Federal): <http://www.bancofederal.com>
- 카나리아은행 (Banco Canarias de Venezuela): <http://www.bancocanarias.com>
- 볼리바르은행 (Bolívar Banco): <http://www.bolivar.com>
- 안데스개발은행 (Banfoandes): <http://www.banfoandes.com.ve>
- 델수르유니버설은행 (Del Sur Banco Universal): <http://www.delsur.com.ve>
- 신용은행 (Banco Venezolano de Credito): <http://www.venezolano.com>
- 연합은행 (Banco Confederado): <http://www.bancoconfederado.com>
- 엑스테리오르은행 (Banco Exterior): <http://www.bancoexterior.com>

- 가이아나은행 (Banco Guayana): <http://www.bancoguayana.net>
- 소피타사은행 (Banco Sofitasa): <http://www.sofitasa.com>
- 폰도코문유니버설은행 (Fondo Comun Banco Universal): <http://www.fondocomun.com>
- 신세계은행 (Banco Nuevo Mundo): <http://www.nmbc.com.ve>
- 토털은행 (Total Bank): www.totalbank.com.ve
- 프로빈셜은행 (Banco Provincial): <http://www.provincial.com>
- 베네수엘라은행 (Banco de Venezuela): <http://www.bancodevenezuela.com>
- 메르칸틸은행 (Banco Mercantil): <http://www.bancomercantil.com>
- 이탈캄비오 (Organizacion Italcambio/환전소): <http://www.italcambio.com>
- 카라카스 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de Caracas): <http://www.caracasstock.com>

바.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카라카스 상의 (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 <http://www.ccc.com.ve>
- 라과이라 상의(Camara de Comercio de La Guaira):
- <http://www.camaracomerciolag.org.ve>
- 발렌시아 상의(Camara de Comercio de Valencia)
- <http://www.camaracomerciovalencia.org.ve>
- 카라보보주 상의(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Carabobo):
- <http://www.ciec.org.ve>
- 파라과나 상의(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Paraguana / Falcon주)
- <http://www.cacoipar.com>
- 산안토니오 상의(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San Antonio/Tachira주)
- <http://www.ccipsa.org.ve>
- 볼리바르주 상의(Camara de Comercio del Estado Bolivar)
- <http://www.camaradecomerciobolivar.com>
- 아라과주 산업협회(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Aragua)
- <http://www.ciea.org.ve>
- 카라보보주 건축협회(Camara de la Construccion del Estado Carabobo)
- <http://www.ccec.org.ve>
- 경영자협회 (Fedecamaras)
- <http://www.fedecamaras.org.ve>
- 프랜차이즈협회 (Camara Venezolana de Franquicias)
- <http://www.profranquicias.com>

- 무선산업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de Radiodifusion)
 - <http://www.camradio.org>
- 전기산업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 <http://www.caveinel.org.ve>
- 부동산협회 (Camara de Bienes Raices)
 - <http://www.camaradebienesraices.com>
- [광업협회 \(Camara Minera de Venezuela\)](#)
 - <http://www.camiven.org.ve>
- 통신협회(Camara Nacional de Empresas de Telecomunicaciones):
 - <http://www.canaemte.org>
- 통신서비스협회(Camara Nacional de Empresas de Servicios de Telecomunicaciones)
 - [http:// www.casetel.org](http://www.casetel.org)
- [식품산업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de Alimentos\)](#)
 - <http://www.cavidea.org.ve>
- 자동차제조협회(Camara de Fabricantes Venezolanos de Productos Automotores)
 - [http:// favenpa.ven.org](http://favenpa.ven.org)
- 냉동공조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Ventilacion, Aire Acondicionado, Refrigeracion)
 - <http://www.venacor.com>
- [가스연합회\(Federacion de Empresas de Gas\)](#)
 - <http://www.fedemgas.com.ve>
- 상업서비스협회(Consejo Nacional del Comercio y Servicios):
 - <http://www.consecomercio.org.ve>
- [전자협회\(Camara Venezolana de Comercio Electronico\)](#):
 - <http://www.cavecom-e.org.ve>
- 수출자협회 (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 <http://www.ddex.com>
- 베-스페인 상의(Camara Venezolano Espanola de Industria y Comercio):
 - <http://www.cavespa. com/index2.htm>
- 베-이태리 상의 (Camara de Comercio Venezolano- Italiana)
 - <http://www.cavenit.com>
- 베-미국 상의 (Camara Venezolano-Americana)
 - <http://www.venamcham.org>

사. 언론기관

- El Universal : <http://www.eud.com>
- El Nacional : <http://www.el-nacional.com>
- Tal Cual : <http://www.talcualdigital.com>
- Ultimas Noticias : <http://www.ultimasnoticias.com.ve>
- El Mundo : <http://www.elmundo.com.ve>
- 2001 : <http://www.2001.com.ve>
- Meridiano : <http://www.meridiano.com.ve>
- El Diario de Caracas : <http://www.eldiariodecaracas.net>
- Vea : <http://www.diariovea.com>
- La Religion : <http://www.iglesia.org.ve>
- Reporte de la Economia : <http://www.reporte.com.ve>
- Panorama : <http://www.panodi.com>
- La Verdad : <http://www.laverdad.com>
- El Carabobeno : <http://www.el-carabobeno.com>
- Notitarde : <http://www.notitarde.com>
- El Impulso : <http://www.elimpulso.com>
- Nueva Prensa : <http://www.nuevaprensa.com.ve>
- El Siglo : <http://www.elsiglo.com.ve>
- El Aragueno : <http://www.el-aragueno.com>
- El Progreso : <http://www.diarioelprogreso.com>
- La Nacion : <http://www.lanacion.com.ve>
- El Norte : <http://www.elnorte.com.ve>
- El Oriental : <http://www.elorientalonline.com>
- La Prensa de Monagas : <http://www.laprensa.com.ve>
- Frontera : <http://www.diariofrontera.com>
- Cambio de Siglo : <http://www.cambiodesiglo.net>
- La Voz : <http://www.diariolavoz.net>
- El Tiempo : <http://www.diarioeltiempo.com.ve>
- La Hora : <http://www.lahora.com>
- El Tiempo : <http://www.eltiempo.com.ve>
- Ultima Hora : <http://www.ultimahoradigital.com>
- Impacto : <http://www.diarioimpacto.com.ve>
- Yaracuy al Dia: <http://www.yaracuyaldia.net>
- Las Noticias de Cojedes : <http://www.lasnoticiasdecojedes.com>

아. 포털 사이트

- <http://www.computrabajo.com>
- <http://www.auyantepui.com>
- <http://www.google.com.ve>

자. 기 타

- 옐로우페이지 (Caveguias): <http://www.caveguias.com.ve>
- 관광안내사이트 (Venezuela Turistica): <http://www.venezuelaturistica.com>
- 관광안내사이트 (Turismo Venezolano): <http://turismovenezolano.com>
- 경매: <http://www.DeRemate.com>
- 구직: <http://www.cvfuturo.com>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외국인 금기사항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하류 생활(술집의 여급, 하급 노동, 파출부 등)을 하는 일이 많아 콜롬비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콜롬비아와 비교하거나, 콜롬비아 사람 같다는 등의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인디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 강하므로 현지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단어이다.

현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민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반면, 기득권층은 싫어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거의 군사독재에 가까울 만큼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 군부 등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나. 거래시 유의사항

베네수엘라는 유선통신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무선통신은 최근 한국의 CDMA 셀룰러 폰이 진출해 발달되어 있으나, 유선통신 시설은 낙후되어 있어 팩스 송수신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팩스기는 업무 중에 전화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퇴근 후에는 건물 전체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팩스를 송신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차를 달리하여 3~5차례 송신하거나 무역관으로 송신할 경우 대신 전달 가능하다.

또한, 현지인의 정서상 안면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1년에 1회 정도는 현지를 방문, 바이어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남미바이어는 유선접촉이나 이메일보다는 직접방문을 통한 친분관계 유지가 거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 업체가 현지 업체와 거래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모든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이다. 세관, 은행 등이 한국 업체처럼 빨리 일이 처리하지 않으므로 우리 업체로서는 수입상들이 실제로 수입 의사가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일 처리가 느리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베네수엘라 인의 한 시간은 하루, 하루는 일주일, 일주일은 한 달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다. 비즈니스 에티켓

베네수엘라인은 격식을 갖춘 서신을 좋아하므로 비즈니스 조정이나 가격 조정 시에도 격식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사항 - 예를 들어 호텔료를 문의할 때도 전화로 문의하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신으로 문의해야 회신해 줄 정도로 서신 문화가 생활 속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런 점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지인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분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문의에 대한 회신 응답률이 매우 적어 회신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수입관행

베네수엘라는 금리가 연 50% 이상으로 높고 현지 은행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기 때문에 L/C개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L/C 거래보다는 D/A, D/P 및 T/T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아야 외환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CADIVI의 지나친 조사 절차로 인해 수입 대금 지불이 3~5개월로 늦어지고 있어 이런 점이 우리 업체와의 거래 성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지 수입상들은 소규모 주문을 자주 한다. 수출자로서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거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주문량이 늘 수도 있으므로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성의껏 제품을 공급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외환 통제 이후로 교역 시 결제 방법에 대해 신규 법령을 제정한 바, 첫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시 주재국 결제 방법에 대해 분명히 알아두어야 후에 분쟁의 발미를 피할 수 있다(결제 방법의 경우 ‘수입규제’ 부분에 수록된 2005년 10월 14일 발표된 외환통제하 수입절차 10단계를 참조).

마. 외환 통제 후 무역대금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상에게 외환통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의 과도한 기간이 소요된다. B/L 발행 후 딜리버리 40일, 통관 10~15일, Cadivi 대금 결제 40~50일 등 90~120일의 대금 결제 기간이 요구되므로 수출상의 경우 과도한 대금 결제 기간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수출을 기피하게 된다. Cadivi 승인 기간이 최대 60일정도면 완료되지만 바이어는 승인 후에도 Cadivi를 핑계로 수출상에게 통지하지 않고 물품을 통관, Sampling 판매 후 시장성이 없으면 외환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선량한 바이어의 선금 지불을 국내 수출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전 결제는 불법이지만 과도한 지급 기간 때문에 쌍방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수입상들은 자신의 해외 보유 계좌에서 선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때 Cadivi의 외환승인 후 베네수엘라 중앙 은행에서도 대금을 직접 수출상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이중으로 대금을 받게 된다. 보통 수출상이 바이어에게 재 송금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무역관의 클레임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무역관에서는 바이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 변호사를 섭외하여 수출상에게 법적인 소송을 진행케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언어 장벽 및 약속 개념 모호

현지 바이어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바이어는 20% 미만이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바이어가 대다수이므로 상담시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스페인어를 익히려면 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스페인어 구사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지인들은 직선적으로 NO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상담 결과 수입상이 수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관심을

보여 우리 업체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현지 수입상들은 NO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 업체의 서신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인 NO의 표시를 나타내므로, 3~4차례 서신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으면 NO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중남미 바이어들에게 공통된 현상이지만, 베네수엘라 인들은 특히 시간 관념이 없다.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바이어가 없고,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상담 시에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 과실 송금 불가

새로운 외환관리 법령으로 인해 현지 투자 이익금인 현지화를 달러화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들에게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외환을 허가하고 있다. 개인이 해외 관광을 목적으로 외환 획득을 원할 때는 정부의 허가 하에 매년 미화 5,000\$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부과하며 은행 절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은 1년 당 미화 600\$ 수준이다. 여행객이 매월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은 500\$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년당 인터넷 해외구매는 3000\$까지 가능하다.

다. 회신(답장)이 없는 상거래 관습

바이어가 찾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문의하였을 경우 회신율이 10%도 안될 정도로 베네수엘라 바이어는 거의 회신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회신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메일보다는 팩스 전송을 권장하며 반드시 유선전화로 송부하였음을 통지하고 회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투자진출시 성공, 실패 사례

최근 3~4년간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는 전무하며 투자법인도 없으며 삼성, LG는 지사형태로 운영중이다.

나. 무역 성공, 실패 사례

한국의 대기업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 제품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일회용 주사기, 여성용 액세서리의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과 한국제의 주사기 몰드 기계의 수출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주재국의 대 국가 정책과 맞물려 중장비와 IT 제품의 한국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남미 주변국과 유사할 것이라는 선입관을 지우고 21세기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부정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초 인근 쿠바와 연계한 한인무역상에 의해 주재국 정부의 주사기 플랜트 입찰이 성공되어 한국의 주사기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성공의 사례로 남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시장은 외환의 국가통제로 내부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재편되어 있으며 구매자의 권리가 거의 없으며 제품 공급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환배정정책을 미국, 중국, 유럽 등과 같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현지 생활여건

1) 한국식품 조달여건

현지 유일의 한국 식품점인 LOTTE MARKET에서는 한국인·일본인·현지인을 상대로 한국 식품과 일본식품을 팔고 있다. 이 물품은 대개 3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배이스를 통해 수입된다. 한국인들이 기호로 하는 각종 가공식품은 구입이 가능하나 달러의 상승으로 판매 가격은 한국의 3~4배에 이르는 고가이다.

○ LOTTE MARKET 주소

- RES. ALCOMA LOCAL 7 Y 8, AV. 2DA C/3R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 CARACAS
- 전화: (58-212)285-2957

또한 중국식품 가게가 1곳 있어 동양 식품을 팔고 있는데, 주변 중국회관 내 공터에서 매주 일요일 새벽(5시-8시) 중국시장이 열린다. 여기서 두부, 부추, 무 등의 식재료와 라면, 한국산 스낵, 쌀 등을 가게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국·일본 사람들이 먹는 쌀은 주로 캘리포니아산인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입되는 물량 역시 적어 품귀 현상을 빚는 경우가 많다. 김치를 담그기 위한 배추는 몇몇 슈퍼 (특히 Altamira에 있는 Patio, la plaza, Cada)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싸 한국 교민들은 김치가 아니라 쏘치라고 말한다. 한국인의 수요 증가로 한국인들의 거주 지역 내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만 먹는 고춧가루, 한국 된장 등 기초 식품은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조달해야 한다.

2) 생필품 구입

대부분의 상품은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다. 최근 달러화의 영향으로 한국 물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편이다. 주택가 부근에 슈퍼 체인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장보는데 큰 불편은 없다. 또 네덜란드계 할인 매장인 MAKRO가 카라카스에만 2군데 있어 대량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 MAKRO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MAKRO는 카드 발급제로 운영되기에 사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 대형 슈퍼 체인으로 EXITO도 있다.

3) 의료 시설

□ 병원

종합 병원, 소규모 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진료의 수준도 꽤 높다. 1회 진료비는 \$20 안팎이지만 수술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분만비의 경우에도 정상 분만에 약 미화 2,000\$가 소요된다.

일반 병원에서는 토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일에도 오후 5시 무렵에 진료가 종료되는 관계로 응급 시에는 종합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응급실에 갈 경우 미리 진료비의 일부(약 100\$ 정도)를 예치해야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침 시술소도 수도권에 1군데 있다.

- 주소: Edf. Centro Peru, Piso5, Ofic. N59, Av. Francisco de Miranda, Chacao, Caracas
- Tel: (58-212)266-7912
- Fax: (58-212)266-7912(전화겸용)

□ 의료보험

예산부족 등으로 국공립 의료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제때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의약품 및 의사부족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진 바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이 일반보험 회사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최고가액, 최저 커버 금액, 포함되는 질병의 종류, 미리 돈을 내고 후에 환불 받는 것,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것 등 보험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 약국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 이름만 대면 살 수 있다. 감기약이나 설사약, 해열제 등은 슈퍼에서도 구할 수 있다. 감기약으로 NIPE, SINUTAB, CONTACT 600, 해열제는 TACHIPIRIN, TEMPRA 두통약은 ATAMEL, PARCEL, 소화제는 FESTAL, MAALOX, PANKREON 등을 많이 쓴다.

대형 체인약국을 주로 찾는데 대표적으로 LOCATEL, FARMATODO, FARMA OFERTA, FARMAHORRO 등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양 약들이 그렇듯 베네수엘라의 약들은 용법과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살 경우 약 뚜껑에 용법과 용량을 적어 놓아야 후에 그 약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은 있는데 어디에 썼던 것인지, 어떻게 먹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에서 병이 나는 경우 한국약보다 현지약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별히 약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웨스탈, 카네스텐 연고, 잔탁, 탈시드, 마데카솔 연고 등은 똑같은 이름으로 이곳에서도 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적인 약 -예를 들어 청심환, 기응환, 정로환 등 한방약- 과 파스 종류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다.

4) 레저 여건

카라카스 시내에 관광거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자체가 문화와 역사가 깊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주말에 AVILA산을 등반 하거나 해안을 찾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유명 쇼핑몰의 게임장이나 쇼핑몰 내의 놀이 동산을 찾는다. 기구 하나당 약 미화 1\$의 티켓으로 이용 한다. 카라카스에서 4시간 가량 이동하면 카리브해의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해수욕장들이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골프는 회원이 아닐 경우 치기가 쉽지 않은데 회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1명씩만 초대 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이 기존 회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카라카스 시내의 골프장은 4곳이나 회원권이 \$5만 달러 이상의 고가이며 동양인들이 회원이 되는데 제약이 많다. 카라카스 시내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산악 지대에 자리잡은 JUNKO GOLF CLUB은 비교적 저렴한 1만 5천 달러 내외의 가격으로 회원 권을 구입할 수 있어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의 이용도가 높다. 그러나 이 클럽도 동양인 증가를 막기 위해 동양인들이 베네수엘라인으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양인들끼리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비회원들의 GREEN FEE는 \$75 정도로 비싸며 캐디 FEE는 \$18 전후이다.

5) 치안 상태

치안은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경제가 나빠지면서 큰 빌딩의 사무실이나 상점, 은행들에서의 도난 사고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지 경찰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 비율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인명 경시 풍조가 강하며 불법 무기 소지자들도 많은 관계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카라카스 시내에서만 1주일에 약 80 건 이상의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빈민들이 사는 지역이나 도시 내의 슬럼화된 지역은 각종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출입을 금하는 것이 좋으며, 항상 동양인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혼자 시골로 여행 하는 것 등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급적 현지 불량배들과의 시비를 피하고 돈을 요구하면 저항 없이 주는 것이 좋다. 야간에 차를 운전할 경우에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반대편의 차량이 없으면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 좋다. 가끔 신호 대기 차량에 총을 들이대고 차를 빼앗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차량의 도난이 많은 곳으로 2006년에 분실 또는 강탈당한 차량이 무려 53,000대에 달한다. 2006년도 신차 판매가 31만대 정도였으므로 자동차 도난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주차는 항상 주차장 등 안전한 장소에 하는 것이 좋다.

6) 한국인에 대한 인식

초창기 베네수엘라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하급의 허드렛일에 종사하였다. 지금은 이들이 수많은 중국 식당을 운영하며 기반을 갖추고는 있으나, 초기의 인식이 아직도 현지인들에게 남아 있어 동양 사람들을 볼 때 국적의 구별 없이 CHINO(중국사람)라고 칭하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 제품의 시장 침투 확대로 일정 계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으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2006년 월드컵과 삼성, LG, 현대, 대우, 기아 등의 한국 기업으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 이주 정착 가이드

1) 사증(visa) 취득

□ 일시 거주 사증

단기간이라도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일시 거주 비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용 일시 거주 비자(transeunte de negocio, business transient visa)와 일반 일시 거주 비자(regular transient visa, transeunte regular) 2종류가 있다.

□ 상용사증(단기 또는 장기 출장 시)

- 해외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만 발급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도착 일시로부터 120일 또는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나, 주재국내에서는 갱신이 불가능하다.
- 사증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최소 1년간 유효한 여권
 - 사진 4장(4 X 4cm)
 - 사업목적을 명시한 서한

동 비자는 ID카드(Cedula)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계약 등 영리 활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재국 출국 전, 사증 소지인은 소지인이 소속된 회사가 소지인의 주재국 체류기간에 생긴 소득에 대한 20%의 원천징수액(income withholding tax)을 납부하였음을 증명 해야 한다.

□ 일반 일시 거주 사증

1년간 유효하며 반드시 주재국 내 제3자가 이민청(ONIDEX)에 입국신청서(Solicitud de ingreso, request for entry)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ONIDEX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가 지명한 해외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 관에 승인사실이 통보된다(신청→ONIDEX→외무성→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발급 대상자 통보)

일반 일시 거주사증은 회사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재국 노동부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한으로 고용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신청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구비사항
 - 입국신청서: 동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주재국 내 영업활동 개시일, 회사정관, 사증신청직원의 직위 및 국적 등 관련 세부사항 기재
 - 회사의 납세자 등록번호(RIF, NIT), 사업자 등록 서류(Registro Mercantil), 고용 계약서(베네수엘라 내에서 공증받아야 하며, 회사 관계자가 서명)
 - 사증 신청인 및 그 가족의 상세한 인적 사항, 정면 및 측면사진 각 2장 (4 X 4 cm), 여권 사본 2부.
 - 가족 관계: 베네수엘라 영사확인 결혼증명서 및 자녀출생증명서
 - 수입인지세: 42,000 볼리바르(약 20불)
 - 해외주재 해당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소
 - 신청인의 의료검진서

경우에 따라서 최근 5년간 거주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부터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요구하거나 재정 또는 사업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재국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학증명서 등 자녀의 학교 관련 서류를 베네수엘라 영사 확인을 해놓을 필요가 있음.)

- 가족 동반을 위해 개인이 신청할 경우
 - 입국신청서: 가족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는 개인의 상세한 인적 사항
 - 신청인의 봉급명세서, 납세자 등록번호

- 고용증명서 및 고용증명서의 회사 서명권자 ID카드 사본 1부.
- 은행 잔고 증명서
- 수입인지세: Bs 42,000(약 20불)
- 사증발급 대상자(가족)의 상세한 인적 사항

□ 거주사증(resident visa)

- 일반적으로 일시 거주 사증을 갖고 3년 연속 체류 시 거주사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필요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거주사증 신청을 위한 구비 사항은 일시 거주 사증의 갱신의 경우와 동일하다.

□ 사증 변경

관광사증을 일시 거주사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증변경신청서(cambio de visa)로 신청해야 하며, 약 10일이 소요되는데, 여행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증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사항이 요구된다.

- 사진 2장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수입인지세: 42,000 볼리바르(약 20불)

□ 사증의 갱신

일시 거주 사증은 반드시 매년 갱신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갱신신청서(solicitud de renovacion)
- 최소 6개월간 유효한 여권
- 사진 2장(4 X 4 cm)
- 수입인지세: 42,000 볼리바르(약 20불)
- 고용증명서
- 고용증명서에 서명하는 회사관계자 ID카드 사본(필요 시)

신청일로부터 약 20일(working days)이 소요되며, DEX는 오후 1:30~3:30간에만 신청서를 교부한다. 여행사 등을 이용할 경우 약 10일이 소요된다.

□ 사증 이전

일시 거주사증 또는 거주사증 소지인의 여권이 만료되거나 여백이 없어 새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새 여권에 사증이 이전된다.

사증 이전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Solicitud de recuento)
- 사진 2장
- 신, 구 여권
- ID 카드 사본 1부
- 수입인지세: 63,000볼리바르(약 30불)

2) ID카드(Cedula) 발급

ID카드는 일시 거주 사증 소지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간, 거주사증 소지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일시 거주 또는 거주사증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개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ID카드 신청 또는 갱신 시 ID번호 및 지문을 날인한 신청 증명서(comprobante)가 주어지며, ID카드 발급 때까지 동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9세 이상의 국민은 항상 ID카드 또는 임시카드를 소지하도록 되어있다. 동 증명서, ID카드 및 사증 사본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D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사증이 포함된 유효 여권
- 사진 2장
- 소지인의 사진 및 사증이 들어있는 여권란 사본 각각 2부.

ID 카드 갱신 시에는 ID카드 사본 1부 및 여권 사본 1부가 필요하며, 분실 시에도 동일하다.

- 수입인지세: 갱신시 120,000볼리바르(60U\$)

ID 카드의 신청은 이민청에서 하는 바,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이민청 카라카스 사무소
 - 주소: Centro Comercial Plaza Las Americas, Piso 4, El Cafetal
 - Tel : 985-4451
 - 근무시간: 오전 7:30-12:00, 오후 1:00-4:00
- 이민청 본부
 - 주소: Plaza Caracas, El Silencio
 - 근무시간: 외국인의 경우 오전 9:00부터 15:00 까지

3) 주택 물색

베네수엘라의 주택사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또한 치안문제를 고려, 비교적 상류 층이 밀집해 사는 곳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 또한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통상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구 주택가인 Altamira, Sebucan, Palos Grande, San tafe지역과 신흥주택지역인 Valle Arriba 지역을 들 수 있다. 주택임차료는 위 고급 주택 가인 경우 대단히 비싸 방 2개에 30 평 정도의 집의 월세로 1,500\$에서 2,000\$ 정도는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작은 집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통상 60평 이상의 집들이 많은데, 이러한 집들은 월세가 3,000\$을 넘는다. 2002~2003년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거치며 외국인들은 물론 내국인들도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집을 구하기도 쉽고, 임대료도 다소 하락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와 연간 50% 이상의 고 인플레이션으로 2007년 현재 안전지역의 경우 방한칸의 작은집도 월 1,000\$ 이상이다.

가구가 있는 주택인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나 통상 300\$에서 1,000\$은 더 주어야 하는데, 가구가 없는 집일 경우에도 부엌 가구(가스 또는 전기 레인지, 냉장고, 세탁 기)정도는 팔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구들은 대개 부엌에 불박이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사를 할 경우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부촌에 위치하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세가 3,000\$ 이상 든다. 또 별도의 경비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별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집을 구하는 방법은 통상 부동산을 통하게 되는데, 신문 광고도 대부분 부동산 회사에서 게재하고 있다. 직접 집주인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료로 1개월 치의 월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미화 계약이 일반적이며, 통상 베네수엘라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는 집 주인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시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집을 계약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치의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나중에 집을 비울 때 원상 복구를 잘 해놓지 않는다든지, 공과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세입자가 완벽하게 해 놓았다고 자부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집주인이 갖은 트집을 잡아 변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할 때는 집의 상태와 가구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여 훗날 집을 비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다. 자녀 교육여건

1) 자녀 교육 여건 및 공통 사항

카라카스에는 한인 학교가 없으며, 외국인이 보낼 수 있는 학교로는 현지 사립학교와 외국인 학교를 꼽을 수 있다. 국, 공립 학교의 경우 인구 80%가 빈민층인 관계로, 학교 수준이나 학생들의 질, 학교 시설 등이 형편 없다. 그리고 한글교육을 위해 한인 교회에 토요 학교가 설치되어 토요일 오전 수업을 하고 있다.

현지 사립학교의 경우 일단 결원이 있어야 하나, 좋은 사립학교는 입학 대기자가 많아 들어 가기가 쉽지 않다. (베네수엘라 부유층들은 아이가 출생하면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신청부터 해 놓는다고 한다) 또한 현지 학교에 입학하려면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수학 능력 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외국인 학생이 스페인어로 출제되는 시험을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자녀는 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카라카스에는 3개 외국인 학교가 있으며,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입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교육비는 상당히 비싼편이다. 또한 학교선택은 주택임차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카라카스는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로 주택과 학교가 멀 경우 학생, 특히 어린 학생일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빙빙 도는 수가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의 학제는 가을 학기를 시작으로 통상 8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에 끝난다. 외국 인 학교의 경우 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 9월을 기준(미국 학교는 9월 30일, 영국 학교는 9월 1일 기준)으로 만 3세가 넘으면 유아원(Nursery)입학이 가능하며, 만 4세는 유치원 예비 과정(Pre-Kinder), 만 5세는 유치원(Kinder)에 입학 가능하고, 만 6 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가능하다. 보통 1-5학년은 초등학교, 6-8학년은 중학교, 9-12학년은 고등학교 과정이다. 단 영국학교의 경우 미국계 학교보다 1살 낮은 만 5세 에 초등학교 과정이 시작된다.

학교의 교복은 베네수엘라 전체가 통일되어 있으며, 외국인 학교도 동일하다. 상의는 폴로 셔츠에 하의는 검정 또는 파란색 바지나 치마이다. 상의는 유치원생은 빨강, 초등학생은 흰색, 중학생은 하늘색, 고등학생은 갈색으로, 왼쪽 가슴에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문·판매한다. 하의는 색깔만 맞으면 청바지 등 어떤 것이라도 상관 없다. 체육복은 보통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반바지이다. 이와 같이 교복이 간단한 것은 베네수엘라가 계절 변화가 없이 사철 모두 춘·하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를 대비해 학교 로고가 있는 스웨터도 판매하고 있다.

입학 서류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이 필요 하면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기타 예방접종카드도 준비하면 좋으며, 여권 신청 시 사진을 여러 장 준비해 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처음 입학하는 학생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ESL 과정을 들어야 한다. ESL 수업은 방과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과 대체된다. 통상 다른 학생들의 컴퓨터 수업시간에 ESL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ESL 수강기간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학기만에 마치는 수도 있고, 2년을 듣는 수도 있다. 보통 ESL의 비용은 따로 받지 않는다. 영어가 특별히 부족한 경우 학교에서 과외 공부를 권유하며 교사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 방과 후 학교 또는 집에서 수업이 가능한데, 시간당 \$20~30 정도의 비용이 든다.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이다. 방과 후에 특별 활동이 5시까지 이어진다. 특별 활동은 운동(배구·축구·농구·하키 등)과 음악(합창·밴드)·컴퓨터·무용·미술·연극 등 다양한데, 교과 수업에서 일정 이상 학점을 받지 못하면 특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봉사 활동반도 있어 교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우등생 그룹(National High Society/NHS)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점도 중요하나 리더쉽, 사회 봉사 활동 등이 요청되므로, 여러 가지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학비는 학년 시작후 3개월 내에 완납하게 되어있으며, 중도에 퇴학을 해도 나머지 학비가 환불되지 않는다. 만일 학비가 미납된 경우 퇴학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2) 외국인 학교

- Colegio Internacional de Caracas(CIC)
 - 1971년에 설립된 학교로, 미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
 - 학생 수는 약 400명으로, '99년 현 정부 수립과 경제 침체 이후 외국인들의 철수가 증가하면서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 초등학교는 한 반에 20명 내외이며, 반 편성이 없는 중학교 이상은 1명의 담임교사(Home Room Teacher)가 맡는 학생 수가 10명 이내이다.
 - 유아원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있다.
 - 학 비
 - 입학금: 5,000\$ (Kinder부터 12학년까지)
 - Nursery-Pre-Kinder는 입학금이 1,000\$이나, Kinder로 진학 시 차액 납부
 - 등록금: 500\$ (Nursery부터 12학년까지 동일/ 매 학년 등록 시 마다 납부)
 - 연간 수업료
 - Nursery - Prekinder : 7,100\$
 - Kinder-5학년 : 10,700\$

- 6학년-8학년 : 13,600\$
- 9학년-10학년 : 14,000\$
- 11학년-12학년: 14,400\$
- 학비는 6월 15일까지 등록금과 연간 수업료의 10%, 8월 15일까지 연간 수업료의 50%, 11월 15일까지 나머지 40%를 납부한다. 즉, 학년 시작 3개월 내에 1년치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늦게 납부하는 경우 500\$ 연체료를 내게 되어 있다.
- 학비의 환불은 등록금과 10% 수업료를 납부한 후 7월 23일 이전에 퇴교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학교 스쿨버스가 있으며, 월 이용료는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80,000Bs(약 113\$)이다.
- 입학 신청서류
 - 입학 신청서
 - 여권 사본
 - 최종 학교의 최근 2년간 성적 증명서
- 입학 시험
 - 학년 배정을 위한 간단한 시험을 치른다(수학 문제와 지능 시험 문제가 출제됨)
 - 입학 시험 결과와 간단한 영어 면접을 통한 영어 구사능력, 나이를 감안하여 학년을 결정한다.
 - 영어가 부족한 경우 통상 6개월을 낮춰 입학하게 된다.
- 학교 보험
 -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단체 보험은 없으며, 학생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 학교 급식
 - 단체 급식은 없으며 학생들은 도시락을 가져오든가 교내 매점에서 매식을 한다.
 - 교내 매점에서는 빵과 피자 등 간단한 점심 메뉴와 음료를 판매하며, 점심 한끼 비용은 약 4,000Bs(약 6\$) 정도이다.
- 학교 연락처
 - 주소: Calle Colegio Americano, entre Los Samanes y Las Minas de Barut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945-0444, 945-0708
 - Fax : (58-212) 941-4161
 - email: cic@cic-caracas.org
 - URL: www.cic-caracas.org
- Escuela Campo Alegre(ECA)
 - 1937년에 설립된 학교로, 미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
 - 9학년까지만 있었으나, '70년대 말 12학년제로 개편되었다.
 - 학생 수는 약 800명으로, '91년 현 정부수립과 경제침체 이후 외국인들의 철수가 증가하면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 유아원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있다.
 - 학비는 외국인 학교 중 가장 비싸다.
 - 입학금: 10,000\$ (Kinder부터 12학년까지)
 - Nursery-Pre-kinder의 입학금은 1,600\$이며, Pre-Kinder로 입학, 초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차액 5,000\$을 납부해야 한다.
 - 등록금: 600\$ (Nursery부터 12학년까지 동일/ 매 학년마다 등록시 납부)
 - 연간 수업료
 - Nursery : 6,718\$
 - Pre-Kinder : 8,396\$

- Kinder~5학년: 13,028\$
- 6학년~8학년: 16,214\$
- 9학년~11학년: 16,304\$
- 12학년: 17,064\$
- 학비는 8월 31일까지 50%, 11월 20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한다. 즉 학년 시작 3개월 내에 1년치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를 내야 한다.
- 수업료 외에 교재비로 6~8학년은 150\$, 9~12학년은 240\$을 납부한다.
- 11~12학년으로 IB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IB 등록비와, 시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학비는 1년 단위 납부로 조기 퇴학해도 환불되지 않는다.
- 학교 자체 스쿨버스가 없으나, 운송회사와 계약, 스쿨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버스 이용료는 주거 지역에 관계없이 약 90\$ 수준이다.
- 입학 신청서류
 - 입학 신청서
 - 입학 설문지(현 재학 학교에서 작성 요)
 - 건강기록부
 - 여권용 사진 2매
 - 최종학교의 최근 3년간 성적 증명서
 - 각 신청서 양식은 URL에서 출력 가능
- 입학 시험
 - 별도의 입학시험은 없으며, 영어면접을 통한 영어 구사능력을 테스트하여 학년 배정을 한다.
- 학교 보험
 -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단체보험은 없으며, 학생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 학교 급식
 - 단체급식은 없으며, 도시락을 지참하든지, 아니면 교내 매점에서 매식을 해야 한다.
- 학교 연락처
 - 주소: Final Calle La Cinta, Las Mercedes, Venezuela.
 - 전화: (58-212) 993-3922
 - Fax : (58-212) 993-0219
 - E-mail : admissions@eca.com.ve
 - URL : www.eca.com.ve
 - 입학 담당자: Mr. Joan Bastianini
- The British School Caracas
 - 영국계 학교로, 영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
 - 학생 수는 약 300명으로 유아원부터 9학년 과정(미국계학교의 8학년)까지 있다.
 - 학비
 - 입학금: 대사관 및 회사 요율 5,880\$, 일반인 요율 3,530\$
 - 등록금: 515,000 Bs(약 275\$)
 - 연간 수업료
 - Pre-School: 대사관 및 회사 요율 5,880\$, 일반인 요율 3,530\$
 - Kinder-4학년: 대사관 및 회사 요율 12,350\$, 일반인 요율 8,350\$
 - 5학년-9학년: 대사관 및 회사 요율 14,700\$, 일반인 요율 10,120\$
 - 대사관 및 회사 요율은 정부 및 회사에서 학비 보조가 있는 경우의 요율이며, 일반인 요율은 학비가 모두 개인 부담인 경우의 요율이다.

- 수업료는 1년분 선납이나, 9월 40%, 1월 35%, 4월 25%로 3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 1년치 선납의 경우 학비의 환불은 1학기 퇴학 시 60%, 2학기 퇴학 시 30% 환불되며, 3학기 이후 퇴학은 환불이 없다. (3학기제임)
- 학교 스쿨버스는 없다.
- 입학 신청서류
 - 입학 신청서
 - 출생 증명서
 - 증명 사진
 -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있을 시)
- 입학 시험
 - 면접만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의 영어 구사를 요구한다.
- 학교 보험
 -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단체 보험을 가입한다.
- 학교 급식
 - 단체 급식은 없으며,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교내 매점 없음)
- 학교 연락처
 - 주소: Transversal 9, Este de la Av. Luis Roche, Altamir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266-2270, 265-5870
 - Fax: (58-212) 265-2141
 - E-mail: britishschoolcaracasc@sa.omnes.net
 - 입학 담당자: Ms. Rhaiza Blanco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베네수엘라는 위도상 열대 지역에 속하나 해발 고도의 차이에 따라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우림 기후에서부터 사바나 기후, 온대성 기후 및 안데스 산맥 고지대의 한랭 기후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도인 카라카스는 해발 800-1,000m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선선한 편이며 제2의 도시인 마라카이보는 저지대에 위치하여 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서쪽의 TACHIRA주는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있어 한랭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외의 지역은 고온지역으로 연중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2) 연 평균 기온

- 해발 800m 이하의 저지대: 연 평균 24℃ - 36℃
-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 연 평균 16℃ - 23℃

3) 수도 카라카스의 기후

카라카스는 해발 800m-1,00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가 연중 온화하며, 연중 기온차가 적어 계절 변화가 거의 없다(연 평균 기온: 18 - 25 ℃)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로 하루 두 차례 짧은 소나기가 내리는데 주로 7, 8월 중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건기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12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

4) 의복 준비

카라카스 지역만 여행할 경우 춘추복이면 충분하다(건기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면 충분하나 대부분의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경향이 높아 긴팔셔츠를 권장하며 밤에는 약간 쌀쌀하니 봄 점퍼나 가디건 정도로 준비하면 된다. 시외를 여행할 경우 발렌시아, 마라카이보, 마라카이, 뿌에르토 오르다스 등 대부분의 도시가 열대권이므로 반드시 하복을 준비하도록 한다.

우기철에는 현지 말라리아성 모기가 기승을 부리므로 긴소매 상의를 입는 것이 좋다. 모기에 자주 물리면 ‘뎡게’라는 열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한국보다 13시간 늦다. 한국의 시간이 12:00일 경우 베네수엘라는 전일 밤 23:00이다. (베네수엘라가 오전 10:00인 경우 한국은 저녁 21:00임)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전 지역이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에 비해 1시간 빠르다. 단, 미국이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뉴욕과 동일한 시간대이다.

2) 근무 시간

- 관공서: 08:30~12:30, 14:00~17:00 (토·일요일 휴무)
- 은행: 08:30~15:30 (토·일요일 휴무)
 - 일부 은행은 은행 외 창구를 이용하여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기도 한다. 오후 3:30~5:00에 입금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인출하는 경우 1,000~5,000 볼리바르 (0.5~2불 정도)의 수수료를 떼기도 한다.
- 상점: 08:30~12:30, 15:00~19:00
 - 토요일: 대부분 개점
 - 일요일/공휴일: 일부 슈퍼마켓만 오전에 개점
(대형 슈퍼마켓은 점심시간 없이 열며, 일요일에도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한다.)
- 초·중·고등학교: 07:00~14:00
- 중·고등학교: 07:00~04:00
 - 학교의 재량껏 오후 시간은 자유로이 끝낼 수 있다.

다. 주요 단위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km로, 주유소의 유류 판매는 리터로, 사무실이나 주택 임차시는 평방미터(SM)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넓이 외에는 한국과 동일한 척도이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상용비자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나라이다. 200년 3월부터 90일 미만 체류시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공항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무비자 입국 가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무비자 국가임을 거론하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비즈니스맨은 상용비자 취득이 필요한데 자격조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현지에서 개별 출장을 오고 샘플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용비자 취득을 권장하며, 샘플이 적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간단한 업무를 현지에서 볼 수 있다. 무비자로 입국시에는 반드시 관광(Turista)로 출입국카드에 기재해야 한다

○ 비자 발급처

-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www.venezuelaemb.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 본점 16층
 - 전화 : 732-1546/7, 팩스 : 732-1548
 - 휴일 : 토·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 업무 시간: 비자신청 09:30-12:00, 비자발급 14:00-16:00
 - email : emvesel@soback.kornet.net

2) 출입국 절차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외화는 사전 신고 시 미화 \$10,000까지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한하여 미화 \$5,000까지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다.

신변 지참물로 인정되는 물품은 무세 반입이 가능하며 주류 2병, 엽권련 50개피, 권련 은 200개피까지 무세 반입이 가능하다.

카라카스 공항의 경우 통관 시 여행객의 짐을 모두 x-ray검사하기 때문에 한국 출장자의 경우 샘플과 한국 식품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입국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이전에는 미국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최근 미국의 테러 강화로 인하여 비자가 없는 승객의 미국 경유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중남미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미국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행이나 브라질 경유를 권장한다. 또한, 미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과도한 검색으로 티켓팅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최소한 3-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출국시 공항세는 미화 55불(현지화 118,000 BS)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3) 출입국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나, 가끔 현지 여행사에서 무책임하게 예약된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부킹이나 더블 티켓 발부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현지 도착 후 반드시 티켓을 conform 받아야 한다.

항공권에 적혀있는 출국 gate가 Boarding시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한 후 gate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 항공기(특히 American Airline) 경우 불친절하고 검색이 지나치게 철저하여 탑승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리수속을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출두해야 한다.

마. 환율/환전

1) 환율 통제

2002년 말 정부는 반 차베스 진영의 공세로 정권의 경제 통제가 어려워지자 2003년 2월부터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외환 통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외환 거래는 베네수엘라 외환운영 위원회(Cadivi)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민간끼리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외환 거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외에는 불법화하여 외환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이러한 정책은 고유가와 맞물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민간기업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외환통제의 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외환통제 초기인 2003년 2월에는 U\$1.00=BS1,600.00 수준이었으나 2007년 12월 현재 BS2,150.00 이며 암시장에서는 BS4,500-5,000.00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이어는 베네수엘라 외환운영 위원회(Cadivi)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하여 수출 대금 지급이 대부분 늦추어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암시장에서 달러화를 매입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서류 수속후 Cadivi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와 교역을 희망하는 수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바이어가 Cadivi에 외환배정 신청서 사본을 받을 경우 승인이 언제 송금될지 모르지만 대금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을 양해하고 바이어의 어려운 점을 배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 환율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없으나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조금씩 상향 조정 할 가능성이 높으며, 2006년 12월말 차베스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환율 정책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떠 돌고 있다.

차베스 정부는 외환배정의 강화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을 신설하여 모든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 2007년 10월부터 기업의 경우 일반 사은행으로의 모든 은행거래는 1.5%씩의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화되는 법이 통과하여 실행중이다.

2) 환 전

2003년 2월 6일 이후 외환통제가 시행되고 있어 출장자의 달러화 매입은 불가능하고 공항과 시내에 지정된 공식환전소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출장자의 경우 최소 경비만 환전할 것을 권유한다. 출국시 현지화를 달러로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환전소에서 환전할 필요가 있다.

○ 정부 고시 환율

- 매입: US\$1.00=BS2,150.00.00(볼리바르)

바. 교통/통신

1) 교통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주로 공항 택시(검은색 zee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금은 미화 \$35선이며 (외국인인 경우 비싸게 부르고, 현지 화폐인 경우 정해진 요금이 있어 더 경제적이다. 사전에 흥정 필수), 시내 구간은 약 U\$10내외에서 해결된다. 택시에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차전 행선지에 따른 요금을 흥정하고 타야 내릴때 요금 시비가 생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택시는 '98년 이후 생긴 하얀색 신형 택시와 70-80년대 모델의 낡은 택시들이 있다. 하얀 택시는 가격을 약간 높게 부른다.

택시 강도도 심심치 않게 생기기 때문에 택시를 탈 때는 운전기사를 눈여겨 보는 게 중요하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 기사를 고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한국에서 온 출장자의 경우 현지 치안이 좋지 않으므로 스페인어를 구사하든 하지 않든 혼자서 택시 타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기 바람, 현지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

공항-호텔 택시 이용은 호텔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호텔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급 호텔의 픽업 서비스 요금은 미화\$75선으로 비싸다. 서비스 이용시 미리 호텔로부터 택시 운전기사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피켓을 들고 있거나 자신을 찾을 경우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공항에서 두리번거리며 마중 나온 사람을 찾는 승객들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마중나온 것처럼 유인한 후 금품을 털어가는 강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에서는 호텔택시의 공항Pick Up을 권장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로 오는 비 행기 연착이 잦아 마중 나간 운전수가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그냥 돌아가고서는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인데, 이때 국내업체 출장자와 무역관 사이 비용 지불 문제로 말썽의 소지가 있다.

카라카스시에는 지하철이 3개 노선뿐이며 시내 구석구석을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간에는 지하철이 비교적 안전하여 이용할 만 하나, 야간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철 운행시간은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다. 요금은 구간별로 다르나 \$0.5 내외에서 가능하다.

시내버스는 시내 곳곳을 연결하나, 대부분 버스가 노후되어 외국인들이 타기에는 적합치 않다. 특히 야간에는 강도 사건이 빈발하여 더 위험하다. 요금은 \$0.5 (2007년 현재 BS900.00) 내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무역관에서는 현지문화의 경험 차원에서라도 시도하는 시내버스 탑승 조차도 삼가해 줄 것을 희망함). 시외버스도 치안상의 이유로 인해 외국인 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시외로 갈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렌터카의 경우 1일 사용료가 U\$150(1,500CC급)~U\$200(2,000CC급)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 택시를 대절하는 편이 낫다. 택시는 시간당 U\$15 ~ 20 정도에 대절할 수 있다.

철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차 이용은 할 수 없고,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장거리 버스(별도의 터미널 있음),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2) 통신

유선 전화보급률은 대략 3세대당 1대 꼴로 가입자가 적은 편이다. 이는 전화선이 많지 않아 신규 개설이 어렵고, 또 요금 시비가 많아 유선전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화 한 대를 fax겸용으로 쓰는 일도 많다. 전화 요금도 비교적 비싼 편이다. 가정용 전화의 기본 요금은 약 15\$에 달하며 초과통화에 대해서는 분당 0.3\$을 받는다. 국제전화 요금은 최근 2~3년간 많이 내려 '98년에는 한국까지 1분당 U\$3.00이었으나 최근에는(볼리바르화 하락) 0.30볼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선전화로 셀룰라폰에 전화를 할 경우 분당 요금이 0.50볼로 상대적으로 높다.

유선 전화가 낙후된 반면 이동통신은 비교적 발달해 셀룰러폰의 휴대가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폰은 카라카스의 경우 MOVISTAR(0414), MOVILNET(0416), DIGITEL(0412) 의 3개 회사가 있는데, 신규 유선전화 신청시 설치에 약 1~2개월이 걸리는 반면, 휴대폰은 신청 즉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휴대폰은 Pre Paid 시스템이 있어 전화카드를 구입, 입력하면 요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전화를 할 수 있다(수신은 무제한). 2005년 말 현재 휴대폰 가입자 수는 천만 명을 넘어 섰다.

휴대폰 가입은 사후요금 납부제도와 pre-paid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후요금 납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발급한 것만 받기 때문에 외국인이 요금 사후 납부제로 휴대폰 가입을 할 경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pre-paid 시스템은 휴대폰과 카드만 구입하면 되나,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장자의 경우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호텔룸의 전화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또 호텔 측에서 잘못된 요금을 청구하여 시비가 이는 경우가 많다. 통상 호텔 공중전화는 국제전화가 가능하므로, 공중 전화카드를 구입한 후 한국에 전화를 걸어 호텔룸으로 다시 전화를 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 비즈니스맨이 자주 이용하는 COLLECT CALL이 없으며 한국통신의 KT CARD도 사용할 수 없어 통신 여건이 어려운 편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가) 특급 호텔

카라카스는 호텔수에 비해 투숙객이 많아 투숙 2~3주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후 미 투숙 시(No Show)에는 예약자의 신용 카드에서 자동으로 하루분 숙박료가 공제되므로, 미투숙 시에는 최소한 투숙예정일 48시간전까지 취소통보를 해야만 숙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BC, MASTER 등 카드회사에서는 호텔투숙 예정자가 나타나지 않고 NO-SHOW가 발생하였을 때 호텔측에서 예약자 카드번호로 카드 회사에 호텔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지 카드회사가 청구액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고 숙박자의 지불 의사를 표시하는 공문(영어, 스페인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 측에서도 무역관이 숙박호텔을 예약할 때 카드번호와 지급해도 좋다는 문서를 요구하므로 무역관도 국내업체로부터 카드번호와 함께 동 문서를 요구한다.

특급호텔은 CARACAS HILTON, TAMANACO INTERCONTINENTAL, EUROBUILDING, GRAN MELIA CARACAS, HOTEL CENTRO LIDO 등이며, 정상요금 지불시 세금·봉사료 미 포함 가격 기준으로 미화\$250 수준이다. 트윈의 가격은 싱글보다 20% 정도 높으며, 현지 호텔에 숙박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무역관에 호텔 예약을 요청해야 한다.

○ 호텔 연락처

- HOTEL CARACAS HILTON (TEL:58-212-503-5000/ FAX: 58-212-503-5003)
- HOTEL TAMANACO INTERCONTINENTAL(TEL: 58-212-909-7000/FAX: 58-212-909-7207)
- HOTEL EUROBUILDING (TEL:58-212-902-2187/ FAX: 58-212-902-2189)
- HOTEL GRAN MELIA CARACAS(TEL:58-212-762-8111/FAX:58-212-762-3737)
- HOTEL EMBASSY SUITE(TEL: 58-212-266-7677/FAX: 58-212- 266-6556)
- HOTEL CENTRO LIDO(TEL : 58-212-952-5040/ FAX: 58-212-952-2944)

나) 비즈니스 호텔

투숙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이 깨끗하며 안전한 지역에 소재한 비즈니스 호텔들로 아래 장소를 추천할 만하다.

- SHELTER SUITE (TEL : 58-212-265-3866/7, FAX : 58-212-265-3869)
- CONTINENTAL (TEL : 58-212-261-0644/0004, FAX : 58-212-262-0243)
- HOTEL PRESIDENT(TEL : 58-212- 782-9001, FAX : 58-212-793-6375)

다) 무역관 추천 호텔

- Gran Melia: 1박 U\$150.00(세금, 조식포함)
- 무역관에서 이용하는 추천 호텔
 - HOTEL INTERCONTINENTAL TAMANACO: 1박 U\$180.00\$(세금, 조식포함)
 - HOTEL EMBASSY SUITE: 1박 U\$185.00\$(세금, 조식 포함)
 - HOTEL EUROBUILDING: 1박 U\$185.00(세금, 조식 포함)

라) 호텔별 특징

HOTEL INTERCONTINENTAL TAMANACO: 중심가인 MERCEDES에 가까우나 언덕위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외출할 때는 택시 이용이 필수이다. 규모가 크고, 부대 시설이 많은 특급호텔로 VIP이용에 적당하다. 2002년부터 무역관과 가격협정을 맺어 저렴한 가격에 숙박 가능하였지만 교통의 불편함과 리모델링하지 않은 객실때문에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 HOTEL EUROBUILDING RADDISON: MERCEDES에서 가까운 CHUAO에 위치. INTER CONTINENTAL 호텔과 마찬가지로 언덕위에 깊숙이 위치, 외출에는 택시 이용.

- HOTEL CARACAS HILTON: 구도심지에 있으며, 전철 이용 등은 편리하나, 비교적 낡고 주변의 치안도 좋지 않아 과거나 현재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
- HOTEL MELIA CARACAS: '99년에 완공된 호텔로 내부는 가장 호화로운 편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유흥가인 SABANA GRANDE에 위치하여 주변의 치안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나 객실이 좋고 조용하여 무역관이 이용하고 있는 호텔임
- HOTEL CENTRO LIDO: OFFICE TOWN의 중심에 위치하며, 99년에 개장한 깨끗한 호텔이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건물임. 교통이 좋으나 호텔 규모에 비하여 요금이 \$200-\$350로 비싸다.
- HOTEL EMBASSY SUIT: HOTEL CENTRO LIDO의 맞은편에 위치, 교통이 좋다. 2000년 7월에 개장한 깨끗한 호텔로 전부 SUITE 형태의 방이며 비용은 \$185 수준이다. 규모는 작아 빈 방이 없을 때가 많다. CONFERENCE SUITE라고 하여 방 2개와 약 30명 정도의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이 포함된 SUITE(가격 1일 약500\$)가 있다.

무역관에 호텔 예약 요청시 Check-in(out)일자, 룸 타입(트윈/싱글), 호텔명, 예약자명, 입국일자 및 항공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No Show시 1박 비용을 공제해도 좋다는 영문 문장) 등을 1페이지로 기재한 후 본인의 영문명과 서명을 기재하고 요청한다(카라카스 무역관 팩스번호: 58-212-762-2263)

2) 식당

유명식당은 LAS MERCEDES와 ALTAMIRA에 운집해 있으며, 식비는 1인당 미화\$30-50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식당은 한 곳이 있고, 가정집 형태로 운영된다.

메뉴판에 제시된 가격에 11%의 부가세와 10%의 봉사료가 덧붙여 청구되기 때문에 가격 계산시 메뉴판 가격에 21%를 더해서 생각해야 한다. 봉사료 10%는 계산서에 포함되나, 통상 청구금액의 2% 수준을 팁으로 놓고 나온다.

□ 주요 식당

- 일본식당
 - 식당명: AVILA TEI
 - TEL: (0212) 263-0806
 - 주소: Torre KPMG, Av. Francisco Miranda, El Rosal, Caracas
 - 가격 등급: A급
 - 메뉴: 스시, 사시미, 덴푸라, 스끼야끼, 각종 우동류, 점심 정식류
 - 식당명: TAIKO
 - TEL : (0212) 993-5647
 - 주소: Calle La Trinidad Edif. Canaima Urb. Las Mercedes, Caracas, Venezuela
 - 가격 등급: A급
 - 메뉴: 스시, 사시미, 덴푸라, 우동 등
- 중국식당
 - 식당명: LAI-KING

- TEL: (0212)283-9742/ 285-3075
- 주소: Av. Tercera con Calle Tercera,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 가격 등급: B급
- 식당명: GRAN YEN
- TEL : (0212) 793-2231/ 793-1683
- 주소: Av. Las Palmas, Esq. Calle Quito Los Caobos Caracas, Venezuela.
- 가격등급: B급

- 이태리식당
- 식당명: EL Rugantino
- TEL: (0212) 762-0562/763-5836
- 주소: Av. Francisco Solano, Hotel Tampa, Sabana Grande, Caracas
- 가격등급: B급

- 스페인식당
- 식당명: CHOCOLATE
- TEL: (0212) 951-6130
- 가격 등급: B급

- 한국식당
- 식당명: 딘딘(DinDin)
- TEL: (0212) 284-8457
- 가격 등급: B급

- 현지식당
- 식당명: MAUTE GRILL
- TEL : (0212)993-3846
- 주소: Av. Rio de Janeiro Las Mercedes, Caracas
- 가격 등급: A 급
- 고기, 생선류
- 식당명: Restaurante Belle Vue
- TEL: (0212)963-1186/963-4446
- 주소: Calle Union, Urb. Altos de Hatillo, Caracas
- 가격등급: A급
- 고기류
- 식당명: La Estancia
- TEL : (0212)261-1874
- 주소: Castellano, Caracas
- 가격 등급: A급
- 고기류
- 식당명: Punta Grill
- TEL: (0212) 993-2855
- 주소: Avenida Trinidad con calle Paris las Mercedes
- 가격 등급: A급
- 고기류

아. 관공서 관행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부패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부패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까지도 만연해 있다. 오래전 하버드 대학이 주요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법부의 청렴도 순위에서 베네수엘라가 꼴찌인 57위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특히 부정이 심한 곳은 세무담당 부서와 이민국 등인데, 세관 관리와 짜고 관세를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밀수와 마약을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의 횡포도 대단하여 세관에서 모든 통관 절차를 끝냈다고 해도 도로 곳곳을 지키고 있는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다시 화물에 대한 재검색에 들어가 물건을 압류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차베스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패 근절을 내세우며,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행정 절차를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통관사들은 엄격한 절차와 부정 감시 눈길 때문에 오히려 뇌물 액수만 늘어났다고 불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공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능률적이며 담당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서 규정에도 없는 일이 예사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규격 인증 확인서를 1년 기간으로 발급해 주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기간이 3개월로 바뀌는 식이다. 또한 민원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이라 일을 못 본다던가, 수입인자가 떨어져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 번호판 발급을 못하고 용지가 떨어져 신분증이나 여권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이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찾을 경우 상당히 관료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굳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지참할 경우 일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요청하는 각종 사항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기관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간단한 선물을 제공해야만 처리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외교관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기간에만 1~2년이 소요되는 등, 선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자. 공휴일

- 1월 1일 : 신정공휴일
- 2월 19일~20일 : 사육제
- 4월 5일~6일 : 부활절
- 4월 19일 : 독립선언일
- 5월 1일 : 노동절
- 6월 24일 : CARABOBO 전쟁일
- 7월 5일 : 독립기념일
- 7월 24일 : 볼리바르 탄생기념일
- 10월 12일 : 아메리카대륙 발견일 (COLOMBUS DAY)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사육제 기간과 부활절 기간(SANTA SEMANA)은 해당 주간 전체 또는 일부가 추가로 휴일이 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은 상례적으로 휴무)

크리스마스과 연말 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가므로 12월15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대다수 민간 기업은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모든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특히 비즈니스 출장이라면 이 기간을 피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1년에 한달 휴가제도가 있는데, 통상 8월에 휴가를 많이 가기에 이 기간에는 비즈니스 출장을 피해야 한다. 현지 학교 또한 7월말부터 9월 20일경까지 방학을 한다. (인터내셔널 스쿨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방학)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 준비

가) 의복 준비

1년 내내 22℃~35℃의 초여름 날씨이며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다. 굳이 나누자면 건기(11~4월)와 우기(5~10월)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반소매 복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낼 수 있으며, 정장을 할 경우 긴소매 와이셔츠도 입을 수 있는 날씨이다.

카라카스의 경우 해발 1,000m의 고지이기 때문에 밤에는 약간 쌀쌀하므로, 봄 점퍼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전기규격

60H, 110v 가 보편적이다. 220v 전기도 일부 사용하여 사무실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가정집에는 110v 전기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쓰던 220v용 전기 기기에는 변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준비하든지, 110v/220v 겸용의 전기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2) 여행여건

가) 치안

베네수엘라는 치안이 매우 좋지 않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현지인들은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시비나 연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시에는 혼자 다니지 말고 그룹으로 행동해야 안전하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강도가 원하는 대로 지갑 등을 건네주면 큰 상해는 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안전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은행카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팁 관행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1불 정도 팁을 지불하면 된다. 음식점에서도 계산서에 서비스료 10%가 가산되어 나오므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2% 내외를 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 식수

베네수엘라의 수도물은 석회질이 다량 포함되어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생수를 구입해 먹는 것이 보통이다. 식당에서도 생수를 무료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주문 해야 한다.

라) 질병

베네수엘라의 풍토병으로는 뎅게를 들 수 있다. 말라리아와 유사한 뎅게는 다리가 흰 모기가 전염시키는 병인데, 2001년 이후부터 들어 크게 창궐하고 있다. 증상은 몸살과 비슷하게 몸이 몹시 쑤시고 아프며 열이 나는 것으로,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수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뎅게는 인체 내 혈소판 감소를 가져와 외부 상처(특히 출혈)가 생겼을 때 약품 효용이 없어 출혈 과다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뎅게에 걸렸을 경우 안정이 제일 우선이다. 뎅게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과 상극 관계가 있어 상용할 경우 병이 악화되므로 타이레놀 계열의 약으로 해열시켜야 한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열이 나면 아스피린 사용을 금하고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를 먹는 것이 좋다. 뎅게는 예방주사가 없으며, 병에 걸리면 꼭 쉬면서 의사 처방약과 물을 계속 먹는 것이 좋다.

베네수엘라 출장시 타이레놀 구매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상비약으로 미리 구입해서 지참하는 것이 좋다.

3) 쇼핑

가) 물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센터의 물가는 매우 비싸다. 그러나 최근 달러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물가는 경제적이고, 일부 수입품목에 한해 높은 편이다.

나) 쇼핑장소

카라카스 시에 SAMBIL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고가 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두루 갖춘 백화점으로서 고품질의 선물을 구입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San Ignacio라는 명품 쇼핑몰에서는 부유층들이 주로 구매하며, 대중이 선호하는 쇼핑몰인 el recreo도 있다. 무역관이 이용하는 Melia호텔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내부가 연결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중급 쇼핑몰로 C.C.C.T와 BECO등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통 공예품을 구입하기에는 HATILLO가 적당하다. 카라카스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개의 전통 공예품 상점이 밀집해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비상사태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71번이다. 이 번호에서는 도난 사고 발생시 경찰을 연결해주며, 응급환자에게는 가까운 진료기관을 알려준다. 단, 안내원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스페인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번호는 국번 없이 113번이다.

현지 관공서

기관명	연락처	비 고
외국인투자감독청(SIEX)	TEL : (58-212)483-6519 FAX : (58-212)484-4368 web-site : www.sieux.gov.ve	외국인직접투자 정보 입수 가능
투자진흥청(CONAPRI)	TEL : (58-212) 237-5383/5238 FAX : (58-212)237-6028 web-site : www.conapri.org	각종 경제지표 및 외국인 투자 정보 입수 가능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Venezuela)	TEL : (58-212)801-5101 FAX : (58-212)801-5617 web-site : www.bcv.org.ve	각종 경제지표 입수 가능

은행

기관명	연락처	비 고
Banco Provincial	TEL : (58-212)761-5157 FAX : (58-212)762-1216 web-site : www.bancoprovincial.com	주재국 최대 은행
Banco Mercantil	TEL : (58-212)761-0344 FAX : (58-212)761-4071 web-site : www.bancomercantil.com	주재국 2대 은행
환전소 (ITALCAMBIO)	TEL : (58-212)263-1091 FAX : (58-212)562-9555	환전 전문 금융기관 (은행보다 편리함)

경제 단체

기관명	연락처	비 고
FEDECAMARA (연합상공회의소)	TEL : (58-212)731-1711/1967 FAX : (58-212)730-5040 web-site : www.fedecamaras.org.ve	연합상공회의소. 각종 협회에 대한 정보 입수 가능

한국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한국대사관	TEL : (58-212)954-1270 /1139/1006 FAX : (58-212)954-0619 e-mail : venadmi@net-uno.net	Av. Francisco de miranda El Rosal, Centro Lido, Piso11, Caracas
카라카스 무역관	TEL : (58-212)762-9925/9832 FAX : (58-212)762-2263 e-mail : ktcccs@cantv.net	Edif. Seguros Mercantil Piso 6, Oficina 1, Av. Francisco Solano con Av. Acacias, Sabana Grande, Caracas
한인회장 (정회년)	TEL : (58-212)963-2178 FAX : (58-212)961-0190	Res. York Palace, Apto. 41-A, Urb. El Cigarral, Caracas

주재 상사

업체명	연락처	주 소
LG전자	TEL : (58-212) 202-2200/6 FAX : (58-212) 237-8325	Calle Los Laboratorios, Centro Gerencial, LOS Cortijos P.B., Mesanina, Los Cortijos de Lordes, Caracas
삼성전자	TEL : (58-212) 264-2855 FAX : (58-212) 266-6069	Campo Alegre,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Edi Campo, Piso 7, Ofic. 73/74, Caracas

기 타

명 칭	연락처	주 소
한인침례교회	TEL : (58-212)978-0161 FAX : (58-212)978-2098	Quinta Dasarang, Final de Calle Panama, Urb.Terrazas del Club Hipico Caracas
한국식품 (Lotte Market)	TEL : (58-212)285-2957	Res. Alcoma Local 7 y 8, Av. 2da/ Calle 3r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 Caracas

타. 관광명소

1) 시내 관광명소

카라카스는 그다지 역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관광거리가 없어 무역관에서는 관광지로 적극 추천하지 않고 있다. 유럽식 건축 양식의 국회의사당과 박물관 등이 있지만 비교적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있어 외국인들의 관광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 건국영웅 SIMON BOLIVAR장군 생가
 -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콜롬비아 등 6개국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건국영웅 SIMON BOLIVAR장군의 생가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다.
- Hatillo
 - 가장 오래된 거주지의 하나로, 지금까지 옛날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된 구역이다. 그러나 10분 정도면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구성이 단순하다. 구역의 주택 대부분이 토산품을 파는 상가가 되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기념품을 사기 원하는 경우 한번쯤 가볼만 하지만 콜롬비아산, 중국산 물건이 많다.

2) 시외 관광 명소

- 국립공원 CANAIMA와 ANGEL폭포(BOLIVAR주)
 - 베네수엘라의 남서부에 위치한 국립공원 카나이라는 지각 변동 시 단층 현상에 의하여 형성된 솟아오른 지형(TEPUY)으로서, 깎아 세운듯한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인디오 카누를 타고 100km 정도 RIO CARRAO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높이 1,000미터) ANGEL 폭포를 볼 수 있다. 카라카스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가량 걸리며 보통 6박 7일 정도의 시간은 잡아야 제대로 관광할 수 있다.
- 국립해상공원 LOS ROQUES
 - 카리브해의 산호초 섬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어 베네수엘라의 맑은 바다와 산호초 섬들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고 있다. 카라카스에서 소형 비행기로 약 30분 이동하며, 미리 예약하면 당일 여행도 가능하다.
- 국립해상공원 MORROCOY(FALCON주)
 - 카리브해의 맑은 해변이 작은 섬들 사이에 무수히 산재. 카라카스에서 TUCACAS까지 자동차로 4시간 여행 후 배로 30분 정도 가면 섬들의 백사장에 도달한다
- MERIDA주(안데스산)
 - 안데스산의 한적한 정취와 고산의 내음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비행기로 카라카스에서 출발 후 1시간이면 도착. 현지 도착 후 대기택시로 일일 미화 \$30 정도 지불하면 주요 코스 관광이 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4,000 미터)에 위치한 케이블카가 있다.
- GRAN SABANA(BOLIVAR주)
 - 베네수엘라의 남서부에 위치한 그랑 사바나는 개발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모습 그대로의 괴암과 평원이 절경을 이루는 유수의 관광지이다.

- 독일인 집단주거지 COLONIA TOVAR
 - 약 150여년 전 베네수엘라로 이주해온 독일인들에 의해 독일 건축 양식으로 건설된 마을로 레스토랑(독일 소시지 전문)과 특산물 상점은 관광객들로 붐빈다(그러나 대부분 중국제품이다. 필자가 딸아이의 선물로 독일인형을 샀는데 made in China였다). 카라카스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데, 토·일요일은 교통이 혼잡해 3시간 이상 걸린다.
- 유황온천 LAS TRINCHERAS
 - 노천에서 솟아나오는 뜨거운 유황 온천은 유황의 함유량 및 순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나 더운 날씨로 인해 현지인들은 온천을 즐기지 않는 편이므로 동양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코스이다. 카라카스에서 3시간 반 거리에 있다

3) 골프장

- 카라카스에서 1시간 거리 내에 5개 골프장이 있다. (Country Golf Club, Valle Arriba Golf Club, Lagunita Country Club, Izcaragua Country Club, Junko Country Club) 베네수엘라에서 골프는 상류사회의 운동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뿐더러 클럽 가입도 만만치 않다. 회원의 초대가 있어야 하는데, 회원 1명당 1명만 초대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배타성이 강해 동양인의 회원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Country Golf Club, Lagunita Country Club 회원 중 한국인은 극히 드물며 Valle Arriba Golf Club에 2명, Izcaragua Country Club에 3명, Junko Country Club에 15여명의 한국 회원이 있을 뿐이다. 그린피는 1인당 50볼이며 캐디피로 약 15볼 내외로 소요된다.